



3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3호

(루계 497)



◇◇◇◇◇◇◇◇◇◇

차 례

◇◇◇◇◇◇◇◇◇◇

천리길에 눈이 내리니...	4
여기가 새 세계다!	5
이 강산에 태어난 천만꽃송이	5
만대에 길이 빛날 정일봉	6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3)	7
아, 김정일 화	9
붉게 타는 김정일 화 (외 1 편)	10
꽃은 무엇을 주는가	10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11
눈물과 설음속에 부각되는 생활의 진리	11
순화강가에서	13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지도자	14
만풍년의 봄바람	14
고향은 영웅을 자랑한다	15
아, 백두의 봄	18
미래의 거리에서	18
물어보라 뜨거운 심장에	19
좋은 이름	20
이날의 이 저녁때처럼	27
비날론건설장에 한 녀인이 있다	28
그날이 오면 축배를 들자	28
순천의 담보	30

봄비 내리는 밤	31
들향기	32
떠날수 없어	37
나의 포전	38
명상을 깨칠라	40
땅의 향취	41
풍정벌에서	42
땅과 냇	43
변함없는 모습	45
바다의 가을	46
사랑을 알기전에... ..	47
위훈자의 걸음새	53
산중의 《바다》여	54
사색과 탐구의 발걸음	55
어머니에게 (외 2 편).....	60
한밤중의 생각	60
인사.....	61
재부.....	62
기다리는 언덕에서	69
순천의 숨결과 함께	70
밀물과 썰물	72
분렬된 조국강토의 비운의 정황과 시인의 서정	73
도미와 그의 안해	76

천리길에 눈이 내리니 ...

리광선

포평서 만경대는
아득한 천리
더더구나 걸어넘는
아득한 천리길-

하루라도 쉬어서 오시였으면
한끼라도 따끈히 하고 오시였으면
이리도 가슴이 미어지진 않으리
이다지도 마음이 죄스럽진 않으리

세월이 흘러
오가산령에 다시 눈이 내리니
천리길을 혼자 오신 수령님 생각
그날의 마음으로 생각깊어라

지금도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령넘어 오시는듯
조선을 아시며 한자욱
조선을 배우시며 또 한자욱

조국의 깊은 밤을
흔들어깨우시며 한걸음
조선의 엄동설한을 녹이시며
또 한걸음

이렇게 넘어온
령은 그 얼마
이렇게 걸음발에 날개가 돋혀
헤치신 찬바람은 그 얼마

눈보라 일고
바람세차도
12살 그 어리신 나이에
큰뜻 품고 조국으로 나오시는 수령님
그 굳센 발걸음에 눈서리가 우수수
어디선가 터지는 물소리 물소리

이렇게 령과 령을 넘어서고
이렇게 굽이와 굽이들이 뒤로 물러서고
캄캄한 밤은 가고
동은 트고...

이렇게 천리길은 이어지고
이렇게 끝없는 생각의 나래를 펴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나오신 수령님

아,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조선의 말과 글 어서 배워야 한다고
수령님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한생을 두고 걸으면 다 알고
천년을 두고 따르들 그 뜻 다 따르랴

걸음걸음 피가 뛰는 천리길
걸음걸음 생각깊어지는 천리길이어
그 길우에 다시 그날의 눈이 내리네
따라서고 따라서는 천만의 어깨우에
조선의 넋을 속삭이는
그날의 눈이 소중히 내리네

여기가 새 세계다!

변홍영

봄날의 만수대
끝없는 흙모의 꽃물결 속에
먼 이국에서 온 젊은 부부
어린 아들을 안고
화강석계단을 조용히 밟고오른다

층계층계 생각은 깊어
떠나온 대륙의 한끝
신생의 기쁨에 설레이는
야자수 푸른 고향땅을 그려보는가

송엄히 한결을 옮기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 한층계 오르고는
크낙한 그 손길 다시 우러르는 눈가엔
뜨거운 이슬이 맺힌다

아, 열대의 수림너머
별들이 유난히도 빛나던 밤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무으며
눈물에 젖던 그날의 그 환희가
다시금 가슴가득히 차오르고

제국주의사슬을 끊어버린 땅우에
새 사회를 일떠세우며
그토록 비우고싶던 그리움이
간절한 축원으로 목메여와서
더더욱 후더워오는 눈길로 우러르는

만민의 태양 **김일성**동지!

그 해빛이 아니었다면
상기도 노예로 남아
자신의 한생만이 아닌 어린것까지도
굴욕의 채찍밑에 쓰러졌을 운명을 따사로이
안아주고
오늘은 이처럼 봄의 환희가 설레이는
창창한 하늘밑에 세워주셨나니

아, 다시 태어났는가, 이 봄날에
더는 인간이 노예일수 없고
더는 인간이 존엄을 잃지 않을
영원한 태양의 축복속에
새 삶을 받아안은 젊은 부부

가슴에 차넘치는 걱정을
달리는 터칠길 없어
대륙의 미래를 만들어올리듯
어린 아들을 머리위에 높이 추켜올린다
철없는 아이는 그저 좋아서 웃고
목메인 부부는 자꾸 감격에 운다

-자, 보아라 아들이
여기가
자주의 성새
인류의 희망 영원히 푸르른
미래의 새 세계다!

◇가사◇

이 강산에 태어난 천만꽃송이

박명도

밝은곳에 피었다고 빛을 더 주며
그늘밑에 피었다고 빛을 덜 주랴
이 강산에 태어난 천만꽃송이
고르로이 빛을 주네 어머니당은

눈서리를 함께 맞은 꽃이 아니냐
불바람도 함께 헤친 꽃이 아니냐

이 강산에 태어난 천만꽃송이
한품속에 안아주네 어머니당은

아름다운 진달래도 내 나라의 꽃
향기로운 동백꽃도 내 나라의 꽃
이 강산에 태어난 천만꽃송이
대를 이어 피워주네 어머니당은

만대에 길이 빛날 정일봉

김 석

언제 어느때
평범한 푸른 산봉우리가
그처럼 성스러운 이름
지너본적 있었던가
정일봉 정일봉이여

산봉우리에 새겨진
정일봉
력력한 글발마다엔
그대로 어려있구나

정일봉을 우러르는 내 마음속엔
정녕 잊을수 없구나
아버이수령님께서
백두의 고향집을 찾으셨던
력사의 그날을

수령님께서 보시는
밀영의 수수한 방안엔
항일의 그날을 말해주는듯
그대로 놓여있었어라

너대원들이 군복으로 만든
작은 쪽무이포단
키낮은 책상, 쌍안경, 팔도강산 조선지도
윤기도는 가마와 군용밥통...

깊은 감회속에 보고 또 보시던
아버이수령님
어이하어 아무 말씀없이
백두산바람 감도는

높은 산봉우리를 보시며
고향집뜨락을 거느시였던가

시대의 향도성을 안아올린
환희와 축복의 그날
천고밀림속에 울리던
김정숙녀사의 자장가소리 들으시는가

어머니의 정다운 손길에 이끌려
백두에서 첫걸음마 옮기시던
아드님의 유년시절
그날의 그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못잊을 력사의 자욱을 새겨주는
백두고향에 높이 솟은 봉우리
보고 또 보시던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에 높이 받들린
영광의 정일봉!

언제 어느때
너의 푸른 산봉우리가
그처럼 성스러운 이름
지너본적 있었던가
정일봉 정일봉이여

오 너는 정녕
만민이 영원히 우러러따를
력사의 봉우리
혁명의 봉우리
신념의 봉우리
만대에 길이 빛날 영광의 봉우리여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제 3 회)

유흥거리장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제3장 유흥거리는 극 조직과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꽃분이의 수난에 찬 인정비극이 굴곡을 이루어 오다가 유흥거리장면에 이르러 폭발됨으로써 자신과 기만으로 가리워졌던 계급사회의 반동적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극창조사업을 시작하던 첫시기부터 유흥거리장면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장면을 당대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나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이론을 가슴깊이 체득하지 못한데로부터 그이의 의도에 맞게 이 장면을 형상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창작한 제3장은 장마당거리인데 오늘날은 전혀 내용이 다르게 되어있었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와 같이 장군들이 나오고 눈먼 순희가 나와 꽃을 팔다가 《거지》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꽃분이가 들어와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라고 꾸짖는 장면 그리고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꽃분이를 반기는 진달래꽃정들의 무용장면이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진달래꽃정들의 무용장면이 새로 설정되었을뿐 기본내용은 영화의 복사판이었다.

창작가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작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나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리면서 영화에 없는 내용들을 새롭게 더 보충할데 대하여 시종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나 아직도 그이의 심오한 뜻을 가슴깊이 체득하지 못함으로써 가극형상에 구현하지 못하고있는 창작가들이었다.

이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유흥거리장면에 꽃분이가 도적으로 물리우는 선을 설정하여주시었다.

참으로 훌륭한 명안이었다.

적중한 형상안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이 모대기던 창작가들은 한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 한동안 어쩔줄 몰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찾아주신 착상, 이것은 인간관계를 묘사하거나 하나의 장면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며 고도의 전형화를 실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에 맞게 갈등을 예리화하고 계급교양의 내용을 강조하며 시대의 본질을 뚜렷이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었다.

창작가들은 사기충천하여 형상창조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창작가들의 흥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도적의 루명을 쓴 꽃분이의 선을 극의 절정으로 즐기치게 이끌고나갈 행동선과 생활세부들을 손쉽게 찾아낼수 없었다.

일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점차 신심을 잃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주인공을 높은 수준에서 형상화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실태를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날 새벽 한 창작가를 전화로 친히 찾으시여 그에게 대담성과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대담성은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시고는 일부 창작가들이 꽃분이가 도적으로 물리우는 장면설정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작품창작에서 형상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대담하지 못하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색을 모으시여 굳건히 세워주신 작품의 대에 아지를 치고 꽃을 피우는 세부형상마저 창발적으로 하지 못하여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리니 어찌 그이의 참된 전사라 말할수 있으랴.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깊은 자책속에 잠기여 생활세부들을 찾고있던 그날저녁이었다.

몸소 창조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에 넘친 안색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인공이 억울하게 도적의 루명을 쓰게 되는 사건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형상해야 아름다운 인간의 자주성을 참혹하게 짓밟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든 사회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고 가르쳐주시

였다.

그러시고는 생활세부들을 하나하나 실텔드시여 말씀하시였다.

유흥거리장면에서는 물건을 도적맞힌 장사군을 등장시켜 꽃분이를 사정없이 때리게 하고 또 술집에서 거간군한테 꽃분이를 팔아먹을 계책을 꾸민 지주가 거리에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자기집 일을 하지 않으면서 꽃을 팔러다닌다고 하며 꽃분이를 더 모질게 때리게 하여 《참, 무서운 세상 이구나.》 하는 소리가 관중석에서 터져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동터오는 새벽길을 걷는 사람처럼 창작가들의 앞길은 더없이 환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많은 시간을 바쳐 유흥거리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안을 세워주시였다.

-물건을 도적맞힌 장사군이 꽃분이를 더 때려야 한다.

-지주를 등장시켜 일하지 않고 꽃을 판다고 하면서 또 때리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 무서운 세상 이구나!》 하는 관객들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야 한다.

-지주가 꽃바구니를 쥐어뿌리게 하여야 하며 거간군한테서 돈을 받고 꽃분이를 파는 선이 나와야 한다.

-황로인도 등장시켜 이 광경을 보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로서는 도저히 꽃분이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황로인이 꽃분이를 동정하여 주저하고있을 때 지주는 지팡이로 그를 더 때리게 하여야 한다.

-의사는 처음에 돈없이 약을 줄수 없다고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꽃분이를 동정하게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주시고 가르쳐주신 생동하고도 논리적인 세부형상안은 말 그대로 하나의 완성된 연출대본이였다.

창작가들은 이 형상안을 놓고 신심에 넘쳐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들끓는 창조현장에 자주 찾아오시여 인정심리극인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양상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생활세부들을 생활정서에 맞게 진실하고 섬세하게 파고 들어 형상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 나날에 일본놈들이 꽃분이한테서 꽃을 집어가지고 돈도 주지 않고 가버리는것과 꽃분이가 그놈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세부들이 생겨났다.

그러던 1972년 11월 27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검열공연이 진행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저녁 공연이 아주 잘되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며 유흥거리장면형상에서 일부 고쳐야 할 생활세부들을 지적하여주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꽃분이까지 자진하여 팔려가는것으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꽃분이가 유흥거리에서 거지라는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도적으로 몰리는데 그가 팔려간다고 하면 그 생각만 하고 거지라는 모욕을 받고 도적으로 몰리는데 대하여서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금 설정한것과는 다르게 유흥거리장면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꽃분이를 동정하여 그에게 약을 주게 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창작가들은 이 대목에서 꽃분이 행동선의 초점이 옮겨졌다는것을 직감하게 되였다.

당시 작품에는 꽃분이가 자기의 몸을 판 돈으로 약을 사오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관객들의 동정은 꽃분이가 도적으로 몰리우는것보다 몸을 파는데로 더 쏠렸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부족점을 일깨워주시면서 수정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동의사가 도적으로 몰리우는 꽃분이를 붙잡히 여기고 지주가 거간군에게 그 처녀를 파는것을 보고 꽃분이를 동정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꽃분이를 동정하는 동의사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약을 주게 하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

동의사가 지주놈이 거간군한테 꽃분이를 파는것을 보고 처녀를 동정하여 약을 주는것으로 하면 달밤장면도 더 심각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동의사의 선을 더 깊이 파고 생활세부들을 여기에 밀착시켰다.

꽃분이가 아침저녁마다 꽃을 가져다드릴테니 약을 좀 달라고 애걸하자 이 세상은 꽃을 먹구는 못산다고 하며 돌아서던 약방주인이 그의 정성에 감동되어 드디어 약봉지를 가지고나와 꽃분이에게 주며 노래를 부르는것으로 바뀌게 되였다.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나에게는 도울길 달리 없으니
이 약이나 가져다 달여드려라

영화에서는 유흥거리에 나가 노래부르는 순희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고 꾸짖는 꽃분이의 행동이 그렇게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었는데 가극에서는 무대적인 특성에 맞게 도적으로 몰리우면서까지 끝내 어머니의 약을 구하는 꽃분이가 형상되어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그로부터 이틀후인 1972년 11월 29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시연회를 보시고 유흥거리장면에서 동의사선을 넣은것은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꽃분이가 약을 사가지고와서 순희에게 꽃을 팔아 약

을 사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꽃을 판 돈은 모자랐지만 동의사가 도와주어 약
을 가져왔다고 명백히 말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
시였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 아래와 같은 대사가 생
겨 났다.

꽃분이; 순희야,
순 회; 언니야,
꽃분이; 순희야, 언니가 약 사왔다.
순 회; 약? 야! 돈은 어디서 났나?
꽃분이; 꽃판 돈은 모자랐지만 고마운 선생님
이 약을 주셨어.
순 회; 야, 좋구나.

이렇게 되어 유흥거리장면은 꽃분이가 약을 구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마지막 행동선까지 생활론
리에 맞는 진실한 세부로 형상되었으며 정서적인
감정축적과 여운을 가지고 다음장면과도 완벽하
게 맞물리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수십차례에 걸치는 정
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유흥거리장면은 모진 가난
과 천대속에서도 참된 삶을 지향하여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려는 주인공의 깨끗한 양심을 무
참히 짓밟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민적
본질을 예리하게 까밝히고 나라 잃은 민족의 설
음과 돈없고 권리없는 무산자대중의 비극적 운명
을 여실히 보여주는 뜻깊고 특색있는 화폭으로
완성되었다.

하기에 혁명가극 《꽃과는 처녀》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꽃분이가 도적의 루명을 쓰
고 놈들에게 갇은 모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며 분노의 주먹, 복수의 주먹을
으스스하게 틀어쥐곤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펼쳐주신 유흥거리장면은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진면모를 그대
로 보여주는 축도로써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
리 근로자들의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는 생동
한 화폭으로 빛날것이다.

아, 김정일화

김성환

아름다워라 흙모의 꽃
그리움에 사무쳐
스무해 긴긴 세월
싹틔우고 망울피우던
심장의 열정이런듯
꽃잎마다 붉게붉게 타는 꽃송이

향기로워라 축원의 꽃
이 세상 한끝이라도
우러러따르고
한생 받들어갈 그 마음이
봄날의 훈향이런듯
꽃잎마다 떨기떨기 풍기는 꽃송이

내 마음 잎잎을 쓰다듬는다
방금 솟아오른 아침해와도 같이
황홀한 그 모습 바라볼수록

꽃이어도 그냥 꽃이 아니구나
흙에 뿌리 내리고
빛을 받아 피는...

아, 향도의 해빛아래
품은 소원, 지닌 꿈, 누리는 삶을
꽃처럼, 이 꽃송이처럼 활짝 피워갈
이 세계, 이 누리!
축원의 그 열망이 뿌리되고 즐기되고
흙모의 그 열정이 꽃잎이 되어 피어났구나

만발하여라 김정일화
이 마음속에
만민의 마음속에
활짝 피어나는 꽃송이는
계절의 한계없이
세월의 한계없이 피고피리라!

붉게 라는 김정일화 외 1 편

유성옥

지구가 생겨 수억만년
풍만하고 보배로운
대자연의 식물계엔 없던 꽃이다
김정일 화!

조선의 녀에 생명의 원천을 두고
세기를 기다려 맞이한
거룩한 위인의 존함을 그대로 간직한채
붉고붉은 그 자태 누리에 떨치는 꽃

한생의 심혈을 바쳐 이 꽃을 피운
그 원예가의 열혈의 마음에서 솟아났기에
저리도 붉은가

현대의 걸출한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그이의 사상과 품모에 매혹되어
우러러따르는 만민의 한마음
바라는 념원과 축원이 너무도 절절하여
이 세상 붉은꽃중에서도

가장 크고 순수한 진홍색의 꽃이어!
우아하고 깨끗한 미모의 꽃이어!
넘치는 열정에 불붙는 꽃이어!

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린듯
빛나는 붉은 광채-
이는 자주시대 인간의 지향과 신념의 발견
희망의 빛갈

이 세상 모든 꽃은 자연이 주건만
인류의 량심과 의지가 낳은
김정일 화! **김정일** 화!
너는 다만 꽃이 아니라
솟아오른 장엄한 해돋이의 모습!
노을처럼 피어나는 붉은 그 광휘에
내 심장이 물드노라
온 세계가 물드노라

꽃은 무엇을 주는가

꽃은 무엇을 주는가
미묘하고 이채로운 색깔과 향기로
산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의 정서와 기쁨을 주더라

그래서 자연은
천만가지 꽃을 피워 무늬를 놓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꽃을 사랑하며 그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바라더라

허나
지구위에 새로 탄생한
진귀하고 황홀한 **김정일** 화는

이 세상 모든 꽃들중의 꽃이어서
다른 꽃은 주지 못하는
크고도 소중한것을 주나니

이 꽃은 무엇을 주는가
친애하는 그이의 존함을 모신
그 붉은 빛갈과 향기로 하여
더없이 밝아지고 활기로워진
인류의 존엄을 주더라

오, 이 꽃은 무엇을 주는가
꽃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세계의 모든 인간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을 주더라!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나의 딸들아
이제는 어미마저 병들었으니
악착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

목숨이 아까와서 내 아니살고
죽기가 무서워서 내 아니산다
오직 하나 너희들을 생각하여서
기를 쓰며 살아가는 어머니로다

명가사평(제 3 회)

눈물과 설음속에 부각되는 생활의 진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에 대하여-

김경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주옥같이 다듬어진 명가사, 명곡들로 이루어진 주체시대 혁명가극의 참된 본보기이다. 가극의 모든 노래들은 그것이 극발전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울리던 하나같이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하여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끝없는 감동의 세계에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가슴속에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자주시대의 진리를 삶의 맥박으로 심어주고있다.

그러한 노래들중의 하나가 바로 가극의 제2장 1경에서 울리는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이다.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나의 딸들아
이제는 어미마저 병들었으니
악착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

지주놈의 악착한 착취와 억압의 멍에밑에서 어제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원쑤놈들에게 끌려갔으며 사랑하는 막내딸은 초롱같은 두눈을 빼앗기고 오늘은 자신마저 머슴살이에 골병이 들어 쓰러지게 된 어머니. 헤쳐온 가시덤불길만 하여도 몹서리치게 첩첩한데 이제 닥쳐올 어둠은 또 끝간데 없이 막막하니 저 사랑하는 어린 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어머니의 그 가슴미여지는 슬픔과 몸부림치도록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담은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모두를 봄에도 꽃을 몰랐고 낮에도 빛을 몰랐던 그 암흑의 시대에 자주성을 빼

앗긴 인민들의 고통을 절감하게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진리가 심장같이 새겨지게 한다.

가사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가 그로록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주는 명가사로 되는 것은 그것이 심오한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의 생명은 의미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가극의 가사에서는 하나의 표현에도 깊은 뜻이 새겨지고 한결의 시행속에도 폭넓은 사상적 내용이 담겨져야 훌륭한 시형상이 되어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수 있다.

이 가사의 철학적 깊이는 무엇보다도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진실한 문제,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관련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있는것과 관련되고있다.

시형상을 통하여 직접 강조되고있는바와 같이 가사가 제기하고있는 문제는 계급사회의 검은 구름, 사나운 번개가 불쌍한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데 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억압자, 착취자들에게 유린당하는 인간들이 살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어머니도 철용이도 꽃분이라도 잔뼈가 굵기전부터 일손을 잡았으며 일속에 세상의 재미가 있는 줄을 알며 살아왔다. 언제 한번 등엿고 배부르게 살아보지 못하는 고생속에서도, 목숨을 빼앗기

고 감옥에 잡혀가고 눈이 멀고 팔병이 드는 속에서도 언제 한번 누구를 닮은 일이 없이 어질고 착하게 살아왔다. 참을대로 참고 이길대로 이겨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 어느때에도 복을 준적이 없으며 락을 베풀어준적이 없으며 크지 않은 소원도 이루어준것이 없었다. 이제 어머니마저 팔병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캄캄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들의 운명에 더 큰 재난이 닥쳐올것은 정해놓은 일로 되었다. 그러니 과연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그들이 살아갈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가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듯 심각하고 준엄하다. 꽃본이 일가의 운명이 제기하는 이 심각한 문제, 그것은 그들일가 하나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인류사회가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으로 갈라진 그날부터, 이 땅에 지주 생기고 머슴이 생긴 그날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수억만 인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지며 안타깝게 모대기던, 그러나 해답을 찾을길 없던 문제였다. 따라서 그것은 그 어느 문학에서도 참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억압받는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에서 처음으로 형상전반에 힘있게 부각되어 제시되었으며 밝고 희망찬 래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 설레이게 하면서 20세기의 새로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힘차게 울려나 왔다.

고생살이에 팔병이 들어 더는 일어날수 없는 처지에 빠진 어머니의 마음속을 그대로 펼쳐보여준 이 가사에는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지닌 인간, 그러나 아직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어머니의 소박한 인식의 세계가 노래되고있다.

어머니는 나라잃은 수난자, 수난의 가시덤불길에서 헤매다가 자기의 앞길을 찾지 못한채 억울하고 불쌍하게 숨저간 인간의 전형이다. 착취사회에 내던져진 불행한 인간인 그는 박정한 사회에서 자기 가족의 개인적 불행의 테두리속에서 몸부림쳤으며 자기들이 살아나갈 길도 자기 가족의 손발과 육신에서 찾았다. 사랑하는 딸들을 물려오는 검은 구름으로부터, 사나운 번개로부터 막아주어야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며 그래서 기를 쓰고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그러면 과연 어머니가 생각하는것처럼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개인적인것이며 한 개인, 한 가족의 불행을 부모 자식사이의 인정과 효성으로 구원할수 있을것인가.

명작의 가사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관련한 근본문제를 심오한 형상으로 제기하면서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이 있어야 개인의 자주성도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는대로 형상을 힘있게 지향시키고있다. 하여 운명개척의 길을 찾아 모대기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에게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한 자각을 안겨주고있으며 나아가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인식세계에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여기에 가사가 철학적 심오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과 민족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있다.

가사 《검은 구름 물려오고 번개치는데》의 심오한 철학성은 높은 시형상에 의하여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가사는 심오한 내용을 형상적으로 시화한 철학성있는 시로 되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시란 생활에서 받은 충격과 체현한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그려내는 문학인것만큼 가사를 시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말하려는 사상적 내용을 풍부한 정서속에 담는것이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 표현되므로 정서가 메마르면 주자는 사상도 생경하게 된다. 시에서는 정서가 풍부하여야 말하려는 사상적 내용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가사의 풍부한 서정성은 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상감정과 생활과정에 느끼는 체험세계를 그들의 운명문제와 결부시켜 깊이 파고들 때에 보장될수 있다.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간순간에 느끼는 단순한 감정이나 그들의 움직임만 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는 외적인 생활현상을 가사에 담아서서는 서정성을 보장할수 없다. 인물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는 식으로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장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복사에 떨어지게 되며 결국 가사에는 시가 없게 되는것이다.

가사 《검은 구름 물려오고 번개치는데》에서는 팔병이 들어 사람들의 손에 들려 집에 돌아온 어머니의 심정을 단순한 슬픔이나 고통으로써가 아니라 딸들의 운명을 놓고 모대기는 어머니의 심각한 체험세계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일어번지는 수많은 생각에서 정수적인 핵을 잡아가지고 시화하면서 거기에 자기 가족이 걸어온 수난 많은 고생살이에 대한 추억으로 몸서리치고 알지 못할 불행이 기다리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떨리는 심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체현시키고 있다. 가사가 만일 인물의 성격과 사상감정의 알맹이를 바로 골라쥐고 시화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늘어놓는 식으로 썼더라면 가사의 내용에 중심이 없는것은 물론 정서적 내용도 깊이있게 보장되지 못하였을것이다.

가사 《검은 구름 물려오고 번개치는데》는 서정적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수 있는 언어형상으로서 또한 특징적이다.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어떻게 살아
가랴 나의 딸들아》에서 은유적인 형상적 표현은
직선적인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그렇듯
깊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안고있다.
자신의 병보다도 거치른 세상에 내던져질 어린것
들의 운명을 두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보다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표현은
더는 없다.

목숨이 아까워서 내 아니살고
죽기가 무서워서 내 아니산다
오직 하나 너희들을 생각하여서
기를 쓰며 살아가는 어머니로다

얼마나 소박하며 진실한 표현인가. 여기에는
어머니의 심정을 예술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서 인
위적으로 끌어들인 말마디와 표현은 하나도 없다.
한없이 소박하고 생활적인 가사의 언어는 어머

니의 심정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보이고있는 하
나하나가 보석같이 값진 어휘들이다.

대구법으로 조직된 시행들은 불안과 절망으로
하여 어둡고 무거운 가사의 시적 정서를 지지리
암담하고 고통스러운것으로 덧쌓아주고있으며
7·5조의 음수률조직은 사상정서적 내용의 시음
악적 표현을 힘있게 담보하고있다.

실로 가사 《검은 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는 심오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결합된 명가
사로서 착취사회에서 삶의 길을 찾아 모대기는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일반화한 가사
의 고전적 본보기이다.

가사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전반적인
형상체계에서 확고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있으
면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대작의 사상에
술적 가치를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순화강가에서

전병구

흰물결 일렁이는 순화강 기슭에
오늘도 조용히 다가서면 들려와라
푸름한 새벽달을 안으시고
김형직선생님 노젓는 소리

동터오는 새날을 부르시며
나루배를 저어오시던 그 소리
서느러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소리 가슴에 안을수록
뜨거움에 북받쳐오르는 생각이여!

나라찾을 큰뜻을 안으시고
밤이면 총총한 못별을 이시고
집을 나서시던 선생님
새벽어스름을 밀어내시며
이슬에 젖어오시던 그 하많은 나날

빼앗긴 강토의 몸부림소리도

한가슴에 다 안으시고
압제의 격랑을 맞받아
시대의 폭풍속을 헤쳐오신 자욱자욱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건지시려
선생님은 이렇게 한생을 저어오시지 않았던가
봉화산 기슭의 맥전나루를 거쳐
압록의 살얼음도 밀어내시며...

난바다 물결을 가르듯
광복의 그 길에 막아서던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며
선생님 저어오시던 그 소리

겨레의 가슴에
밝은 빛을 뿌려주며
짓밟힌 민족을 불러일으켰어라
조선을 부르며, 이끌며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지도자

자파르 로드히

김정일 동지

그이는 슬기를 타고나신분
빛나는 예지로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네

그이는 위대한 인간
천리혜안으로 앞을 내다보시며
근로인민을 인간존엄의 높은 령마루에
벗뻗이 내세워주시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인민은 그이를 진정으로 따르고
그이는 인민의 리익을 위해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네

김정일 동지 그이는

문학예술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분
하여 문학예술은
그 사명을 다하였나니
인간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고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켜주네
사회주의위업을 앞당겨가네

김정일 동지 그이는

웅장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주체조선을 빛내이시거니
그것은 나라와 인민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여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사회주의위업에 한몸 바치시며
반제자주의 투쟁정신 타번지게 하시나니
우리 세계 수억만 인민들
그이의 령도를 따르데
그렇다 그이는 우리의 향도자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정녕 우리의 궁지 높고 높아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그이
정력적으로 인민을 향도하시나니
그것은 밝고밝은 해빛처럼
빛나는 열매를 맺으려

미제는 남조선에서 곧 쫓겨나고

오랜 세월 갈라져있던 나라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앞당겨지리라

충심으로부터 축원하노라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 담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김정일 동지 만세!

(필자는 파키스탄 자주연구센터책임자임)

◇가 사◇

만풍년의 봄바람

김영남

진달래도 종달새도 눈속에서 잠을 잘 때
구슬같은 벼종자를 정을 담아 뿌렸다고
주체농법 꽃피워 당에 기쁨드려갈
만풍년의 봄바람이 가슴에서 일었다오

앞내벌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올 때
사랑스런 애기모로 푸른 옷 떨쳤다고

올해 농사 앞당기는 그 마음에 물들어
봄얼굴도 붉어진듯 진달래꽃 피어나오

내 고향 넓은 벌에 아지랑이 춤을 출 때
내 가슴엔 황금나락 파도쳐 설렌다오
산에 들에 꽃피여 봄이 오던 이 땅우에
풍년농사 먼저 짓는 충성의 봄 앞서와요

고향은 영웅을 사랑한다

박웅전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한꺼번에 현실로 꽃피우는 오늘의 이 거창한 대건설행군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태어나고있는 것인가.

특히 지난해에 있는 전국영웅대회를 계기로 하여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삶의 보람과 영광에 대하여 더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며 어데 가나 영웅들에 대한 찬가는 더욱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다.

위훈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위훈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은 먼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위훈자들이 자란 고향과 일터, 학교와 가정들에 전해진다.

하나 서해갑문 영웅들의 소식은 그렇게만 되지도 않았으니 그것은 신문에 발표된 100여명에 달하는 영웅들의 이름엔 고향주소도 없었고 우편 대호도 없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서해갑문준공식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온 나라 온 인민이 병사들과 함께 목메이도록 만세를 불렀고 병사들과 함께 포성없는 대격전의 나날들을 추억하며 잠들 줄 몰랐다.

한것은 참으로 자기의 수많은 아들딸들을 이 성스러운 전투장에 보내였고 끝없는 지원으로 갑문을 함께 반들어올린 우리 인민들이였기때문이었다.

단 5년동안에 20리 날바다를 막아 만년대계의 세계적인 갑문을 일떠세우는 이 거창한 대건설전투장에서 우리 당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키워냈는가.

련일 신문페이지수가 모자라게 소개되는 영웅들과 공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짚어가면서 우리는 생각하였다. 이 많은 영웅들중에 우리고장 출신들도 있을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리라고 당조직들에 포치하기까지 했었다.

그후 어느날 우리는 군소재지 아이들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영웅이 났다!》는 소문이 퍼진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고등학교 교장선

생을 전화로 찾아 물어보니 신문에 난 영웅명단 48번째에 《최명철 사관》이 있는데 자기네 학교 졸업생같다는것이였다. 이것은 정말 기쁜 단서였다. 허지만 세상엔 동성명을 가진 사람도 많으니 확인해봐야 알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이튿날 교장선생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비서동지, 기쁜 소식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나이든 교장선생의 목소리는 저으기 흥분에 들떠있었다.

그의 이야기인즉 다음과 같았다.

남강에 미역을 감으러 나갔던 한패거리의 남학생들은 강을 옆에 끼고 뻗은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에 풍자를 타고 대렬행군을 하던 군인들이 휴식하는것을 보자 그리로 달려갔다.

《아저씨들 어디서 오시나요?》 하고 아이들이 묻자 한 사관이 《서해갑문에서 온다.》고 대답해주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훈장과 메달들이 번쩍이는 병사들을 부럽게 쳐다보았다. 《어디로 가시나요?》 아이들은 또 물었다.

《오,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이번엔 몸이 뚱뚱한 한 상등병이 시를 읊듯이 대답해주었다.

《아저씨들, 최명철영웅을 아시지요?》 아이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목적을 물었다.

《뭐, 최명철영웅? 알구말구. 우리 서해갑문 영웅이지.》 병사들은 아주 반갑게 대답해주었다.

《그 영웅이 우리 신평남자고등학교 졸업생이 맞지요?》

이번엔 아주 잘 아는 사이인듯 키가 큰 상등병이 대답해주었다.

《응, 맞구말구. 그의 고향이 신평이니까. 오, 그러니까 여기가 영웅의 고향이구만!》

그러자 아이들을 둘러쌌던 병사들은 아직 준공식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가슴을 들먹이며 한결 감회가 깊이진듯 높은 산발로 둘러싸인 산촌을 새롭게 둘러보는것이였다.

옆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던 군관이 말해주었다.

《애들아, 너희 군 너희 학교에서 영웅이 났다! 어서 가서 알려라. 학교에도 집에도...》

그러자 아이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울리며 남강다리를 달음박질쳐 건너가는데 강에서 미역을

감던 아이들도 물을 차며 달려나와 벗어놓은 옷들을 부리나케 입고 따라섰다.

이렇게 돼서 방금 학교에 밀려와 소식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에 우리도 어느새 흥분에 휩싸였다. 어서 빨리 온 군에 소개하자! 직관실에 전화를 걸려고 송수화기를 드는 순간 문득 또 아쉬운 생각이 떠올랐다.

지나가던 군대동무들에게 아이들이 물어본것을 가지고 당장 공개할수야 없지 않는가.

바로 이때 석암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리에 나간 책임비서동지의 목소리였다.

《비서동무, 아이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소. 우리 군에서 영웅이 났단말이요. 그의 집에 찾아가 보니 방금 편지가 와서 영웅의 어머니, 할머니랑 읽어보고 왔소. 편지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 모두 기쁜 눈물을 흘렸소. 어서 우리 군에서 영웅이 났다고 떠들썩하게 소개합시다.》

영웅이 군대나간 다음 그의 아버지가 석암지구 도로관리를 담당했기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리로 이사했던것이다. 그래서 책임비서동지도 그쪽지구 농사형편을 알아보려 나갔다가 확인도 해볼겸 영웅의 집을 찾았던것이였다.

군소재지 중심거리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었다.

《스물두살의 서해갑문영웅》이라고 현판문짝같이 크게 나붙은 새 속보, 군안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위훈의 소식들이 빠짐없이 소개되는 속보판이지만 아마 이번처럼 인기가 커보긴 처음인것 같았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지나가던 차까지 멈춰 서서 바라보는 위훈의 소식...

《우리 군에서도 영웅이 났다!》

소문은 석암지구를 나가는 빠스를 거쳐 저 먼 하남산 기슭의 방목지에 이르기까지 삼시에 온 군에 알려졌고 온 군이 기뻐하였다.

보라! 위훈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영웅은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도 소식은 바람처럼 산남고 강건너 빨리도 왔다.

가슴에 금별메달 번쩍이는 영웅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어도 고향은 벌써 영웅을 찬양하고 영웅을 떠받든다.

그래서 위훈떨치면 오지 않아도 먼저 반기여 안아올리고 위훈없이 먼저 와도 쉽게 들어서기 힘든곳이 병사들의 고향이 아니겠는가.

선생님들은 교수안을 다시 쓴다

학생들에게 영웅의 학교시절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것인가. 영웅을 담임했던 신평남자고 등중학교 리영세선생은 이날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밤이 깊도록 새로운 교수안을 쓰고있었다.

영웅이 졸업하고 군대나간지 4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 순박하면서도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했던 자기의 옛 5학년 3반 학급반장에 대한 추억은 평범하면서도 의의깊은것이 많았다.

그는 최우등생이였다. 말이 적고 잠시시간마다 소설책들을 깊이 읽는 열성독자였다. 그가 읽은 소설의 긍정적 주인공들이 갑문건설의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사심없는 방조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도적인 경기에서도 1등을 한적이 있는 학교 축구팀의 믿음직한 중간방어수였다. 가름한 얼굴에 눈정기가 있고 성격도 온순한편이었으나 일단 경기장에 나서면 가장 날파람있는 선수였다. 어려서 학교 풀문을 툰히 막아나설 때부터 생겨난 담력이 나라의 갑문을 막아내는데서 불굴의 의지로 자라지 않았겠는가!

그는 동지우애심이 많았기때문에 학급을 조직에 잘 단합시키었고 언제나 힘든 일에 앞장설줄 알았다. 바로 이런 성품으로 잠수조장으로서는 남먼저 얼음장을 뚫고 바다물속에 뛰어들었으리라.

학생시절엔 평범했던 이 모든 표상들이 오늘은 의의있는 영웅의 생동한 전기로 엮어지는것 같았다.

허나 이것만으랴 어떻게 스물두살 애젊은 병사의 영웅전기로 될수 있으랴.

우리 당이 일당백병사들의 충성으로 불타는 심장을 믿고 20리 날바다를 막는 대갑문건설을 맡겨 주었고 이 보람찬 전투장에서 영웅이 되라고 어깨를 두드려준 그 크나큰 신임과 사랑이 이처럼 젊은 병사들에게 용맹과 불사의 나래를 달아주고 금별의 위훈을 빛내여준것이 아닌가.

담당교원의 새 교수안은 이렇게 씌여졌고 이틀날부터 영웅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국어선생도, 력사선생도, 지리선생도, 모두 교수안을 다시 썼다.

달라진 지도에 대하여, 우리 조국의 위용과 존엄에 대하여, 일당백병사들의 위훈에 대하여... 어찌 서해갑문을 떠나서 설명할수 있으랴.

이것은 비단 교원들뿐만이 아니였다. 력사가들도, 론설가들도,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에 대하여 서해갑문을 놓고 다시 레증해야 할것이며 이것을 위대한 우리 당의 령도가 가져다준 80년대 새 력사의 빛나는 페이지로 장식해야 할것이다.

고향에 영웅이 오다

그해 8월초 영웅이 고향에 온 날은 명절같았다. 우리가 고향에 온 최명철영웅과 함께 군소재지 중심거리를 지나 산기슭에 자리잡은 2층집 남자고등중학교로 향했을 때는 온 거리가 흥성거리었

다.

인민학교 꼬마들까지 모두 따라나섰는데 리발소에서 머리를 깎던 한 아이가 창문으로 영웅을 앞세우고 가는것을 보고 그자리서 벌떡 일어나 깎아중이체로 달려나오는바람에 리발사들까지 따라 나서고 군당앞 3층집 꼭대기에서 총막을 치던 건설대 처녀들도 영웅을 보겠다고 발판에서 뛰어내렸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따라섰다. 보고 또 보아도 그는 평범한 병사였다. 키도 생김새도 걸음새도 군대나간 자기들의 아들과 자기들의 오빠들과 다름이 없는 얼굴은 남자치고는 곱게 생기고 걸음새도 날씬하다고 할 정도로 단정했다.

하지만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는 영웅을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대견스럽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높이 떠받들어올리는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처럼 나라의 영웅으로 위훈자로 되는 이 격동적인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가는것만 같았다.

학교정문에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녀자고 등중학교는 소재지 반대쪽 번두리에 있는데 어느새 달려왔는지 상급반녀학생들이 잔뜩 몰려와서 별빛눈매들을 반짝이고있었다. 그뒤엔 군유치원 교양원들이 서고 교장선생을 비롯한 학교선생님들이 모두 정문가에 나와있었다.

영웅은 짐짓 발걸음을 멈추었다.

학교 담장안에 하늘을 찌를듯이 솟은 백양나무 잎새들도 설레이며 박수를 치고있는듯싶었다.

날마다 책가방을 들고 레사롭게 나들던 학교정문이 꽃다발을 안고 서있을줄이야... 너무도 큰 감격이 이 애젊은 영웅을 당황하게 한것 같았다.

이때 선생님들이 달려왔다. 담임선생이 꽃다발을 안겨주자 다른 선생님들이 영웅을 안아올려 목마를 태우고 학교정문으로 들어섰다.

운동장안에선 개학날 신입생들을 환영할 때처럼 남자학생들이 량옆에 서서 꽃다발을 흔들고 꽃보라를 뿌리고 관악조학생들이 불이 블록해서 환영곡을 울리고... 자기네 학교 행사라고 해서 들여 놓지 않는지 다른 학교 녀학생들은 담장밖에서 키돋움하며 어깨성을 쌓고 부러운듯 들여다보고...

참으로 우리 시대 개선영웅의 모습이런듯, 당이 부르는 가장 격렬한 전투장들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는 위훈자들 승리자들만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자기의 고향, 자기의 모교에 들어설 수 있으리라.

넓은 학교강당에서는 영웅과의 뜻깊은 상봉모임이 있었다. 영웅은 연단에 나와 포성없는 대건설의 격전장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운 병사들의 위훈담을 자기 성미 그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는 산골마을에서 자라 바다도 처음이였고 잠수복은 더더욱 낯설은 복장이였다고. 허나 병사들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앞당겨 꽃피울 불타는 열망을 안고 3년이 걸려야 한다는 잠수훈련도 석달안에 완전히 익히고 엄동설한에도 두터운 얼음장을 까고 수십메터의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가물막이 기초를 목숨걸고 다지였다고...

큰숨을 몰아쉬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영웅의 한마디한마디의 이야기를 새겨듣는 남학생들.

영웅의 이야기가 끝나자 6학년 5학년 학생들이 저저마다 연단에 뛰어들라 자기들도 앞날에 영웅이 될 꿈을 펼치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러니 정녕 이 새 세대들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미래의 영웅들이 태어나겠는가.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

영웅은 죽어도 돌아오는곳

역적은 살아도 못오는곳

고향이며 그래서 너는

깨끗한 마음

찾기 쉬운곳인가

얼룩진 마음

밟기 힘든곳인가

...

그렇다. 해마다 수많은 새 세대들을 키워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장들과 조국의 방선들에 내보내는 이 번영하는 고향땅은 언제나 이렇게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찾아오는 위훈자들만을 뜨겁게 포옹할것이며 위훈자들만을 소리높이 자랑하고 길이 길이 추억할것이다.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순천과 사리원, 광복거리와 북부철길을 비롯한 대건설장들과 조국의 방방곡곡에 달려간 고향의 아들들이여! 딸들이여! 서해감문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대로 하루빨리 완공의 기발 휘날리고 돌아오라. 고향으로, 언제나 승리를 안고 위훈을 안고! ...

아, 백두의 봄

최경로

답사행군길 이어 또 하루
숙영소식당에 들어서니
아, 진하게 안겨드는
감미로운 향기 ...

창밖엔 평평...
백두의 흰눈이 내려쌓이고
정갈한 식탁우엔 싱싱한 연록의
소담한 풋고추며 물오이 ...

한겨울의 봄이로구나
우리 걷는 답사길 기쁨만이 넘치라고
사계절 신선한 식생활을 펼쳐주시는
그 은정에 목매여, 목이 매여와

그 사랑 그 따뜻함이구나
눈보라속의 어린 대원 손잡아 이끌어
자신의 외투속에 감싸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품

가슴뜨겁구나 사랑의 그 말쑹

돌아오지 않는 적후 전사의 모습
애타게 애타게 그려보시며
-지금은 어디서 끼니나 예우는지!

강설을 헤쳐 끝내 품안긴 투사들
눈석이처럼 풀리지 않았던가
눈물속에 받아안은 한흙의 미시가루
가슴가득 후더워올라

함함히 젖어드는 이 가슴
걸음걸음 봄빛을 안고가라고
배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가슴에 넘쳐...

아, 사시절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우리모두를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이여
영원한 백두의 봄이여!

미래의 거리에서

황성하

미래는 언제나
앞날의것
저 멀리 바다우를 감도는 노을처럼
정답게 손짓하며 부르는것

하다면 미래여
가장 심장 큰 이 나라 청춘들이
너를 껴안고 가슴태우는 이 광복거리에서
너는 먼것인가 앞날의것인가

나는 보노라 하늘가로 오르는 푸른 창문 향하여
래일의 기쁨에 화답하는 청춘들의 눈빛에서
행복이 바다처럼 흘러갈 대도로우에서
소리치며 움트는 푸른 잎새들에서

미래여, 숨쉬고있는 너를 보노라

밤하늘 태우는 우등불앞에서
억세게 틀어진 주먹과 주먹들이
높이 뛰는 가슴에 너를 불러안았더라
유서깊은 이 땅에 전방도를 세우던 그 마음들과
함께
미래여, 너는 벌써 시작되고있었어라

아직은 기중기도 건설장에 바쁘고
저 무수한 집들에 창문은 다 없지 못했어도
어디서나 태동하는 미래여,
소년궁전분수에선 청춘들의 료무가
펼쳐질듯싶은데

황홀한 이 거리의 넓은 창공에
비둘기무리도 가슴들고 날아와라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
먼 미래의 꿈까지도 오늘에 펼쳐려는
우리 당의 뜻으로 가슴불태우는 청춘들이
가장 큰 행복을 이 거리에 약속하며

너를 앞당겨 여기에 불러왔거니
미래여 너는 정녕
먼것인가 앞날의것인가
위대한 사랑이 격류하는 이 거리에서
청춘의 위훈이 나래치는 이 거리에서
미래여, 너는 펼쳐지고있어라
미래여, 너는 오늘의것이여라

물어보라 뜨거운 심장에

오필전

알아보라 그 설레는 가슴에
물어보라 그 뜨거운 심장에

래일인듯
조업의 환호를 부르며
아슬한 합성탑우에서
순천벌 백리
흰탑의 구내를 굽어볼 때면

아득한 후날처럼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가슴을 열어주며
카바이드로의 파란불을 지퍼올린
가슴 부푸는 궁지가 무엇이던가

련포벌에 착공식의 우등불 지피고
첫 삽을 박던 그날부터
탑의 대도시를 일으킨 이날까지
심장아, 너는 고동치며 말해주었다

벼랑이면 이끌어주는 손길이 되고
구름이면 날아넘는 지혜가 되고
풍랑이면 헤쳐가는 힘이 되어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새겨져있어라
위훈많은 영웅직장장의 가슴에
돌격대원의 《무조건 한다 일기장》에
녀성지원대 소대장의 빨간 수첩에

현시기 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릴 대상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라시며
조업을 다그쳐 만족을 드리자시던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

봄이면 봄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가을이면 찬비에 젖으시며
순천벌을 찾고찾으시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려는
그 마음

그 손길에서 받아안지 않았던가
길이 메이게 실려오는 대상설비도
청년기동선동대의 힘찬 노래도
용접경기대렬의 자랑찬 행렬도

아 내 나라에 강철기둥이 많고
재부가 가득차
이렇듯 비날론의 새 도시가
온 나라의 희망봉으로 솟는것이던가

알아보라, 그 설레는 가슴에
물어보라, 그 뜨거운 심장에

오 순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큰 기쁨이여라

좋은 이름

류인섭

엄기재는 지금 파도를 헤가르는 삼지연호의 갑판에 서있다. 이제는 퍼그나 주름이 깊어진 눈귀를 조프리고 비릿한 해풍을 맞받아 반백이 된 머리칼을 날리며 서있는 그는 감개무량한 눈길로 망망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다. 얼마 안 있어 조국이 보인다고 한다.

아닐세라 수평선우에 거뒀한 산발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순간 그 누구인가 북받치는 감격에 못이겨 부르짖는 조국이 보인다는 웨침소리가 엄기재의 가슴에 세찬 박동을 일으켜놓았다. 선실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끔 헤엄치며 너도나도 갑판에 뛰어나왔다.

아, 내 조국! 꿈결에도 그림던 조국땅엔 갓 스물에 잡히어 홀몸으로 귀국시킨 아들이 있다. 조국땅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고 공학기사가 된 아들, 이제는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된 아들이니 십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일본땅에서 자식하나 대학에 보내자면 보통 노동자의 수입으로는 어렵도 없는것이요, 중류급 사무원의 월수입을 달마다 통털어야 학비를 댈수가 있다. 그러니 월급쟁이 신세에 자식하나 대학에 보낸다는것은 크나작으나 호구할 판 벌이가 있어야 하고 큰 용단을 내려야 하는것이다. 현수가 이 아비의 손탁에서 대학에 다니자 했더라면 그 큰 돈을 짜내느라 생활의 세파에 내 얼마나 부대끼었을것인가.

엄기재는 저도 모르게 눈굽이 축축해왔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십년세월에 내 무엇을 했더라 말인가?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다고 했거늘 내 무엇으로?...

《삼지연》호는 물결을 힘있게 차고 조국땅은 점점 가까와오는데 불현듯 조국방문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내린 그날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정말 남들은 여러번 오가는 길이건만 엄기재는 힘들게 내디딘 걸음이었었던것이다.

... 그날은 맏아들 현수에게서 편지가 온 날이였다. 편지왔다는 소리에 마주했던 저녁상도 미루고 2층으로 향한 계단을 허겁지겁 내디딘 엄기재였다. 자기 방 원탁우에 그에게서 오는 편지가 놓이군했던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누구나 그러하듯 그에게도 세남대중에서 맏아들 현수가 제일 귀하였다.

하나 마누라가 아들 보러 조국에 가자 해도 정

작 떠나지 못하는 그였다. 막내딸과 조국에 다녀온 마누라가 어쩌면 심장이 그리도 찬가고 말끝마다 지청구를 해도 소귀에 경읽듯하였다.

어허, 어떻게 일궈놓은 장사이길래 감시나마 손을 뻗단말인가. 든든한 생업이 없어가지고는 등가죽에 가붙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굶주려야 하고 처자를 두고 남모르는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것인데... 현수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이 그러한 나날에 흘러가지 않았던가. 직업도 없이 가정건사도 못하던 사나이의 설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극악한 생활을 어찌 되풀이한단말인가. 아차하여 협잡군의 수에 걸려들던가 시세에 편승치 못해 크지도 않는 장사가 꺼꾸러진다면... 아니 그럴수 없다. 그래서 안된다.

엄기재는 이를 옥물고 자기를 지켜 온갖 정력을 다해가는것이였다. 하여 생기는 돈의 여유를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 힘자라는것 다해주었었다. 그것이 기쁘이고 행복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자식중에 제일 귀하다는 맏자식을 끼고있을 때 제일 못먹이고 못입혔으니 현수의 편지를 받을 때면 반가움과 함께 짜릿한 아픔이 가슴을 허비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엄기재는 얼른 편지봉투를 찢어 속지를 꺼내었다. 편지지와 함께 색사진이 나왔다.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아들내외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찍은 가족사진이였다.

(어허! 전번에 마누라가 조국에 갔을 때 아들이 둘째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가고 물었다더니 벌써...)

그때 엄기재는 손자애의 이름 하나만 지어보냈었다. 손녀를 보게 되면 그 이름이야 아무나 지으면 된다 했더니 마누라가 녀인네를 팔세한다고 야단스레 떠들었다. 그래 허허허... 웃고만 엄기재였다.

(정말 손자일까? 손녀일까?)

포근하고 따뜻한 눈길로 사진을 아무리 뜯어보아야 알수가 없었다. 그는 무등 애를 써보는 자신이 어이없어 빙글썩 웃었다. 그러다 눈길이 아들의 이마에 가닿자 삼시에 얼어붙은듯 굳어져버렸다. 아들의 이마에 난 상처자국이 총알처럼 날아든것이였다.

엄기재는 아들의 이마에 난 흠집이 눈을 찌를 때마다 현수가 여섯살 잡히던 그해 여름 실업을

당하여 거리를 헤매이던 그 나날이 떠올랐다.

... 자오룩한 담배연기, 허리선만큼 둘러막은 담벽우에 세워놓은 대형 유리판, 그앞에서 아우성치며 봄비는 사람들, 그들의 눈길은 초조와 불안에 떨고 누구할것없이 여위여 파리하다. 대형 유리판 저쪽너머에서 직업안내소의 직원들이 거만하게 앉아 애원에 찬 그들을 조소하듯 치며보며 한담을 하고있다.

직업안내소에 들어선 엄기재는 그날 줄을 서라고 웨치는 힘난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리는것도 아랑곳없이 2번을 단 유리판앞으로 다가갔었다.

그러던 그는 억센 손아귀가 어깨를 잡아채는바람에 상체를 비적이며 멈춰섰다. 뒤돌아보는 순간 고막을 울리는 목소리.

《당신은 어제 일자리를 알선받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차례로 들어가는 줄을 형클어서 복닥판을 만들어야 시원할테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가 몇달째 누워있다고 한숨을 푹푹 쉬던 관공이 두드러진 사나이였다. 그는 안내소에 나들며 사귀던 퍼그나 가까이와 진 사이였으나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모양이다. 어디 가서 누구든 먹살을 틀어쥐고 메치고싶다던 그였다. 그래서 이렇게 판박한것인가? 여섯살난 아들은 고사해놓고도 만삭이 된 안해때문에 당장 큰 야단이 났다고 걱정하는 엄기재에게 급박한 가정사가 자기 못지 않다고 설분을 함께 토하던 그였다.

《가만있소. 안내장이 있는데도 공장을 찾아가니 거절을 하더란말이요.》

《?》

엄기재는 유리판앞으로 비집고 들어가 안내장을 내들며 직업안내소라는게 이렇게 신용이 없는가고 대들듯 부르짖었다.

유리판 안쪽에서 직원인듯한 사나이가 놀란듯 뺨새눈을 치며본다. 그자는 어느 회사에 안내받았던가고 짜증난 목소리로 씨벌이더니 전화기를 끄당겨 번호판을 돌렸다. 상대가 나온모양 거만스레 고개통을 뒤로 잔뜩 제끼고 수화기를 든 뺨새눈의 목청이 앙칼지게 울려나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고 따지고드는것이다. 그런데 뺨새눈은 갑자기 《아, 그럼 내가... 하하하... 랑해하시오.》 하며 수화기를 놓고 엄기재를 쏘아본다.

(?...)

엄기재는 긴장어린 눈초리로 뺨새눈을 마주보았다.

《당신은 조선인이였군그래.》

잡고고드는 그자의 말투에 엄기재는 분노의 불뭉치가 목젢에 와닿는걸 느꼈다. 저도 몰래 류달리 긴 속눈썹이 부르르 떨렸다. 주먹을 꽉 틀어쥐며 그는 모욕감을 가까스로 참고 서있었다.

《그 회사에선 조선인을 채용 안하겠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그걸 숨겼었지. 그러면

왜?》

(그런데 어쨌단말이야!)

마른침을 삼키는듯 엄기재의 울대뼈가 오르내리었다. 분노, 울분으로 하여 숨소리는 내뿜다 벗어선 황소숨처럼 거세어졌다. 석달째 드나든 직업안내소였다. 그에게는 그 작은 배를 채워주지 못해 먹을것만 보면 정신없이 헤덤비는 어린 아들 현수가 있었고 해산을 앞둔 안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자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직업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이 몇초어간에 결판이 나는것이였다. 그래서 치욕에 떨면서도 참아야 하는것이다. 사나와진 눈길로 뺨새눈을 마주보는 그였지만 목소리는 뜻밖에도 토박토박 점잖게 울려나왔다.

《내가 숨긴게 아니라 당신이 묻지 않았을뿐이요.》

《아, 아, 됐소. 가보아도 되오.》

뺨새눈은 더 말하기 귀찮다는듯 내뺨었다.

(개같은 자식!)

엄기재는 욕설이 울컥 목젢을 넘어서려 요동쳤으나 어금이를 깨물며 용케도 건디였다. 안해와 현수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였다. 직업을 얻자고, 뺨새눈의 반감을 사서 다음기회에 루가 미칠가보아 사람이 이처럼 비굴해져야 한단말인가?! 너무도 분한김에 눈동자에 핑그르 맑은것이 감겨돈다.

그날 그는 술을 마셨다. 골목의 자그마한 선술집에서 불쌍한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저주하며 마시는 외상술이였다. 사람이 산다는게 어쩌면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것인가. 헉-

따근히 데운 술은 자꾸만 설분이 터져나오려는 목구멍을 넘어갔고 빼개지려는 가슴속엔 피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이 외상술이 뜻밖의 참극을 낳을줄이야! 아니 그제 정녕 술때문이었던가? 술때문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엄기재는 관자집의 모퉁이에서 우뚝 섰다. 아들 현수를 띠여본것이다.

(아니, 녀석이...)

먼지가 포삭포삭 이는 땅에 쭈그리고 앉은 어린 아들은 뭔가 좇아 옷앞섶에 문대기더니 그것을 입에 흘 집어넣고 호물거리며 씹는것이였다.

순간 동네아이들의 놀러대는 목소리가 깔깔거리며 귀청을 때리었다.

《거지야, 쿵알거지야. 이 고구마껍질도 먹어라.》

(아니다, 아니다!)

엄기재는 그만에야 자기를 주책하지 못하고 갈지자걸음으로 현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긴 팔을 휘둘렀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아들은 《악!》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폭 꼬꾸라졌다. 이마뺨이 어디에 부

뒹눴는지 샅시에 붉은 피가 온 얼굴에 퍼칠갑을 해놓으며 랑자하게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었다.

《엄마- ! 》

아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 피를 본 엄기재는 당장에 취중에서 깨어난듯싶었다. 그래서인지 그 창황중에서도 아들의 입에 물린 거무스런 껌을 툭툭히 가려보았다. 5 엔짜리 동전 한잎이면 사줄수 있는 껌이다. 아 아 그런데 나는 그 비싼 술을 외상으로 퍼먹었구나.

언제 어디에서 뛰쳐나왔는지 안해가 머리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꼭 누르고 집으로 안고 들어간다.

이마에 흰 붕대를 감고 새근새근 잠든 현수는 죽은 아이처럼 해쑅해보였다. 그 머리맡에 앉아 안해는 쿵쾅쿵쾅 울고있었다.

《어쩌면 당신이, 당신이 그럴수가? ...》

얼었다는 직업마저 놓쳤다면 술내를 피우며 저지른 엄청난 일에 억이 막힌듯 더 말을 잊지 못한다.

엄기재는 구구히 변명하고싶지 않았다. 자기는 지금 안해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 역시 현수를 얼마나 귀애하였던 것인가. 그런데 단돈 한잎 벌지 못해 아이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놓다니... 오룩이 성성한 이 육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 육체를 팔곳이 없구나, 그러니 돈이 어디서 나질 것인가. 돈, 돈이 없으면 세상살음 다 당해야 하는구나, 돈이 없으면 사람이 리성마저 잃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각박한 사정이로구나.

엄기재는 피가 꺼꾸로 돌아 그 어디론가 새여버린듯 그만에야 살고싶은 생각이 짱그리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생존의 가능성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윽도록 돈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저주하며 망연히 앉아있었다. 저 대들보에 목이라도 매어버린다면... 울컥 떠오르는 생각이다. 그러면 순간의 고통으로 영원한 안정을 찾을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해는? 현수는? 아니 그럴수는 없어, 그럴수는...

엄기재의 눈곱에는 애꿎은 물기가 번뜩이었다.

《여보, 날 용서하오. 》

그는 아들을 피칠갑해놓은데 대하여 그리고 방금 생각했던 그 최악스러운 자기 심리에 대하여 진심으로 빌었다.

쉴쉴하고도 고독했던 밤이었다. 그날밤 총련지부위원장이 그의 집을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긴긴 밤을 외로이 보내었을 것인가. 지부위원장은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는가고 나무랬다. 생존경쟁이 불붙는 일본땅에서는 동포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면 함께 일자리를 얻어보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며칠후 엄기재는 총련조직이 구해준 동포상공

인이 경영하는 토목공사장으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였다.

세월은 흘렀다. 현수의 이마에 난 상처자국은 자라는 아들과 함께 커지기만 하였다. 제때에 병원에 갔더라면 한결 곱게 아물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기만 하다. 아들을 바라보기가 괴로웠다. 상처자국이 눈을 찌를 때마다 담배연기 자오룩한 직업안내소에서 당했던 치욕이 되살아나곤 했다. 리성마저 잃게 하던 고통스러웠던 생활의 흔적은 언제까지나 아들의 이마에 맺혀 그에게 가슴아픈 자책과 다시는 그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강심을 먹게 했다.

엄기재는 피나게 돈을 모았다. 얼마간의 돈이 생기자 안해를 추겨 골목길에 조선로리집을 차렸다. 뜻밖에도 인기를 끌게 되어 돈을 벌게 되자 빠짱고를 일구었다. 그때부터 그는 일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빠짱고란 콩알같은 철알을 유리판 안에 용수장치로 튕겨넣는 유흥거리이다. 촌촌하게 박아놓은 못장애를 요리조리 에돌아 대어섯근데 뚫어놓은 구멍에 철알을 맞춰넣기만 하면 좌르르- 소리를 내며 열댓알의 철알이 유리판 밑으로 쏟아져나오고 그 철알로는 돈을 도로 바꿀수도 있고 상품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니 일종의 도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빠짱고판이 수십여개 벽면을 에돌아 주련이 설치되었는데 그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술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철알을 튕긴다. 행여 횡재할까 하여 제 호주머니가 거덜이날 때까지 철알을 사서 튕기지만 본전 찾기도 수월치 않다.

엄기재는 날마다 벌어들인 지폐장을 회계하느라 뽼럭뽼럭 번질 때 인제야 사람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돈의 여유가 생겨날수록 뒤따라 마음의 여유도 커지고있었던 것이다.

그즈음 그는 중학교졸업반에 이른 현수가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었다. 5 엔짜리 껌하나 쥐여주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용돈도 달라는 대로 다 줄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나이에 엄청나게 큰 용돈을 받아드는 현수의 눈은 기쁨이 반짝였고 돌아서 나가는 모습은 기운이 넘쳐 의기양양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엄기재는 더없는 만족을 느꼈다. 아들의 이마에 난 상처의 아픔을 그는 이렇게 풀고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용돈이 경을 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어느날 저녁 총련지부위원장이 그를 찾아왔다. 현수가 일본망나니들과 섭썰려 뽼-에 들어가 술잔을 맞쫓는 걸 띠어보고 데려내다가 타일러서 학교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것이었다.

엄기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한번 빠지면 수렁관에 빠진 것처럼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망종들의 패거리다. 커서는 강패가 되기 십상이다. 그

데서 그것은 부모들의 가슴에 상시적인 불안으로 떠도는 검은 그림자였고 걱정거리인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나. 우리 현수가 망종들과 휘말려다니다니?...

주먹을 틀어친 그의 두손이 현수를 꼬드긴 망종패를 당장 때려잡을듯 후들후들 떨리었다.

《진정하십시오. 그런데 현수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것 같습디다. 그러니 그 돈을 등쳐먹자고 망종들이 낚시를 던진단말입니다. 돈이 화근이지요. 돈이 사람을 망치려든단말입니다.》

《...!》

엄기재는 한방망이 얻어맞은것처럼 아찔했다. 그래서 요즈음 돈을 달라는 날이 빈번해졌구나. 달라는대로 다 준 엄기재였다.

드르릉- 미닫이형의 현판문이 열리더니 현수가 들어섰다. 지부위원장을 띠어보더니 선자리에서 고개를 꼭 떨구어버린다.

《시라소니같은놈!》

아들을 보니 화가 천둥같이 난다. 성난 그의 기상은 한대 쥐여박을듯하다. 하건만 고개를 떨군 탓에 아들이마에 난 상처자국이 유묘하게 드러나 손찌검이 나가려던 손을 움츠리게 했다.

엄기재는 억이 막혀 큰숨을 꾸- 내쉬었다. 어제날에는 돈이 없어 미남으로 번지는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다면 오늘은 돈이 생겨 아들의 앞날을 내가 또 망치려드는것이 아닌가.

《웃방에 올라가 숙제를 하거라.》

현수는 총련지부위원장이 말해서야 조심스레 다다미를 밟으며 웃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엄기재는 지부위원장의 권고대로 중학을 졸업하면 현수를 조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돈을 알기 시작한 아들이 망종들과 휩쓸리니 이 일분방에 그냥두면 쟁패가 되어버릴것 같았던것이다...

《여보, 그 아무리 아버지앞으로 온 아들 편지라 해도 조국에서 온 편지인데 무슨 말을 썼나 나도 알고 동생들한테도 이야기해줘야 할게 아니겠수.》

기다리다 못해 침실에 들어서면서 늘어놓는 마누라의 꾸념에 생각에서 깨어난 엄기재는 말없이 색사진을 내밀었다.

마누라는 금시 《아유, 벌써 이렇게 컸네.》하고 떠들썩거린다. 보아하니 마누라는 현수의 이마에 난 상처자국을 사진에서 새겨보지 못한모양이다. 다행이었다. 그 말을 꺼내어 가슴아파하면 마누라앞에서 찢꺾매는 엄기재였던것이다.

《둘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오?》하고 묻는 말에 대척을 안하니 마누라는 곁에 바짝 다가붙어 편지지를 가웃이 들여다본다.

《그리운 아버지. 둘째는 딸입니다. 오누이 자식을 맞춤하게 가지게 되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

니 아버님도 기뻐해주십시오. 딸이면 누구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기에 제가 짓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순천입니다. 출생신고를 했고 엄순천이라고 이름이 박힌 과판 출생증도 받았습디다.》

엄 기재는 입다 말고 마누라를 돌아보았다. 순천이라니, 거야 아들네가 사는 지명이 아닌가.

《...아버님, 조국에 한번 오십시오. 기업형편이 자리를 뜰 형편이 되겠는지 여기서야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무리를 하시더라도 대화학공업기지건설장의 어떤 사람들속에 아들이 삶을 누리는가를 한번 꼭 와보십시오. 그러노라면 산다는것자체가 얼마나 보람찬것인가를 새삼스레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가 살림하는것도 검사 보시고말입니다. ...》

엄기재는 마누라에게 편지를 주어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담배를 꺼내물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언제 돈았는지 별들이 도글도글한 밤하늘이 펼쳐져있었다. 불현듯 중학을 졸업한 키만 쟁종하던 아들을 《만경봉》호에 태워보내던 생각이 난다. 보고싶었다. 먼 하늘가 그 어디에 이제는 한 가정의 기둥이 된 아들네가 산다. 그 아들을 위해 내 무엇을 하였던가. 떳떳한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나는 식솔들을 배푼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 해줄수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것이 인생의 복이고 기쁨이라고 여기여왔지, 하여 약육강식의 피구름이 떠도는 음산한 하늘아래 곳곳이 서서 생존경쟁의 홍수에 밀려나 알거지가 되지 말자고 자기를 지키여왔고. 허나 이 순간 어찌하여 지난날 기업을 위해 기울인 그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만 여겨지는것인가. 그리움과 함께 아릿한 아픔을 주는 아들, 그런만큼 정을 더 쏟고싶었고 아끼고 싶었던 만아들이었다. 엄기재는 가정의 대를 이을 원기둥인 현수에게 그 아무것도 준것이 없었던탓에 지금 공허감에 사로잡힌것이다. 철없는 그 시절부터 생각해봐도 그렇다. 그리고 아직은 부모가 거두어주어야 할 그 나이에 벌써 조국에 보내여 모든것을 내맡기게 된것은 뉘탓이던가. 오늘은 또 현수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산다고 하여 아들에 대한 온갖 시름을 다 놓고 무심하게 지내고있는것이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면 명줄을 건 기업이 위태로울수 있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남들은 조국방문의 길에 즐겨오르건만 나는 돈벌이에 골몰하고있는것이다. 돈, 돈이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수 있었던가?

엄기재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게 되는 이 순간 것처럼 만능의 힘으로 여겨오던 돈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부자간의 정을 터칠수 있는 크지 않는 인간적인 소원도 지리밟는 돈을 두고 침을 뱉고싶었다. 허나 돈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으며 살수 있는것이니 돈때문에 아글타글하는 인생이란 얼마나 허망한것이라.

홀려온 나날이 되새겨지는 이밤 인생에 대한 혐오를 느낄수록 엄기재는 아들이 그리워졌다. 손가락짚어서 하얀 재를 구부려담기면서 담배가 타들어가는것도 모르고 그는 하염없이 못별들이 도글거리는 창밖을 내다본다.

(아들아, 탓하지 말아다오. 내 네결으로 가마. 며칠만 더 기다려다오.)

엄기재는 자기를 속박해온 황금의 바줄을 끊어 던지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엄기재는 별안간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바람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삼지연》호가 원산향에 닿을 내린것이였다. 환호성은 푸른 물결위에 그려놓은 띠오리같은 희뽀한 배길을 따라 수평선으로 메아리쳐갔다.

엄기재의 가슴은 한정없이 높뛰었다. 이역땅에서 그토록 그리던 조국, 바로 조국땅에서 것처럼 보고싶던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것이다. 함께 온 사람들이 차례로 조국땅에 내려서며 목멘 목청으로 만세를 부른다. 공화국기발을 내흔들며 줄의 중간위치에 서서 그들을 뒤따르는 엄기재의 주름깊은 뺨볼에는 감격과 가책이 뒤섞인 맑은 것이 이슬져내렸다. 눈물로 흐려진 그의 시야에는 부두에 환영나온 사람들이 방문단성원들을 포옹하는 모습이며 그 순간을 노린듯 샤타를 누르는 사진사가 사막뒤에서 움직이는 배우처럼 보였다.

이제 아들이 물결치는 군중들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며 《아버지!》하고 품에 안기여들것 같다. 환희의 그 순간을 예감하는 엄기재의 가슴은 이제나 저제나 뽕뽕해지였다. 하면서도 아들 대하가 떼떼치 않다는 생각이 가슴 한귀에 배회하여 그를 괴롭혔다. 내 너를 위해 너무나도 해준 것이 없구나! 그러나 꼭해 말고 기쁘게 맞아다오. 네 피를 나는 일가권속을 먹여살리며 모지름을 써온 아버가 아니냐.

그러나 부두에 내려서고 환영연도의 절반이상을 지나쳐왔건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수가 자기를 못알아보는게 아닌가싶어 의문 어린 눈길로 두리두리 주위사람들을 일별하는데 갑자기 《아버님!》하고 앞을 막아서며 허리숙이는 애기업은 녀인이 있다.

엄기재는 첫눈에 며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니 등에 업은 애가 순천이로구나. 그런데 순천이 애비는?

《아버님, 순천이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마중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혼자...》

《?!》

엄기재는 그 순간 다리가 휘청거려졌다. 그러니 현수가 나를... 아니, 그럴수가 있으랴. 허나 그 아무리 바쁘기로써니 ...

《행여 앓는것이냐 아니냐?》

그는 한가닥 희망과 갈마드는 걱정을 안고 이

말을 겨우 번지였다. 했으나 그렇게 아니라한다. 아들은 지금 바야흐로 준공을 앞둔 2 호보이라 공사장에서 일손을 놓을 형편이 안된다는것이였다.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엄기재는 정신없이 원머리를 저었다. 가슴에 서려올라 불안을 던지며 감돌던 보잘것없던 위구가 삽시에 엄청난 현실로 번져진듯싶어 심신에 타격을 준것이다. 예로부터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했거늘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라.

그는 어떻게 차에 올랐으며 러로를 풀기 위한 휴양소의 호실에 어떻게 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는 실바람이 술술 불어들어 파란 문보가 질정할새 없이 마구 흐느적거린다. 삭일수 없을듯한 서운함을 풀어주려는듯 바람결은 끝없이 불어왔다.

렁 비여버린듯한 마음을 애써 달래이던 엄기재는 문득 현수가 보이라공사에 없어서는 안될 열공학이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자 며느리의 말이 위안만이 아닌상 믿고싶어졌다. 그래 큰 벌이를 할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지. 그래서인가. 그래서?...

아들이 마중 못나온 까닭을 알아차린듯싶은 그 순간 찢긴 애수가 가슴에 스며들어 궁하게만 여겨지는 아들네 살림이 더없이 애잔스러웠다. 그러나 한결 마음은 평온해진다. 엄기재가 애써 벌여 축적해온 돈이면 아들네의 웅근 살림을 남부럽지 않게 꾸려주고도 남을것이었던것이다.

첫 대면인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에는 아직은 서먹하다. 그러니 아들에게로, 아들네 집으로 빨리 가자.

엄기재의 가슴에는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고래치는것이였다.

엄기재는 지금 승용차에 몸을 싣고 며느리, 손녀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달려가고있었다. 강냉이가 무성하게 자란 자그마한 둔덕위에 올라서자 앞이 탁 트이는데 문득 엄기재는 차를 세워달래였다. 순천대화학공업기지 건설장이 한눈에 띄어 보였던것이다. 건설장에 가자면 아직은 퍼그나 먼 거리를 차로 달려야 할것이였다.

승용차에서 내려선 엄기재는 놀라운 눈길로 이윽도록 건설장을 관망하고있었다. 말로만 듣고 아들편지애나 들던 대건설장이다. 속담에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게 낫다더니 정말 거창하구나! 강철 숲을 이룬 하나의 대도시가 일떠서고있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들것인가?! 그것은 엄기재로서는 상상할수조차 없는것이였다.

엄기재는 가슴이 뿌듯해왔다. 대화학공업기지 건설장에서 나래치는 조선의 공지와 자량이 어느새 엄기재의 났을 깨워 활력을 준것이다. 벌써

높이 솟은 카바이드로에서는 흰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있다. 무수한 용접의 섬광이 온 건설장에 반짝인다. 곳곳마다 대형 기중기가 팔을 휘저으며 돌아가고 여기선 담배꽂만큼이나보이는 대형 자동차들이 수없이 드바쁘게 뛰고있다.

저 건설장에 아들이 일하고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랐다. 아직은 나라 위해 땀을 흘려보지 못한 그였으나 제 살불이가 저 건설장에서 일한다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것인가. 그런 아들에게 내 무엇을 아끼라, 이제 집이 멀지 않았다니 아들을 만나게 될 기쁨도 멀지 않다. 엄기재의 가슴은 마냥 널뛰는것이였다.

아들네 집은 고층주택 3층이였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없었다. 알고보니 바로 오늘이 준공식을 끝마친 보이라에 불을 지피는 날이여서 아들이 못나와볼것 같다고 인민반장에게 일러두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아까 아들을 대신하여 온 동네사람들이 떨쳐나 나를 맞아준모양이였다.

어디라없이 허전한 마음이 깃을 뿔으나 엄기재는 아닌보살을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안을 돌아보았다.

네식구에 세칸짜리 살림이 그만하면 남부러울것 없을것 같다. 가구류와 부엌세간도 그뿐하고 목욕탕까지 집안에 달려있으며 아들이 공부방으로 정해두었는지 벽면을 차지한 책장들에 책이 가득찬 공부책이나 한 사람들이 서재라고 이르는 방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이 큰 집을 무상으로 배정해주었다는 사실이였다. 배고픈 설음 다음 가는 설음이 집 없는 설음일진대 집 한채 장만하기가 일본에서는 그토록 어려운것이다. 단번에 큰돈 내고 살수가 없어 월부로 10년, 20년 치어 평생을 월급의 절반값을 바쳐가며 집을 사야 하는것이였다.

엄기재는 뭐라 이름할수 없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방 안에서 서성거리였다. 이 큰 집이 돈도 없이 차례지다니... 그러고보면 아들이 큰 돈을 벌자고 아글타글 애쓰는것이 결코 아니지 않을까?

엄기재는 아들이 일한다는 공사장에 가보고싶었다. 부두에 마중나오지 못한 그 사연을 알고싶었다. 아들이 자기 사생활의 소중한 그 모든것을 다 바쳐 누려가는 생활은 과연 어떤것일까.

엄기재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살림을 번듯하게 꾸려주면 아들에 대한 사랑, 주지 못해 덧쌓인 가슴속 한을 얼마간이라도 풀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는 당초의 그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어렵게 느끼자 당황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얼마후 엄기재는 며느리의 뒤를 따라 가로수 푸른 거리에 나왔다. 아들에게로 가는것이였다.

며느리는 《먼길을 오셔서 곤하신텐데...》 하면서도 선뜻 나서준것이였다. 누구나가 건설장에 가볼수 있고 일손을 도울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런데 안내소에 들러 안내를 받고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안내소?)

걸음을 옮기던 엄기재는 무뎠다. 뇌리에는 불시에 직업안내소에서 당했던 수치스러운 자기 몰골이 돌이켜진것이다. 하자 주마등처럼 그와련쇄된 일들이 선명히 눈앞에 떠올랐다. 뱃새논의 비웃는듯한 야멸찬 눈길이며 금방 어제까지만도 직업없는 탄식을 함께 나누던 사나이가 성이 나서 어깨를 잡아채던 일이며 외상술을 퍼먹던 일, 그리고 죄없는 어린 현수의 얼굴에 피칠갑을 해놓았던 일, 서럽게 울던 젊은 안해, 현수의 이마에 난 상처자리를 볼 때마다 애성이 나서 어쩔줄 모르던 그 나날, 생의 말년에 남은 뼈아픈 추억은 순전히 직업안내소에 갔다가 생긴것이였다.

저주로온 직업안내소, 그런데 내가 오늘 또?

엄기재는 다 왔다는 며느리의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안내소의 정문앞에는 청년들 스무나무명이 어깨에 삽을 메고 웃고 떠돌고있는것으로 보아 벌이가 괜찮아 그들도 안내를 받으러 왔음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고개를 쳐들고 일없이 《지원자안내소》 간판을 올려다보던 엄기재의 눈에는 의혹이 어렸다.

《지원자》와 《직업》은 너무나 거리가 먼 뜻을 가진 어휘였던것이다.

며느리가 줄을 서야 한다고 채근하고 이끄는대로 문을 열고 지원자안내소에 들어서니 각이한 작업복차림새를 한 사람들이 점잖게 자기차례를 기다리며 서있었다.

엄기재를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로 자꾸만 줄이 늘어난다.

문득 우편국의 접수구처럼 경계를 친 앞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아, 알만하오. 그러니 동무가 강원도에서 청년들을 인솔해온 명예소대장이구만.》

《제가 인솔해오기야 뭐... 서로마끔 오고싶어 모두가 함께 왔는데요. 용접공도 있고 미장공도 있고 불도젤운전수도 있습니다.》

《중소, 동무넌 비날론구역으로 가오. 가서 작업지시를 받소.》

《고맙습니다. 》

꾸벅 인사를 하고 나오는 청년은 정문을 열고 나가면서 《동무들, 비날론구역이요!》 하고 명쾌하게 소리친다. 하자 《비날론구역을 향해 앞으랴!》 하는 구령소리가 울린다. 렬을 지어 기세 좋게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이 창유리로 내다보였다.

(어쩌면 저렇게도 사기충천할가. 말하느니 보니 직업이 없어 안내소에 온것도 아닌모양인데?...)

엄기재는 놀란듯한 눈길로 사라져가는 청년들

을 바라보는데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었다.

《제일 긴요한데서 일하도록 해주세요. 출장중 하루 여가가 있길래 달려왔소.》

(아니, 저 사람은 제편에서 큰소리를 쳤다가 랑패를 보면 어쩔려구.)

엄기재가 걱정을 했으나 보위색작업복차림의 뚱뚱보는 카바이드구역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이제야 집에 가셔도 큰소리를 치게 됐군.》 하며 싱글벙글 문을 열고 나간다.

(하기사 별이가 커야 집안에서도 큰소리를 치게 되는게지.)

엄기재는 심분 리해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황해남도 해주에서 왔다는 다음 순번의 축로 공청년은 메타놀구역으로 안내받아 떠나갔다. 그 다음은 신의주의 녀인인데 돼지 5 마리를 지원물자로 싣고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가고 묻는다. 녀인은 원료연구구역의 보이라가 준공되어 불을 지피게 되었으니 가서 푸짐하게 먹여달라는 안내원의 부탁을 받고 물러나온다.

(?!...)

엄기재는 그만 어정쩡해졌다! 보아하니 온 나라가 찾아드는 이 지원자안내소에서는 지원물자로 바치려는 돼지 갈곳마저 안내를 해주고있는 것이다!

엄기재는 한동안 아들 보러 나왔다는것도 까맣게 잊고말았다.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그것은 이 역땅의 직업안내소에서 겪은 조바심나는 팽팽한 불안이 아니었다. 부풀어 달려왔던 희망의 성취와 그로 하여 타오르는 생의 희열을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니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스며들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것이었다.

그의 차례가 왔다. 주소성명을 남자안내원이 상냥스레 묻는다. 대답을 하자 안내원은 결상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하면서 반긴다.

《이국땅에서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

엄기재는 그만 몸둘바를 몰라 눈길을 허둥거리었다. 나를 보고 고맙다고 하다니. 정말 송구스러웠다.

그를 대신한 머느리의 이야기를 듣고난 안내원은 못내 감동한듯 이렇게 말했다.

《아바이, 부자간에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건설장에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

엄기재는 안내원의 훌륭하다는 말뜻을 대번에 다 알아들은것은 아니었다. 허나 그 억양과 부드러운 미소속에 고결한것에 대한 찬양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그 말뜻을 음미해보노라니 방금전의 엄기재가 아닌 거창한

생활속에 값높이 용해된 다른 엄기재가 건설장의 구내길을 걷고있는듯싶어졌다. 별일이였다.

뭔가 마땅찮아보이던 그러나 회오로 하여 자신을 나무라던 아들의 처사로 빚어진 생활은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보람을 그에게 준 것이었다. 하고보면 아들은 그에게 처음으로 조국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감정을 바치게 했고 그로 하여 맛볼 수 있는 사람다운 보람을 준 것이었다. 언제한번 엄기재가 자기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적 있었던가.

엄기재는 저 많은 지원자들의 품삯은 어떻게 주는가고 물었다가 《아차!》 하고 얼굴을 붉혔다. 머느리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가볍게 웃었던 것이다.

머느리는 일본에서 온 시아버지가 무안해한다고 눈치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아버님, 우리 사회에서 돈은 해서 뭘 하겠습니까. 순천땅에 일떠서는 대화학공업지에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뜻과 사랑이 깃들어있답니다. 그 사랑에 목메인 온 나라 사람들이 순천땅에 와서 땀 흘리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요.》

《음.》

엄기재는 그제사 지원자안내소에서는 어찌하여 안내원보다 지원자가 더 득의양양한가를 알게 된듯싶었다. 그들모두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룩하는 길에서 자기를 바칠것을 갈망하고있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꺼이 실천하고있는 것이다. 그 생활이 주는 보람은 얼마나 참다운 것이겠는가!

엄기재는 지금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든 고귀한 감정의 체험으로 보아 심분 그것을 리해할 수 있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직업안내소에 갔다와서 사람이 산다는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고 목을 땀 총동까지 일었던 삶의 최악의 순간이 회고되었다. 그날 설사 직업을 얻었다한들 육신을 팔수 있어 살길이 열렸다는 안도의 숨을 쉬는데 불과했으리라. 하기야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역땅에서야 그렇게 밖에 더 생각할 수 있으랴.

엄기재는 조국땅에 자기가 알수 없었던 인간세계가 펼쳐져있음을 깨닫게 된듯싶었다.

별안간 보이라 화입장에서 만세가 터져올랐다. 드디어 불을 지핀 것이었다.

머느리는 모여선 사람들을 헤집고 화실앞으로 다가갔다. 화실앞쪽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엄기재는 머느리를 따라 허둥지둥 사람들을 비집고 맨앞에 나서니 갖가지 꽃으로 만든 꽃굴레를 목에 건 아들이 마주 달려왔다.

《아버지!》

아들은 목이 뎡뎡 더 말을 잊지 못한다.
 《현수야, 네 심정을 내 다 안다.》
 《아버지!》
 현수는 자기를 이해해준 아버지를 와락 그러안
 았다.
 문득 곁에서 누군가 말하였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 웅장한 보이라는 현수
 동무가 기둥이 되어 시공한것입니다. 현수동무는
 우리 건설장의 보배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기재는 자기 심정을 어떻게 토로했으면 좋을
 지 몰랐다. 온 땀을 바쳐왔다고 할수 있는 돈에
 대한 환멸과 자기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서 헤어
 나려고, 유일한 위안을 얻으리라 아들을 찾아 조
 국방문의 길을 떠난온 엄기재였다. 그는 조국땅
 의 지원자안내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있으며 자기의 피뎡는 심장을 불태우며 누리
 고있는 그 보람을 다소나마 그는 감수할수 있었
 다.
 엄기재는 지금 우리 인민이 무엇을 원하는것인
 가를 온몸으로 느끼었다. 우리 조국은 자기를 사

심없이 다 바칠수 있는 은혜깊은 땅이었다. 이
 은혜깊은 땅에 자기를 바쳐간다는 자각은 얼마나
 큰 보람을 낳는것인가.
 《현수야, 내 고마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것이나?》
 《아버지. 어디에 살건 조선사람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사시면 됩니다.》
 《...》
 엄기재는 이제야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의 충정
 이 깃든 크고작은 애국공장들을 어떻게 하여 조
 국땅에 수없이 일떠세우는지 깨달았다. 그들도
 조국인민들과 함께 살고싶었던것이다. 조국인민
 들이 누리는 사람다운 참보람을 누리고싶었던것
 이다. 나도 나도 그렇게 살고싶구나!...
 엄기재는 인생의 참보람을 깨우쳐준 순천을 영
 원히 잊을수 없을것 같았다.
 《현수야, 둘째의 이름이 순천이라고 했지? 좋
 은 이름이구나.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엄기재는 이렇게 뇌이며 화실에서 이글거리며
 났고 진부한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을 끝없이 바라
 보았다.

이날의 이 저녁때처럼

강남섭

또 하루 건설장에 해가 저물어
 순천땅에 어스름이 깃드는 때-
 인제는 집으로 합숙으로
 모두 흩어져 돌아가도 좋으련만

방금 수령님 다녀가신
 이날의 이 저녁만은
 누구도 제 일터 쉬이 뜨지를 못해
 누구도 퇴근길 선뜻 오르지 못해

두어라, 가는 길이 바쁘랴
 퇴근시간쯤 좀 늦는단들 어떠랴,
 터질듯이 가슴은
 그냥 감격에 끓고 기쁨에 설레이거니

정녕 얼마나 좋은가!
 환희의 선풍이 일어번지는 건설장,
 건설자들모두가
 래일의 희망으로 꽃피우는 이 저녁-

누구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자기 전망대우에
 환히 웃으시며 오래도록 서계시던
 수령님 우러러뵈던 그 이야기를

또 누구는, 비날론구역 로대우에서

수령님 기쁘시여
 우리 건설자들이 많은 일을 했다면
 치하의 그 말씀 몇번이고 되뇌이고...

그렇듯 수령님께 기쁨드린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더없는 행복이어서
 이 저녁 퇴근시간마저 까마득히 잊었는가

그 언제 그칠줄 모르겠구나
 카바이드로앞에 다가서도
 방사직장 기대결을 찾아도
 믿음과 사랑을 주신 그 이야기-

참으로 이날의 이 저녁은 좋아!
 하나, 둘... 별들도 하늘가에 돌아
 끝없이 우리와 속삭이며
 저 아슬한 탑을 따라 미끄러져내리는듯-

아, 밤이여
 행복한 순천의 밤이여!
 너 언제나 설렘여라!
 하루 또 하루... 위훈의 날은 흐르고흘러도
 이날의 이 저녁때처럼
 이날의 이 저녁때처럼

비날론건설장에 한 여인이 있다

송명근

비날론건설장에 한 여인이 있다
허공중의 긴 콘베아
섬없이 흐르는 골재장에
보석을 고르듯 자갈을 추어섬기며
그 누구에게도 작업지령을 받지 않은 《반원》이

한 여인이 있다
팽팽한 쇠바줄에 매달려
아름드리 기둥이 건듯 날아오르는
층막에 몰탈을 다져넣으며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초소에...

건설장 어디에나 여인은 있다
허나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그러나 욕심스레 일손만 놀리는 그 모습

그 누구도 눈여겨두지 않았다
이름을 묻고 적어두는 사람도 없었다
날마다 밀려드는 수백수천의
지원자대오의 물결속에
그 여인도 평범한 한사람

누가 알았으랴
가슴깊이 묻어둔 그의 생각을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
들끓는 건설장에 처음 와보니
제일 아까운것이
지나간 청춘이었다고

모르는사이 언뜻 흘러간 처녀시절
아쉬워 아쉬워
우리의 행복을 받들어올리자고
온 나라가 달려와 땀흘리는곳
남은 나이라도 바치고싶어서
날마다 건설장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 마음

여인은 건설장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날론도시의 첫 기초를 파던 그날부터
기둥의 숲, 벽체의 숲이 일어설 때도
하루밤도 빠짐이 없이...
빠지면 마음에 공백이 남는것 같아서

아름다와라, 아름다와라
그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해를 두고 밤이면 밤마다
야외등아래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우리 시대 평범한 공민의 모습이어

펼럭인다 머리우엔 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끓는다 가슴엔 샘솟는 열정이
웃으며 노래부르며 황홀한 꿈을 꾸며
건설장에 한 여인이 있다
여인은 청춘을 되찾은것이다

그날이 오면 축배를 들자

김송남

그날이 오면
우리 축배를 들자

비날론숨이 쏘아지는
환희로운 준공의 그날이 오면

축배를 높이 들자

잔이야 물론 건설자답게

철철 넘치도록 부어야 하리

무엇을 아끼랴

돌격의 낮과 밤을 함께 넘었으니

첫잔에는 무엇을 담으랴

축포가 터지는 푸르른 하늘

하늘을 고여올린 비날론도시

그처럼 높이 내려쳐오른

건설자 우리의 끝없는 궁지

아무렴,

혈하게 살아오지 않았거니

언 땅을 우등불로 녹이던

굴착의 밤

그밤을 지나 우리 맞이하던

아침노을 그 빛도 담아야 하리

불같은 론쟁도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있었건만

성공의 탑우에서 우리 서로 열싸안으며

우렁찬 함성도 함께 터졌거니

두터워진 그 우정도 담아야 하리

영웅이 된 중대장을 목마태우며

법석 고아대던 경사를 잊으랴

철끝을 이으며 맺어진 사랑

련포벌이 들썩하게 잔치상을 펼치던

어느날 저녁의 그 웃음을 빼놓으랴

바퀴와 치차들의 끝없는 질주

방송차에 올리던 노래를 담자

카바이드로속에 끓는 뜨거움

우리를 지켜보는 미래의 눈빛

하늘 땅 모든것을 거기에 담자

청해야 하리, 그날에는

지성어린 마음 안고 늘쌍 찾아오던

먼 북변의 수고많은 그 로인도...

비날론과 함께 첫걸음 댄 막내도

직장장 그결에 앉혀야 하리

아무렴, 그날이 오면

우리 가슴 풀어헤치리

건설의 나날 못다한 말이 있다면

시원히 다 터놓자

기쁨에 울어야 할 눈물이 있거든

그것을 잔우에 떨군들 상관있으랴

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아버이 우리 수령님

준공의 붉은 테프 끊어주시며

환히 웃어주시는 그 웃음에

조선의 하늘이 더 밝아지려니

그러면 우리 그 첫잔에

무엇보다먼저 그 기쁨을 담자

아, 우리 여기서

당과 수령을 받들며

나라의 끝끝한 아들딸로 자랐으니

우리 당의 부름따라 더 높이 날기 위해

그날이 오면 축배를 들자!

승리와 영광의 축배를 들자!

순천의 담보

최성진

하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푸른색 보호안경을 우로 제껴올린 청년들이 류출을 앞두고 잠깐 둘러앉아 휴식하고있다. 이들은 온 나라가 지켜보는 여기 순천땅 카바이드로의 로공들이다. 로장도 로공들도 하나같이 애절다.

이들의 젊은 모습만 보아도 이곳 카바이드구역의 역사를 알수 있다. 우리 식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공업의 역사가 여기 순천땅에서 갓 시작된것이다. 그러니 이 애절한 로공들은 신입공들이면서 한편 새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공업의 첫 세대라고도 말할수 있다.

바로 이들과 조금 떨어진 로앞에 서있는 한사람이 있다. 노즐시창을 통해 원료투입이 끝난 로의 상태를 긴장하게 주시하고있었다. 시창으로만이 아니다. 무쇠거물의 체내에서 수천도로 끓어번지며 인간의 의지대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있는 용융물의 상태를 그는 온몸으로 감각하고있는 것이다.

안전모밑으로는 총이 센 흰오리들이 보인다.

《다들 로앞으로 모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바이.》

《자네들 1 류구에서 류출시간이 너무 오래! 규정대로 조작해야 질이 담보되네.》

《또 강의를 하자구요?》

그래도 청년은 착실하게 동료들을 모두 데리고 나타났다. 《아바이》는 정말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굳이 제목을 단다면 《로의 기술조작시 유의할 점》이라고 할수 있다.

수천도의 고열을 안고 끓는 로의 묵중한 소음속에 울리는 《아바이》의 복관말투! 문득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신 전국영웅대회의 토론연단에 나섰던 그의 격동에 찬 목소리가 생각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의 공업과가 완성되고 우리 식의 주체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의 식의주문체해결에서 더욱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바이》를 안다. 그는 새로운 카바이드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한 연구집단의 박사이다.

주체적인 카바이드생산의 공업화가 탄생했음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그 시각은 박사의 한

생의 영광이 집대성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 순간엔 텔레비존수상기앞에 마주앉은 그의 연구집단이, 그리고 박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청춘도 가정도 다 바치며 30여년,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오며 그가 가슴속에 간직해온 신념과 시련 많은 투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기와 연유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새로운 화학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비날론의 주원료인 카바이드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연료자원에 의거하여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혁명의 요구를 자각한 박사는 그때로부터 자기의 전공을 바꾸어 생소한 카바이드에 달라붙었다.

30여년이란 세월은 짧지 않다. 그 기나긴 탐구의 나날에 실패의 고비인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며 넘기 어려운 시련은 얼마였으랴. 그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실험을 계속 하였으며 중간시험로도 자력갱생하여 만들었다.

그가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 갓 태여났던 자식들은 어언간 중년나이에 이르러 자기들의 생활궤도를 따라 떠나들 갔고 박사자신은 로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박사의 생의 목적-그것은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주체공업의 미래를 설계하시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드림없는 과학적 성과로 받드는 것이었다.

하여 그는 성공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순천땅에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의 공업화를 믿으시고 대비날론기지건설을 설계하실 때 박사가 일하는 연구집단은 확신에 넘쳐 담보의 대담을 올리였다.

《수령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은 문제없습니다!》라고.

수령님과 당 앞에서 전사의 담보는 드림없는것이다. 대비날론기지건설장에 일떠선 카바이드 1

호로에 첫 불길이 지퍼지고 귀한 카바이드가 쏟아져내리던 그날은 온 나라의 명절이었다. 이어 새로운 로들이 동음을 울리었다. 2호로와 3호로 그리고 4호로... 이제 100만톤 능력의 카바이드구역이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낼 그날도 멀지 않다. ...

드디어 또 한차례의 류출시간이 되었다. 운전지휘원처녀가 앉아있는 계기실에서 신호종소리가 울려오자 박사도 로공들도 전투에 진입하는 전사마냥 긴장해진다. 류구가 열린다.

류출이다!

은백색의 불꽃이 날리고 불가항력의 불이, 인간의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거대한 열이 로심에서 분출된다. 이어 카바이드 용융물이 흘러내린다. 폭포처럼! 폭포처럼! 로상태는 좋다. 카바이드의 질은 또 올라간것이다.

끊임없이 흘러내려 쇠남비가 넘쳐나도록 차오르는 시벨건 불의 장관! 우리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우리 수령님께서 기다리시던 카바이드! 저것은 그저 카바이드가 아니다. 저것은 우리 당을 받드는 전사들의 심장속에서 탄생한 고귀한 창조물이며 우리 인민의 자랑이다. 행복의 귀중한 원천이다. 이제 련이어 일떠서는 카바이드로들에서 비날론섬유가 나오고 비료가 쏟아지고 단백질먹이가 태어날 때면 우리 인민의

생활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궁지로 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른다. 이 순간에 반생을 카바이드에 바쳐온 박사는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것인가?

나는 그한테로 눈길을 돌리었다. 박사는 로에서 얼마쯤 떨어진 쇠판간에 앉아 수첩장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있었다. 슬그머니 다가가보니 그것은 수자들이었다. 화학자들에게 있어서 수자는 그들만이 통하는 《언어》이다. 그렇다면 급히 적어가는 저 《언어》의 내용은? 어떤 불만족인가? 아니었다. 긴장하던 박사의 얼굴이 어느새 풀려있고 입가에는 은근하게 기쁨이 어려있지 않는가. 기쁨의 혈조가 온몸을 태우고있지 않는가.

박사는 기록을 끝내자 2호류구쪽으로 걸어간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피끓는 각오와 불굴의 의지로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온 사람! 박사는 오늘도 로앞에서 로공들과 함께 카바이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혁명의 요구에 충실한 당의 참된 과학자! 여기 순천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있다. 수만의 이런 인간들이 성실하고 완강한 로동으로 대비날론기지를 일떠세우고있기에 식의주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구상이 완전히 실현될 그날이 가까와오고있다. 그렇다. 순천은 그날을 담보한다.

봄비 내리는 밤

리종덕

새 싹이 상할가봐
보슬보슬 내리는가
속삭이는듯 가볍게
봄비 내리는 밤

한밤중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건만
기쁨의 노래인듯
단꿈들을 깨웠구나

관리위원회 창문도
소조원 합숙도
온 마을이 서둘러
문이 열리는 소리

이윽고
모판들에서 도란도란
속삭이는 소리 웃음소리
기쁨에 함뻑 젖었구나

어허!
꿀같이 단 분수비로
이랑이랑 적실 이 벌
봄비마저 때맞추어 온다고

밭관수로 흥성이는
류다른 봄이여서
보슬보슬 봄비를 맞으면서도
마음은 하얗 분수비에 젖는가

온 겨울 관을 물어온
후더운 마음속에 내리는 봄비
대지를 거름으로 살찌워온
부푸는 가슴에 내리는 봄비

오,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건만
환희의 물결이 이는 밤
풍년맞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좋은 밤이네

들향기

송병준

하루일이 끝나가는 저녁무렵의 관리위원회는 어느때없이 더 부산스러웠다. 들에 나갔던 관리일꾼들이 들어오고 작업반들에서 걸어오는 작업일보 전화종소리가 칠새없이 울리고 이 시각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문턱에 불이 일도록 찾아든다.

기사장 한광삼도 하루종일 들판을 돌아가며 작업반들의 벼락종준비를 보아주다가 신발을 툭툭 털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방안은 오늘따라 온기가 없이 더 썰렁해보였다. 왜그런지 마음도 어수선하고 들판에 무엇을 놓고온듯한 기분이었다.

한광삼은 담배를 피워물고 책상앞에 다가앉았다. 군경영위원회에 보낼 지령총화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다. 옆방에서는 무슨 일때문인지 큰소리로 왁작 떠들다가 와 웃음이 터진다. 승벽이센 축산반장이 리창고장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부리는것 같다. 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생활의 활기로 봄빈다. 그러나 한광삼의 방은 왜그런지 점점 정적이 깃드는것 같았다. 마음이 느닷없이 심란해지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누구라도 《기사장동무 있소?》 하고 부르며 찾아왔으면 했다. 이때 누구의 발자국소리가 뚜벅뚜벅 울리자 한광삼은 행여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 발자국 임자는 자기 방을 지나쳐 옆방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다. 문에 걸려있는 행동판의 화살표를 자기 방으로 돌려놓았건만 오늘은 웬일인지 누구도 열썬하지 않는다. 불시에 한광삼은 마음이 허전해지며 지어 고독감이 온몸을 휩쌌다. 자기만이 약동하는 생활의 파도에서 멀리 기슭으로 밀려난듯싶었다. 그는 두툼한 입가에 깊은 주름을 잡고 생각에 잠겼다.

(농사로 잔뼈가 굵은 내가, 농장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가!...)

한광삼은 어쩐지 그것이 새 관리위원장이 농장에 온후부터인것만 같았다. 관리위원장은 농장에 온지 한해밖에 안되었건만 농장원들은 그를 자기들의 생활속에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을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한광삼은 오늘아침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되살아나며 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한광삼의 생활에서 무관심할수 없는 농장의 수리분조장

인 서창수의 안해에 대한 수술립회를 놓고 제기된 문제였다. 50고개에 이르는 그의 생활에서 그것은 처음으로 충격을 준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그 일을 물어버리자고 해도 문득문득 가슴을 아프게 찢어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이탓인가? 내가 왜 이래,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남이 알면 이 한광삼을 얼마나 웅졸한 인간이라고 하겠는가.)

한광삼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했다. 사실 그것은 대범하지 못한 치마두른 녀자들이나 생각할 잔신경에 불과한것이었다. (예라, 그런걸 생각하면 한광삼이가 아니지. 손에 불이 나게 일을 잡아야겠다.)

그는 자리에서 움쉴 일어났다. 작업반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들바람을 마시면 마음속의 잔바람도 날려보내고 사람들의 숨결 가까이로 가면 잔생각도 없어질것 같았다. 하긴 4작업반에서 매일 벼락종 방식상학이 있으니 준비정형도 알아보아야 했다. 그가 관리위원회 문밖에 나섰을 때였다. 등뒤에서 《기사장동무 어디 가시우?》 하는 부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광삼이 돌아서자 늙수그레한 부기장이 코등에 걸린 안경을 추스르며 천천히 다가와 입을 열었다.

《좁전에 서창수한테서 전화가 왔됐수다.》

서창수는 농장에서 작성한 4 마력짜리 경사지 발갈이 트랙터의 제작설계도면을 가지고 며칠전에 도 과학기술위원회에 심사를 받으러 떠났던 것이다.

《?...》

한광삼은 부기장의 고지식해보이는 얼굴에 눈그루를 박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설계도면을 보아줄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기다리는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사장동무에게 부탁드립니다. 집일을 좀 봐달라고...》

한광삼은 부기장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먼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발우에서는 저녁해가 그의 울적한 마음처럼 천천히 스러져가고 있었다. 눈치가 빠른 부기장은 한광삼의 어두운 심정을 알아차리고 또 말을 꺼냈다.

《내 그래서 창수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수다.》

《아니 왜요?》

한광삼은 의아적인 얼굴을 부기장에게 돌리며

물었다.

《기사장동무에게 할 소린 아니데만 아침에 사람들앞에서 내 립장이 참 딱했지요. 그래서 창수에게 전화루 수술이야기를 하며 〈자네때문에 내가 거북한 양을 봤네〉 하고 말했더니…》

《허허허…》

한광삼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껄껄 웃고말았다.

《그러니까 서창수가 하는 말이 〈별걸 다 가지고 그러는구만요. 어제저녁에 처가 걱정되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장 래일아침 수술을 해야겠는데 빨리 와서 립회를 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난 꼭 설계를 심사받아가지고 가야 할것기에 선뜻 관리위원장이 떠올라서 부탁하지요.〉 아, 이러지 않겠소.》

부기장은 좀전에 서창수로부터 전화받은 내용을 구구히 설명했다.

《잘했지요. 누가 선들 뭐랍니까.》

한광삼은 너그러운 어조로 성근히 말하고 자리를 떴다. 서창수 안해의 수술립회는 생사운명과 관련된 시간을 다루는 일이었다. 그만큼 환자의 병이 위중했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환자의 부모형제도 멀리 떨어져있고 남편도 출장중이여서 한광삼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야 할것 같다고 나섰다. 어느모로보나 서창수를 대신할수 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믿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부기장은 난처한 표정을 담고 병원에서 어제저녁에 세대주와 합의하였으니 관리위원장이 서달란다고 어름어름 말하는것이였다. 그 순간 한광삼의 얼굴에 피가 확 솟구쳤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너무도 가혹한 무시였던것이였다.

그러나 서창수는 결코 실수를 한것이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은 가장 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 어떤 타산이 앞서거나 누가 시켜서 그런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심장이 요구하기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도 먼곳의 큰 나무토막보다도 곁에 있는 작은 지푸래기부터 먼저 잡는 법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심장가까이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나의 존재는 그에게서 밀려났단 말인가?…

한광삼은 지금껏 자기는 서창수와 육친처럼 가깝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10 년간을 서창수의 육체결에서 지내며 옷사람으로서의 애정을 쏟았다.

그런데 서창수의 안중에는 한광삼의 존재가 가뭇없이 사라진것이였다. 한광삼은 이것이 서운했다.

눈앞에 무엇인가 휙 지나치는바람에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청제비 한마리가 고추잡자리를 놀래우며 날아갔다. 연보라빛 저녁노을이 들관과 파수원, 문화주택의 지붕과 창문에 아련히 젖어내린다.

한광삼은 리소재지 마을의 한쪽 끝 길옆에 자리잡은 서창수의 집앞에 이르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주인이 없는 집에는 열쇠가 걸려있었다. 토방앞에 쭈그리고 앉아 서글픈 표정을 짓고 집을 지키던 누렁개가 한광삼을 알아보고 꼬리를 젓는다.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오는 한광삼을 보니 무척 기쁜 모양이다. 불현듯 한광삼의 눈앞에 한줄기 밝은 생활의 추억이 가슴을 흔들며 떼지어 지나갔다.

서창수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마을에 왔을 때였다. 소재지 작업반장을 하던 한광삼은 서창수에게 친척벌이 되는 처녀를 소개하여주고 자기가 나서서 장가까지 보내주었다. 그리고 작업반원들과 함께 이 양지바른 언덕밑에 아담한 문화주택을 지어주었다. 창고며 집집승우리며… 어느것이냐 한광삼의 땀이 스며있지 않은것이 있으랴.

한광삼은 문득 굴뚝우에 있는 오지관을 보니 가슴이 설레었다. 서창수가 불이 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해서 기와공장에다가 우정 주문을 하여 손수 굴뚝우에 올려놓아준것이였다. 아궁은 연기 한점없이 불길기 소리치며 들어갔다. 서창수와 그의 안해는 너무 좋아 눈물이 글썽해서 그날저녁 한광삼에게 한턱 낸다고 뜨거운것으로 목을 적시도록 해주기까지 하였었다. 그렇게 그들은 열렬했다. 한광삼은 오히려 그 추억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자 발길을 떼었다. 그는 서창수를 원망하기전에 자기를 돌이켜보려고 애썼다. 서창수가 자기를 잊어버리게 된 까닭을 알고싶었다. 어디선가 프락프르의 동음소리,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간간히 들려온다. 하루일을 끝낸 농장원들이 삽자루를 들러메고 프락프르를 앞세운채 마을로 들어가는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한쪽의 그림같은 풍경이였으나 한광삼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피곳 지난해 늦가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관리위원장이 농장에 부임한지 얼마후였다, 어느날 관리위원장은 한광삼에게 미루등의 비탈밭을 기계화할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소로 밭을 갈고 후치질을 해야 하며 사람이 손으로 비료를 주어야 하니 품이 여간만 들지 않았다. 한광삼은 몇해전에 《전진》호로 비탈밭을 갈아 보려고 시도했다가 차가 뒤집히는바람에 큰 사고를 칠뻔했다고 말했다. 관리위원장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수리분조에 불일이 있어서 갔던 한광삼은 관리위원장이 서창수와 함께 《전진》호를 끌고 미루등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사람이 환장을 했나?》

한광삼은 서창수를 나무라며 급히 미루등으로 밭길을 돌렸다. 서창수가 사고를 칠뻔하고도 아직 정신이 들지 않은 모양이다. 《전진》호는 벌써 미루등으로 올라가며 늦가을의 투명한 대기속

에 가락지같은 연기를 뽕뽕 내뿜고있었다. 한광삼은 마음이 급해서 논들 밭들을 가로질러 장달음을 치기 시작했다. 그가 거의 미루등마루에 이르렀을때였다. 《전진》호가 천천히 비탈밭 고랑을 타기 시작했다. 분명 관리위원장이 밭을 갈수 있는지 시험할 잡도리였다. 《전진》호는 금시 뒤집힐듯 차체를 기우뚱해서 안간힘을 쓰며 굴러가고있었다.

그때마다 한광삼은 눈앞이 아찔아찔했다.

《세우시오! 차를 세우시오!...》

한광삼은 겁에 질려 고함을 지르며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러나 발동소리만이 더욱 요란스럽게 울릴뿐 《전진》호는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험뻑이며 차결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한광삼은 그만 전기에라도 붙은듯 《앗!》소리를 치며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눈앞에서 차가 밀동잘린 나무처럼 한쪽으로 허공 들렸던것이였다. 차는 이제 저아래 경사지로 바위돌처럼 굴러갈 판이다. 그러나 다행히 차는 급제동에 걸려 한쪽이 번쩍 들렸다가 자기자리에 그냥 멎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한광삼은 급히 차앞으로 뛰어 들며 버럭 소리를 쳤다.

《정신들 있소?》

서창수는 운전대를 꼭 잡은채 기름한 얼굴이 재빛이 되어 고개를 떨군채 있었고 관리위원장은 땀에 흠뻑 젖은 그 동그란 얼굴을 손수건으로 태연히 문지르고있었다.

《창수동무, 어찌자고 그래? 동무야 알지 아소.

《전진》호론 이 밭을 갈지 못한다는걸.》

한광삼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여 사납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만하세요.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관리위원장은 사뭇 미안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관리위원장이 너무 그러는바람에 한광삼은 성이 가라앉아 한결 목소리를 낮추어 타일렀다.

《관리위원장동무, 나두 이 포전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수다. 하지만 어찌겠소. 마음처럼 되지 않는걸, 국가에선들 생각이 없어서 가만있겠소.》

관리위원장은 라선형으로 산허리를 감돌아간 사래긴 밭고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있었다. 늦가을바람이 관리위원장의 윤기어린 까만 귀밑머리를 가볍게 날린다. 해별에 감실감실 타서 마음이 폭 가라앉아보이면서도 강의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얼굴에는 시름에 겨운 표정이 짙게 어리었다.

이윽고 그는 답답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기사장동무, 그럼 이런 비탈밭은 영 기계화를 할수 없을가요?》

《왜 그럴겠소, 무슨 방도가 생기겠지. 하지만 이런 포전이 어찌 우리 농장 하나뿐이겠소.》

한광삼은 관리위원장이 하도 안타까와하자 이렇게 위로했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방도를 찾아야 할게 아닌가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해안에 농촌테제 승리의 축포를 울리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탈밭을 그대로 두고서야 어떻게 농촌테제를 완성했다고 보고드리겠어요. 기사장동무, 우리 어떻게든 해보지요.》

한광삼을 쳐다보는 관리위원장의 두눈은 기대에 차넘치고있었으며 흥분에 찬 불꽃이 피어오르고있었다.

《허허... 해봅시다. 해보아야지요.》

한광삼은 너그럽게 웃으며 수긍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관리위원장의 말을 천진란만한 소녀의 생각으로 들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호를 탄것도 한창때의 처녀다운 랑만과 모험심때문일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하긴 그 시절에 누군들 아름다운 꿈이 없으며 두려움이 있으랴,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끝내 서창수와 함께 《전진》호를 타본 이후 경사지에서도 안전한 판사슬식 바퀴를 착상했고 농장수리본조의 힘으로 지금과 같은 4 마력짜리 같이뜨락뜨리의 설계도면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때부터 서창수의 머리에서 나에 대한 불신의 씨가 트기 시작하였는가? ...)

한광삼은 문득 가슴에 쏘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야장의 전동기가 탕을 때였다. 서창수가 수리해서 써야겠다고 제기하는것을 한광삼은 굳이 농기계부속품을 더 만들고보자고 하다가 사고를 친것이였다. 책임문제를 놓고볼 때 한광삼은 이 사고에서 외면할수 없었다. 하지만 한광삼은 도 종자관리처에 가서 새 품종의 벼종자를 가져와야 할 일이 제기되자 그리로 떠나고말았다. 사람들앞에서 얼굴을 붉혀야 할 일을 당하고싶지 않았던것이였다. 그가 벼종자를 가지고 농장에 돌아오니 그동안 서창수는 사고심의를 받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관리위원장과 함께 주야분투하고있었다. 한광삼은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지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물론 서창수는 이 일을 두고 언제 한번 입박에 비친적이 없었다.

《기사장동무, 어딜 급히?...》

한광삼은 자기앞에서 울리는 녀자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관리위원장이 손짐을 들고 자기앞에 서서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얼마나 급히 왔는지 도드라진 이마에는 구슬같은 송골땀이 맺혔고 까만 비닐신에는 황토색 먼지가 누렇게 올랐다. 병원에서 오는 길이였다.

《어떻게 됐소?》

한광삼은 관리위원장의 말에 젖은 얼굴을 쳐다보며 궁금하여 물었다.

《수술은 예상외로 잘됐어요.》

관리위원장은 옆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문지르며 밝은 어조로 대답했다.

《다행이구만.》

한광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관리위원장의 손에 든 장화를 보고 《그건 웬거요?》하고 물었다.

《오다가 4 작업반의 박순녀아주머니가 길옆에 장화를 벗어놓고 물도랑을 치지 않겠어요. 알아보니 장화가 작아서 발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꾸어주려고...》

관리위원장은 흥조어린 얼굴에 방긋 웃음을 피우며 손에 든 장화를 들어보였다. 한광삼은 그만 속으로 혀를 차며 얼굴을 찌푸렸다. 일이 바쁜 관리위원장이 언제 그런것까지 말아가지고 다니라 해서였다.

《이리 주, 내가 전달하리다.》

한광삼은 관리위원장의 손에서 장화를 받아들었다. 후에 작업반장을 시켜 바꾸어줄 생각이었다.

《그럼 부탁해요.》

관리위원장은 사뭇 다행스러워했다.

《원, 뭘그리 급해서, 본인은 생각지도 않겠는데.》

한광삼은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와 약속을 했는데 급하지 않다니요.》

관리위원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떠날줄을 몰랐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친근하게 즐겁게 해주는 웃음이었다. 《알겠소, 알겠소. 되돌아가서라도 바꾸어가지고 가야겠군.》

한광삼은 성급히 손을 저으며 혼자말처럼 했다.

《내가 꼭 바꾸어주려고 했었는데 전 이제 삼치골 차순실아주머니네 집에 가야겠어요.》

《아니 이제 간단말이요?》

한광삼은 어리둥절하여 되물었다.

《꼭 가야겠어요. 군대에서 휴가온 그 집 아들이 매일아침 떠난다고 하더군요. 고향에 왔다가 부모님들과 일하는 관리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그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관리위원장은 그렇지 않느냐는듯 피곤이 어려보이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동안 관리위원장동무가 회의에 가있었다는 걸 알겠는데 리해하겠지요.》

한광삼은 관리위원장이 이제 또 10 리길을 갔다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편 마음이 측은했다.

《휴가군인의 걸음을 가볍게 해준다면야 백리길인들 못가겠어요. 관리위원장이 무슨 큰 존재는 아니지만 집떠난 자식들은 우리들을 끔찍이 믿는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머니의 웅심깊은 표정이 어려있는듯했다. 한광삼은 나이에 비해 딸같은 관리위원장의

숙깊은 마음이 헤아려지자 절로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기사장동무가 수고를 또 하나 해주시오.》

《?...》

《이제라도 수리분조장을 불러와야겠어요. 그를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관리위원장은 서창수를 출장보낸것이 마치 자기 잘못인것처럼 말했다.

《아. 관리위원장이 직접 수술립회를 했는데 뭘 그리...》

한광삼은 오히려 관리위원장을 못마땅해 했다.

《아니예요. 관리위원장이 뭐겠어요. 아무러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 귀중하지 관리위원장이 보고싶겠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요. 앓는 환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관리위원장은 마치 한광삼의 결심여하에 따라 서창수가 오는것이 결정되리라도 하는듯 간절히 말했다.

《허, 왜 이러슈, 누가 반대한다고. 부릅시다.》

한광삼은 펄쩍 뛰며 성근히 동의했다.

《그럼 도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전 삼치골에 갔다오겠어요.》

관리위원장은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 어린애처럼 두눈을 정기있게 반짝이며 날렵한 몸을 돌려 어둠이 깃드는 삼치골을 향해 총총히 떠났다.

《!...》

한광삼은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잠겨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관리위원장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나는 오히려 저 관리위원장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지!...)

...한광삼은 전 관리위원장이 군경영위원회로 소환된 이후 농장일을 도맡아가지고 동분서주하며 끝끝한 일군이 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렸다. 그런데 기다리던 관리위원장이 뜻밖에도 거친 들바람에 살갓을 태워보지 못한 책상물림의 해말쑥한 처녀가 울줄이야,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3대혁명소조원을 거쳐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도원을 한 경력만으로는 관리위원장의 직책이 너무도 아름찼다.

과연 저 버들잎처럼 연약한 어깨우에 수백정보의 땅과 농기계와 천여세대의 농장살림살이를 올려놓을수 있단말인가, 한광삼은 절로 실망에 찬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한광삼은 스스로 자기를 위안했다. 들바람을 많이 마시고 땅내에 절은 내가 관리위원장을 도우리라. 그래도 달천협동농장의 기사장 한광삼이라면 군적으로 농사물계가 밝고 사람들을 다루는데서 수완있는 일군으로 치부하지 않는가!

그러나 한광삼의 근심은 공연한 것이었다. 관리위원장은 생각과는 달리 일군다운 침착성과 녀성다운 세심한 일본새로 농장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많고 인정에 무른 처녀지만 어찌된 일인지 능갈진 작업반장들이나 왈찬 프락프르운전수들도 관리위원장앞에서는 고분고분했다. 한광삼은 이제야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았다...

한광삼은 저녁이 펴 늦어서야 리소재지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관리위원장의 부탁대로 도과학기술위원회에다가 서창수를 보내달라는 전화도 하고 리창고장을 만나 장화를 바꾸어가지고 작업반으로 나가는 바람에 날이 아주 저물어서야 떠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4 작업반장을 만나 래일 아침 진행할 벼락종방식상학준비까지 알아보다니 시간이 많이 갔다. 한광삼은 이 저녁을 무척 바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장일과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관리위원장의 발걸음이 은연중 한광삼이도 뛰게 하였던 것이다. 지난날 한광삼도 농장일을 위해 그렇게 뛰어다녔다.

그러나 점차 수완이 생기면서 부산스럽게 놀지 않아도 일을 제끼곤 하였다.

문득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바람에 한광삼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 웃음소리는 창문에 불빛이 환한 집에서 흘러나왔다. 벌써 소재지마을에 들어선 것이었다. 한광삼은 어둠속에서도 서창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얼핏 아까 서창수가 전화로 집일을 부탁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서창수의 집마당안으로 들어섰다. 방안에서는 또다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마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데려온 모양이다.

《조용해요. 이제는 공부를 하세요. 봄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나요?》

방안에서 녀자의 귀익은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

방문고리를 잡으려던 한광삼은 그만 그자리에 굳어졌다. 관리위원장의 목소리였던 것이었다. 어느새 삼치골에 갔다가 서창수네 아이들이 걱정되어 되돌아선 것 같았다.

《웃음많은 우리 집!》

서창수의 딸딸인 봄이가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호호... 웃음많은 우리 집, 참 좋아요.》

관리위원장도 천진한 아이들처럼 명랑하게 웃었다. 한광삼도 가슴이 훈훈해지며 빙그레 웃음이 떠올랐다.

《봄이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요, 어서 불러봐요.》

관리위원장이 봄이를 추겨주며 연방 재촉한다.

《아니 싫어, 관리위원장 아지미와 함께 부를래.》

봄이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어리광을 부린다.

《좋아요, 그럼 함께 부르지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 손뼉을 짹짹 짹 친다.

《엄마, 나두!...》

탁아소에 다니는 사내녀석이 관리위원장의 품에 법석 안기며 비위를 부리는 것이 불빛에 보인다. 그들은 또다시 휘뿌려지는 방울소리같은 웃음을 터뜨린다. 한광삼은 몽클 가슴속에서 불기둥이 솟구침을 느꼈다. 그러자 눈곱이 지지는 듯 뜨거웠다. 저 어린것이 관리위원장을 제 어미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방안에서는 봄이와 관리위원장이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렸다.

풍년분배 많이 탄 자랑많은 우리 집

저녁마다 온 집안 노래하는 집

...

한광삼은 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마당가를 거닐었다. 가슴속에서는 형용할수 없는 걱정이 세차게 사뭇쳤다. 티없이 깨끗한 저 웃음소리!...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며 기쁨이며 참다운 삶으로 부르는 뜨거운 숨결이었다.

바로 관리위원장은 그것을 안고 진정을 바쳐가고 있지 않는가! 그 진심은 관리위원장이 서창수와 함께 《전진》호를 타고 미루등에서 울린 발동소리였고 해저문 산골길을 걸어 삼치골로 찾아간 그 발걸음소리였다. 그렇다. 자욱자욱 진정을 바쳐가며 사람들을 만풍년동사애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인간의 향기였다.

그런데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수완》있는 일군으로 자처했다. 사람의 심장은 진정만이 울릴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정작 농장원들을 위해 가슴을 내대야 할 자리에서는 몸을 적시지 않았다. 《전진》호로 미루등 경사지발을 시험할 때에도 관리위원장은 서창수와 함께 탔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까지 못했다. 단야장의 전동기가 탔을 때에도 자기는 응당히 책임을 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했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수술립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낯을 내는 하나의 처세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난날 한때 서창수에게 바친 호의를 밀천삼아 허울 좋게 자기를 내세웠지만 막상 나서야 할 자리에 가서는 몸을 내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서창수에게 보호자였지만 그의 심장속에서 나의 존재는 희미해지게 되었다.

진심이 식어진 나의 존재는! ... 그래서 안해의 수술립회가 제기되었을 때 서창수는 선뜻 관리위원장을 생각하였고 한광삼은 그의 심장결에서 스

스로 밀려났던 것이었다. 옳았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진정이 부족한 사람은 그 누구의 마음속에도 깃들 자리가 없었다. 오직 그 믿음의 자리에는 순결한 량심과 충성심에 기초한 진정을 가진 참다운 인간만이 차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광삼은 가슴이 섬찟했다. 오늘은 서창수가 내결에서 멀어졌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어질 것인가?...

한광삼은 피로움에 젖은 한숨을 토하며 밤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넓은 우주공간에는 깨알같은 작은 별들이 모여앉아 오손도손 정답게 속삭이는 것 같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저렇게 의좋은 형제처럼 빛을 내며 우주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아, 그런데 내 이제 그런 참인간으로 빛나는 자리에 언제 한번 서보라,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의 축포가 마련되는 환희로운 그날에 수천 년을 내려오던 경사지 포전을 힘있게 갈아제끼는

그 기계의 동음소리를 무슨 체면으로 들을 수 있으며 종다리 우짖는 푸른 창공을 무슨 낮으로 올려다볼 수 있으랴. ...

하지만 한광삼은 자기를 알게 된 것이 기뻐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먼저 찾는 일군!

그것은 그 어떤 《수완》있는 인간이 아니라 사심 없고 변심 없는 진정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안에서는 여전히 봄이와 관리위원장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와 밤하늘로 메아리쳐간다.

아버지는 하하하 어머니는 호호호
원수님의 품속에 웃음 많은 우리 집
...

어디선가 봄의 훈향을 실은 바람이 불어와 답답하던 가슴을 후련히 해준다. 그것은 땅을 가꾸고 곡식을 키우는 흠뻑 취하고 싶은 들향기였다.

떠날수 없어

로영우

넓어진 기계화포전에랑
다락밭끝까지 이어진 발판수에랑
비오나 눈오나 애쓰며 깃든
소조원의 그 정성 어이 다 헤아리랴

다만 자기 소견만을 터놓는다는
농장원아주머니의 소박한 진정
종다리 우짖는 봄맞이 들을 흔들어
마음을 흔들어
그대로 전하는 그 생각

처음엔 얼굴도 말쑥했다고
땅냄새 몸에 배이고
흙갈이, 논갈이, 모내기철
날바뀌는 들에서 땅에 정들어
그때엔 얼굴도 더 고와지더라고

언제인가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작업반의 전망 들려줄 때
분대장이 된 아들의 편지
온돌방에 앉아서 차근차근 읽어줄 때
그리고 마음끝엔 그 미소

또 언제였던가
우물집 큰 돼지 새끼 열마리 낳았다고
잉어떼 육식거리는 양어장물가에서
농장살림 늘어난다고

얼굴에 함뿍 웃음이 피여날 때
그리도 소중히 여겨지던 그 마음

그 마음 살뜰해
언제나 곁에만 있고싶은 처녀
소조원이 웃으면
농장의 일이 잘된다는 것
웃음 없으면 근심에 싸여
허물없이 손잡고 묻는다네
그러면 조용히 하는 대답
자나깨나
우리 수령님께 기쁨만 올릴 마음뿐이라고

날이 갈수록 더 끌리는 마음
열씨구 좋다, 풍년농사 좋다
두렁가의 월참
청고운 목소리로 어깨춤 불러내는
진정 소조원처녀는
농장의 딸, 당의 딸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하네
소조원처녀는 이 농장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벌 지나 파수밭 언덕을 넘어
소조기간 마치고 떠날수 있어도
그가 심어준 마음 떠날수 없어

나의 포전

김정철

나의 포전

농장별이 끝나는 그곳에서
그 지경도 끝나는 나의 포전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이 있을가
내 이름 발머리에 박혀있지 않아도
진주개포전, 양지덕포전...
그 이름만은 이 가슴에 새겨있는 포전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
돈을 주고서는 살수 없는
마음을 주고서야 사는 땅

그래선가 장마비에 흠 한줌 떠내려도
내 마음의 한귀퉁이 허물어지는듯
귀한 자식을 키워가는 그 마음
진거름을 다루어도 더럽지 않았네

흙을 매고 땀을 매고 량심을 매고
풍년든 포전에 두팔 벌려 누우면
한가슴에 안겨오는 농장살림 내 살림

아, 소유권을 가졌다고 제 땅이랄가
제 마음과 제 땀을 그 땅에 가꾸어야
참말로 내 땅 내 포전이어니

한꼬각 땅에 매여 났마저 시들던
땅의 노예로 된 내 포전이 아니라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는 나의 포전

해마다 높아가는 개인의 올라리로
조국과 멀어지는 내 포전이 아니라
조국의 넓은 품에 안겨주는 나의 포전

농촌테제가 그려준 새 세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도
내 여기에서 맞이할 나의 포전

오, 고마운 당이 80 년대에 펼친
또하나의 혁명은 아니던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뜨락또르에 대한 레찬

꽃으로 장식해줄가
노래로 찬미해줄가
이 가슴의 혼장을 똑 떼여
저 운전실에 걸어줄가
오 뜨락또르 오 내 기쁨아

지금은 말하네 어디 가나
농사는 뜨락또르가 한다고
소박한 그 한마디에
꾸밈없는 진정이 어려있거니
너는 무엇을 안고 이 땅에 왔던가

긴긴 해를 가대기와 씨름하며
소도 사람도 꺼렇게 타던 어제

마흔을 못넘어 굵어들던 그 허리
일흔을 넘어서도 아직 꽃꽂한
이 나라 농민의 젊어진 모습이나

날마다 기름져가는 포전에
희망도 씨앗도 함께 뿌려가는
한가정 작업반의 밝은 미래
달빛어린 발머리 교대를 주고받는
부부운전수의 깊어가는 사랑이나

그렇더라 일 끝난 저녁이면
너를 씻어 떠들썩 웃는
풍경도 좋은 시내가의 새 풍경
어디 가나 뜨락또르운전수부터 먼저 찾는

풍습도 좋은 마을마다의 새 풍습

너와 인연맺은 그 길우에서
농촌은 도시를 닮아갔고
농민은 로동계급을 닮아갔거니
너는 한마디로 이 나라 농촌에
혁명을 안고오지 않았더냐

그때문에 우리 수령님 걸으신 길우에
그리도 사연깊은 전설을 새겨온
그 이름 프락포르
우리 당의 결정속에 그리도 자주 오른
그 이름 프락포르

오, 너는 강철의 보습날로
기계화의 농촌상을 그려가는
전야의 화가!
너는 우렁찬 발동소리로
농촌체제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지의 가수!

꽃으로 장식해주라
노래로 찬미해주라
이 땅우에 농민의 동상을 세운다면
그렇다 우리는
프락포르를 타고가는 농민을 세우리라

여름밤의 서정

하늘에 하나 둘 별들이 돌아오면
별에도 다투어 유아등 반짝이네
시원한 바람이 건듯 스쳐가자
와스스 오곡들은 마디를 뽐네

더위가 가셔진 배미마다에선
뜸부기의 구성진 울음소리
먼 행길에선
밤작업에 바쁜 프락포르소리

아름다운 밤하늘에선
이따금 별씨들이 떨어져내리고
맑은 물 흘러드는 저기 논고엔
아까부터 마주앉은 두사람

어둠속에 두런두런 말소리
-로인님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수다 비서동지!

그다음 만시름 잊은듯 호탕한 웃음소리

다시금 고요
고요속에 뜰부기의 울음소리
깊어가는 밤과 함께
끝날줄 모르는 논머리 대화...

좋은 밤이로다
그 어느 하나에도
가식과 가공의 흔적이란 없구나
수천년을 이렇게 이 땅에 있었고
수만년을 이렇게 이 땅에 있을듯

아, 모든것이 제자리에
자연스러이 조화를 이룬
여름의 밤
농촌의 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퍼그나 자주 듣는다
밤 깊어 농장대학 나서며
밤 깊어 문화회관 나서며
아쉬워 한마디씩 하는 말
밤은 왜 이리 짧은가고

밤은 언제나 짧았던가
난바다에 가라앉은 쪽배인양

어둠속에 짓눌린 초가집들
성에불린 담벽과 초저녁부터 마주누우면
세벌잠을 깨도 새지 않던 밤...

아득한 옛날같은
고작해야 아버지들 대의 이야기
지금은 벽돌집도 씨리카트벽돌집
밤마다 텔레비죤앞에 마주앉아

한눈에 천하를 굽어보는 그 재미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 창가에선
3대혁명소조원을 둘러싸고
종합적 기계화의 도면을 그리노라
태일의 내 고향의 설계도를 그리노라
얼굴마다 발갛게 부르익어가는데

이 또한 새 풍경이로다
근로자노래경연무대에 서보겠다
예순에 장고를 메고나선 저 모습

웃음속에 백발이 다 날려가는구나

낮에는 새 200 일전투전야에서
밤에는 마을에서
받아안은 그 행복 다 누리지 못해
낮에는 낮대로 낮이 짧다고
밤에는 밤대로 밤이 짧다고

아, 이것이
3대혁명 빛발아래 꽃피난
오늘의 우리 농촌이란다

명상을 깨칠라

김영근

조용하라, 씨뿌리는 처녀들아
푸른 하늘 저 종다리소리에
눈시울 좁히며 마음 취해 선
관리위원장아바이 명상을 해칠라

맹상모관 고루던 일손을 멈추고
붙여든 담배가 반나마 타들도록
공중을 쳐다보는 저 백발이
종다리소리에 녹아내리지 않느냐

웃지들 말아 떠들지 말아
위원장아바이
수령님 주신 땅에 첫 씨앗 뿌리며
뜨거운 눈물로 듣던 종다리소리다

머슴살이 설음도 다 가져주고
봄의 속삭임 가슴에 울려주던
종다리소리
종다리소리

꽃나이 처녀들아,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 아바이 저 종다리소리에서
이랑이랑 제 땅을 갈아가던
그날의 소방울소리 듣고있는줄

버들개지 움트는 시내가에서
우물집처녀의 손수건 받아들고
어줍게 들어주던
살뜰한 속삭임을 다시 듣는줄

아바이는 듣고있다 한생의 메아리를
젊은날에 울리던 조합의 첫 종소리며
수령님 손수 쓸어만져주시던
금별메달의 절령임소리를

눈물로 받아안은 땅에서
씨뿌리고
풍요한 열매를 거두며
삶을 꽃피운 우리 아바이

땅과 더불어 축복받은 한생이어서
땅에 뿌리내려 꽃을 피운 한생이어서
이 봄날 저 종다리소리에
한껏 젊음을 나래퍼는것 아니냐

조용하라 씨뿌리는 처녀들아
수령님 주신 땅이 하도 소중해
늙을줄 모르는 위원장아바이
저 명상속에 백발이 봄눈처럼 녹아내린다

땅의 향취

리형순

멜대마냥 휘우듬한 들길 한끝은 논벌을 지나서 멀리 바다가에 가닿았다. 불을 놓아 얼룩진 거뭇한 쪽은 들길과 나란히 누워있다. 그밑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논벌이 펼쳐졌는데 보습날에 세례를 받은 살찐 흙밥들은 기름이라도 머금은듯 물기에 젖어 번지르르하다. 그우에는 거름무지들이 무겁게 실려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는 가슴을 후련케 하는 두엄내가 어려있다.

따뜻해진 벌에 등을 맡기고 들길을 거닐면서 나는 봄기운이 어린 논벌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거름무지들은 꽤 많기도 하다. 포전 한끝에 아물거리는것들이 거름더미들이어서 여겨보노라면 눈이 다 아플 지경이다.

올해의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해놓은것이 첫눈에 알리는 거름무지들에서 우리 농민들의 수고를 새삼스럽게 헤아려보면서 나는 들길을 천천히 거닌다.

농촌에서 나서자란 나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름받이를 두고 얼마나 애면글면하는가를 잘 안다.

동네방네의 논밭은 도말아 갈아엎던 한다한 보잡이군이고 근면한 농사군이었던 나의 할아버지는 포전에서 일손을 잡는 때를 내놓고는 거름을 장만 하는 일로 땀이처럼 서서 돌아가곤했었다. 소여물을 훑이는 아궁에 흙을 구워내어 재우리에 날라다가 차곡차곡 재우는가 하면 소, 돼지 우리에 깃을 너럭히 주어 퐁오줌에 절인 김이 풍기는 퇴비를 앞마당가에 덩실하게 쌓아놓는것이였다. 그리고 집오래는 물론 마을주변에 널린 집집승들의 잡거름을 거두어모아 더미더미 만들어놓았다가는 긴하게 쓰곤했었다.

여하튼 거름이 될만한것은 지푸래기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았다. 손자녀석들이 장난질로 마당가에 서 버짚담을 허투로 다루는것이 눈에 떠면 할아버지는 큰소리를 치시였다.

《저것들두 밥먹는것들이야?!》

평시에는 더없이 인자한 할아버지였지만 농민의 자식이 거름을 흠시하는것을 보고는 집안이 떠나 갈듯 화를 터뜨리시는것이였다.

거름내 풍기는 집안에서 자란 나는 농촌을 떠나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들크무레한 거름내가 그리웠다. 그리고 포전에 끌어낸 거름무지

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고 곡식이 우거진 포전을 대할 때면 알찬 낱알을 가꾼 주인의 숨은 노력을, 거름

한짐이라도 더 내려고 마음을 쓰며 바삐 돌아간 성실한 주인들의 수고를 헤아려보게 되는것이였다.

해주시에서 서쪽으로 좀 벗어나면 취야벌이 펼쳐져있다. 해마다 풍년을 불러오는 이 벌의 주인들은 서원, 벽성읍, 옥정 협동농장원들이다. 농장 초창기때부터 농장의 살림살이를 맡아온 여기 농장의 호주들인 관리위원장들은 농사일로 한생을 늙어온 땅내, 거름내 풍기는 농군이고 성실한 일군들이다. 서원협동농장의 안달수농민만 봐도 그러하다. 해방후 새봄을 맞은 그해에 그는 왕복 40 리가 넘는 길을 제집 문턱넘나들다싶이 하면서 시내에서 인분을 지게짐으로 날라다가 분여지에 두터이 깔았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개바닥흙을 날라다가 흙깔이도 했다. 하여 그해가을에 분여지에서는 술한 곡식을 거두어들였고 먹고 쓰고 남은 낱알은 애국미로 바쳤으며 그때부터 그 이름은 만사람들속에 알려졌다. 그는 땅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농민의 본분을 다해 땅을 기름지우고 살찌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왔다. 가을이면 취야벌에 낱알향기가 차고넘치는것은 이런 진짜배기 농민들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기때문이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라의 쌀독을 맡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거름장만을 등한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한데도 일부 일군들은 시약이 없소, 로력이 부족하오, 유기물비료가 없소 하며 없는 타령만 일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쁜 땅이 없습니다. 거름을 많이 내면 땅이 좋아지고 정당수확고도 높아집니다.》

성실한 농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땅은 자기를 배불리 먹여주고 살뜰히 가꾸어주는 주인에게는 속을 주고 따르는것이고 기름진 낱알로 보답을 한다. 말하자면 먹은 소 기운을 쓰듯 거름을 받은 땅이 수확을 내는것이다.

거름은 땅의 주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농민의 본분은 땅을 살찌워 힘을 키우는것이다. 그리고 보면 지력을 높이는것은 땅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 일거리며 농사일의 기본에 기본이라고 불수 있다. 그렇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질 좋은 거름을 두고 마음을 쓰며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 몸에 거름내, 땅내가 풍기는 사람만이 실농꾼이요, 진짜배기 농민이다. 답답한 거름내에서 땅의 향취뿐만 아니라 땅을 다루는 우리 농민의 체취를 느끼게 되는 것은 이때문이라.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일러왔다. 세상에서 제일 기본으로 되는 큰일을 하는 농민들, 땅내 땀 농장원들로 하여 이 땅은 나날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것이고 해마다 가을이 오면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사람들은 땅내 거름내 풍기는 성실한 농꾼들을, 일밖에 땅 밖에 모르는 근면한 농민들을, 땅의 향취가 풍기는 진짜배기 농장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봄벌에 등을 맡긴채 따뜻한 기운에 부풀어 오는 부드러운 들길을 거닌다. 다리가 노곤해지도록 거닐고보니 시원한 들바람에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다. 한량없이 거닐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는 벌이 좁다하게 들어앉은 거름무지, 김이 서려오는 거름더미들에서 나는 마가울의 벼날가리를 그려본다. 눈앞에 펼쳐진 환영에 나는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까딱도 않고 서있다.

그러면 땀배인 옷자락을 미풍에 맡기고 풍년벌을 둘러보며 미소를 머금고있는 땅의 주인들의 얼굴모습들이 떠오른다.

아, 봄이 오는 들길을 거닐면서 난알향기 풍기는 마가울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풍정벌에서

김영건

여기

여기로 오라

풍요한 벌을 보러거든

기계화의 땅!

기계화의 벌!

아침해 뜰 때

떠난 프락포르

해저물녘에야

돌아서는 땅

우리 수령님

찾아오시여

기계화로 온 벌을

가꾸게 해주신 땅

수령님 그날 다녀가신

그 자욱 그 길우로

발동소리 앞세우고

프락포르 농기계 농약이 올 때

풍정벌아 너도 기뻐 설레이지 않았더냐

가고 또 가도

다시 시작인듯 또 펼쳐지는

풍정벌아 너는 그날부터

씨앗으로 그 사랑 꽃피우고

보습으로 그 은정 새기었나니

여기

여기로 오라

벌은 넓어도 수령님 사랑 안기엔

언제나 좁아보이는 땅

기계화의 벌

아 풍정벌 풍정벌

너의 그 이름처럼

먹고 남아 풍정벌인가

사랑넘쳐 풍정벌인가

수령님 농촌테제 꽃피는 땅이여!

땅과 넋

김명익

봄이다. 움트는 계절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대지의 후더운 숨결인양 아
리랑이 가물가물 피어오르고 관개수 유유히 땅의
품으로 찾아든다. 동음소리 경쾌히 울리며 트랙
포르들이 갈아빈진 땅우에 봄씨앗이 뿌려진다.
그러면 전야는 앞가슴 한껏 풀어헤치고 바야흐로
풍요한 가을을 잉태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봄이 깃드는 전야를 바라보
느라니 올해에도 이 땅에 대풍이 들리라는 확신
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른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땅의 주인들이 대지에 씨앗만이
아니라 마음을 심고 가꾸고있음을 잘 알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이 다루고있는 땅에는 혁명
선열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세대 사람들의 행복한 살림을 위해서뿐만아
니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서도 아끼고 알뜰
히 다루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얼마전에 나는 분수식 발판개 공사에서 소문난
국사봉 기슭의 한 농장을 찾았던 일이 있다. 나
에게는 이고장이 처음이 아니였다. 켜 오래전 일
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의 추억의 한토막이 간
직되어있는곳이다. 나는 전후 어려운 시기에 직
장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따라 이고장에 와서 중
학교를 다니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주의협동화의
첫 종소리를 들었으며 강냉이가 발곡식의 왕이
라는 노래를 부르며 가창대도 하였다. 그랬던 이
고장이 오늘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길에서
큰걸음을 내딛고있다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는
가.

아직은 이른봄이었지만 거름을 실어내고 팽상
모를 가꾸고 토지를 정리하는 등 온 농장벌은 끓
어 번지고있었다. 더우기 분수식 발판개 공사장
은 불만하였다. 비탈밭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물
보라가 솟아오르며 시운전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수장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
다. 알고보니 이것이 농장에서 자체로 발기하여
성공한 자연수압에 의한 분수식 발판개라는것이
였다. 국사봉 골안마다 크고작은 물주머니를 만
들어놓고 산기슭을 따라 관을 내려놓었으니 전동
기도 양수기도 더는 필요없게 되었던것이다.

감탄에 잠겨있는 나에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의 일군이 현장에서 일하는 한 젊은 기사를 소개
하여주는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급 농업지
도기관에 배치된 그는 끝내 자기의 고향마을로
돌아와 새로운 방법에 의한 분수식 발판개를 도
입했을 뿐아니라 앞으로 비탈밭의 기계화를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고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고향마을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있는 젊
은 기사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별로 해놓은것이 없습시다. 제가 나서자란
고장을 위해 넋을 바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류달리 짙은 속눈썹을 습벽이며 청년기사는 스
스럼없이 말을 잇는것이였다.

《그래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오?》

나는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그렇습시다. 대대로 머슴살던 우리 가문이
처음으로 토지분여를 받고 자기 땅을 가져보게
된곳도 이고장이며 우리 할아버지가 마을의 첫
조합원이 된곳도 여기랍니다.》

그 어떤 예감이 나의 뇌리를 스치였다. 혹시
향나무집자손이 아닐가?...

박우물에 향나무가 있는 그 집에 우리의 중학
교 동무가 있었다. 그는 남달리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여 고급중학교까지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그 했던 그가 상급학교를 마다하고 고향에서 농
사를 지을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한뼉 농사로 늙어오
는 아버지를 고향에 남겨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
니...》

한뼉 농사로 늙어온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모두는 한가지 추억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마을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무어지던 때의 일이
다. 공부에 것처럼 열성이던 향나무집아들이 며
칠째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겼다. 우리는
동무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갔다. 누렁소가 방울
을 절렁거리며 새김질을 할뿐 집안은 조용하였다.
빠금히 열린 대문사이로 토방에 앉아 담배를 풀
씩풀씩 태우는 그의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보
이였다.

《애야, 어서 학교엘랑 가거라. 조합에 들고
안들고 하는게 네 공부에 무슨 상관이란말이나.》

그의 아버지의 고물통이 퇴돌을 땅땅 울렸다.

《싫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조합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둘래요. 그리고 집에서 영

영 떠나가버리고...》

설음이 그의 뒤말을 삼켜버렸다.

조합이 무어지는데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반동놈들이 온갖 류연비어를 퍼뜨리는 때에 향나무집 아버지는 주저거리고있었다. 그 집에는 기름진 옥답과 황소가 있었던것이다.

영문을 알수 없었던 우리들은 단지 그애와 마주앉아 공부를 하지 못할것만 같아 가슴을 조였다. 그랬는데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애가 달려오고있었다. 책가방을 높이 들어보이며 환성까지 올렸다. 자기 아버지가 조합에 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래일아침에 황소를 앞세우고 조합사무실로 찾아간다는것이였다. 우리도 기뻐다. 그가 다시 우리와 마주앉아 공부를 하게 된것이 기뻐으며 우리모두 마을의 첫 조합원네 집이 된것이 기뻐다. 그래서 우리도 환성을 울리며 교실로 되돌아가 책을 펴들고 어둡도록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일은 바로 그날밤에 벌어졌다. 악에 치받친 반동놈들은 향나무집 누렁소를 해치려고 은밀히 기여들었다. 때마침 밤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으로 나가던 그의 아버지는 필사의 힘을 다하여 놈들과 맞붙어 싸웠다. 그리하여 간신히 소를 구원할수는 있었으나 놈들이 휘뿌리는 도끼에 다리가 맞아 중시 불구의 몸이 되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회상을 더듬노라니 젊은 기사의 질은 속눈썹이며 준수한 인상이며가 신통히도 어릴적 향나무집 아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통성을 하고보니 그 젊은 기사는 향나무집 후손이였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중학동창인 그의 아버지와 상봉하였다. 서른다섯해만이였다. 방안에는 성장한 그의 자녀들이 주련이 둘러앉았다. 축산분조장을 하는 만딸, 트랙트르운전수들이 둘째와 셋째아들,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분조에서 일하는 막내딸...농업기사인 맏아들은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었다. 벽면에는 나의 중학동창의 생의 빛나는 자취인양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표창장이 나란히 걸려있었다. 그는 고향땅에서 20년째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던것이다.

지나온 나날을 더듬던 그는 문득 말했다.

《그때 내가 고향에 눌러앉아 농사를 지은것은 단순히 불구인 아버지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였네. 아버지는 늘 나에게 말하곤하였다네.

〈나는 이 땅을 위해 온 넋을 바치려 했다면 몸

이 이렇게 되고보니 생각뿐이구나. 이 땅이 어떤 땅이나. 대대로 우리 가문의 넋이 깃들어있단다.〉

나는 지금도 종종 저 애들에게 그 말을 하곤한다네...》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정녕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땅을 위하여 혁명선열들이 뿌린 피는 그 얼마이며 이 땅으로 하여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은것이 몇수천년인가. 이 땅에는 고뇌도, 탐도, 피도, 다 숨배여있다.

바로 그 땅에서 머슴의 자손들이 만복을 누리며 인생의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주인으로 자라고있는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느라니 어릴적 친구가 더없이 돋우보였다.

《자네는 정말 장하이. 아들딸 자식들을 모두 고향의 대들보로 키웠구만.》

《허허. 그저 마음뿐이네. 하긴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중 한둘은 제갈데로 보내도 일없지 않느냐고 하데만 난 그럴수 없었네. 그리구 그걸 후회하지 않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땅이상 정들여본데는 없네. 땅이란 마음을 주고 진정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대로 알아주거든. 봄내 여름내 남이 알아주건말건 정성을 기울이면 땅은 우리 가슴에 풍년을 안겨준다네. 정말이지 풍년로적가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평양하늘을 우러를 때면 나는 사는 보람이 농사군이상 없는줄 아네. ...》 아, 그것이였구나. 땅에 넋을 바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보람! 대를 이어 고향땅을 가꿔가려는 주인된 자각을 지니였기에 5남매를 고스란히 대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할수 있었으며 자신의 넋이 그대로 땅이 되어 새 싹을 움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익혀가는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금 숙연한 마음으로 기념사진이 모서진 벽면을 바라보았다. 이 땅에 설음과 피눈물만을 묻어오며 살던 이 나라 농민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존엄을 찾아주시고 행복과 영광으로 생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그대로 넋이 되었기에 나라의 쌀독은 해마다 넘쳐나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찌 이룰뿐만이라. 이들과 같은 수많은 농촌진지의 참다운 주인들로 하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는것이다.

변함없는 모습

김영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전국영웅대회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200 일전투로 들끓는 군농기계작업소를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내가 만나보려던 프락포르수리직장 직장장은 없었다. 새형의 공작기계를 도입한 이웃군 농기계작업소에 갔다는것이였다.

작업소 당비서동무는 수리직장장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직장장을 한시빨리 만나보고싶었으나 레일쫄에나 온다는 말에 아쉬운대로 자리를 뜨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읍농장 부기사장을 먼저 취재할 생각이였다.

작업소를 나서니 끝간데 없이 펼쳐진 벌이 한눈에 안겨왔다.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방금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을 지나 나의 품안으로 어리광치며 안겨들었다.

나는 이끌리듯 논둑길로 발길을 돌리었다. 벌에 취해 한동안 걷던 나는 길가에 세워놓은 프락포르가 눈에 띄어 그리로 다가갔다. 프락포르옆에는 큼직한 배낭이 놓여있었다. 나이지숙한 사람이 기화기를 손질하고있었다. 부속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마치나도 악사가 악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하며 정확하였다. 기술이 대단히 높은 운전수라는것이 첫눈에 알리였다. 무슨 일을 힘겹게 하였는지 어깨와 잔등에 땀이 화락하게 내배였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는 술진 눈썹을 치켜들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는 기름묻은 손을 걸레에 문다지고 담배를 맛나게 불어물었다.

《수리는 작업소 수리직장에 가서 해야 할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리직장의 현대적인 기계들과 전문화된 작업반을 두고 혼자 애쓰는것이 측은하여 이렇게 물었다.

《작업소신세를 질 필요가 없기에 시작했수다.》

담배대를 입에 문 운전수는 다시 일손을 잡았

다.

《군에 꾸러진 수리기지가 대단하더군요. 수리 직장장의 노력이 컸다지요. 군안의 협동농장마다에도 웬간한 수리는 자체로 할수 있게 수리기지를 꾸려주었다는 당비서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수리직장장의 공로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거야 뭐... 누구나 자기앞에 부닥치면 해내게 되는것이지요.》

그는 그런것쯤 무슨 큰일이나 하는투로 별찮게 말하는것이였다.

《예?》

나는 그만 어이가 없어 더 말을 못하였다. 아무리 남의 칭찬에 린색한 사람이라 한들 온 군이나 아는 직장장의 공로를 그런식으로 대하다니, 군안의 수백대의 프락포르마다 직장장의 손길이가닿지 않은것이 없으며 어느 프락포르의 어느 부속이 언제쯤 말썽을 부릴수 있다는것까지 손금처럼 꿰뚫고있다는데 운전수로서 너무하지 않는가. 직장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공화국 로력 영웅칭호까지 수여하였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마을에 들어갔던 젊은 운전수가 다가왔다.

《영철이, 다 된것 같네. 발통을 살려보게.》

나이드은 운전수는 이렇게 말을 하며 비누박을 찾아들고 내가로 내려갔다.

나는 영철이라는 운전수에게 나를 소개한뒤 이 프락포르를 수리직장장의 도움을 받은적이 없는가 물었다.

《직장장이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던 그는 손씻으려 내 리간 사람을 가리키며 저분이 수리직장장이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예?》

나는 놀람과 의혹이 한데 엉킨 눈길로 직장장을 바라보았다.

《이웃군에 갔다던데 언제 벌써?...》

나는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직장장아바이는 이 프락포르의 기화기가 오늘 래일 말썽을 부릴수 있다는것을 이웃군에 가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에게는 군안의 모든 프

락포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적혀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프락포르백과사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보았겠지요. 그러니 더 지체할게 뭡니까. 밤으로 저 배낭을 지고 걸어왔더군요. 땀에 폭 젖은 아바이를 보는 순간 뜨거움이 왈칵 솟구쳐 < 아바이, 그까짓 기화기 하나가 뭐라고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 라고 하였더니 아바이는 새로운 200 일전투가 고조에 오른 때에 프락포르가 하루라도 서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손실을 메꿀수 있다고 하면서 기화기수리를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때야야 땀을 흠뻑 흘린 그의 모습과 피곤이 실린 어글어글한 눈빛을 이해할수 있었다.

이웃군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좀 멀다. 이제 60 고개를 바라보는 그 나이에 밤사이 그길을 그것도 큼직한 부속품배낭을 지고 걸어와 프락포르를 수리해주다니, 그 열정, 그 패기는 아직도 여러개의 협동농장에 공작기계를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그때 그대로가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5 년전 직장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의 전면적 기계화를 앞당겨 수행할 결의밑에 군안의 협동농장들까지 간단한 수리는 자체로 할수 있도록 선반기와 불반을 비롯하여 공작기계를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전투를 벌리었다.

전문기계공장도 아닌 프락포르수리직장에서 이

런 방대한 일을 해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반도 불반도 수십대 있어야 하는 전투였다. 시련과 난관이 걸음마다 부딪쳤으나 끝까지 해내고야말았다.

불이면 불속에서도, 물이면 물속에서도 순금처럼 변함이 없는 불타는 충성심을 지닌 그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는것이 아닌가. 청춘 시절에는 열정을, 중년시절에는 지혜를, 장년시절에는 인내성을...

나들이가던길에 저 멀리 논가운데 프락포르가 서있는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수 없어 진탕에 빠지며 찾아가 프락포르동음소리를 울려주고야 웃으며 돌아섰다는 그였다.

이런 사실들을 이 짧은 지면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50대, 60대의 농촌핵심! 이런 핵심들이 농업전선의 전초선에서 투쟁의 기수가 되어 싸워나가고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그날이 더욱더 앞당겨지고있는것이 아닌가.

나의 눈앞에는 농촌테제가 완전히 실현되어 기계소리,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공산주의농장별이 축포의 꽃보라속에 우뚝이 안겨온다.

나는 직장장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곳곳한 그의 손을 마주잡으니 나의 온몸에서도 새힘이 용솟음치었다.

바다의 가을

송천구

종다리 우짖는 들판엔
모내는 기계 달리며
푸르른 봄을 펼쳐가는데

갈매기 날아에는 이 바다
우리네 양식장엔
신나게 다그치는 다시마 가을

황금물결 농장벌에 설레일 때
한포기 또 한포기
정성담아 옮겨심은 다시마모

사나운 비바람에 녹을가
한겨울 성에장에 불릴가
애지중지 보살피며 가꿨더니

보아라 오늘은 떼줄이 끊어질듯
소담히도 자라내린 다시마줄
목메게 풍겨오는 다시마향기 ...

아, 기쁨속에 한더미
노래속에 또 한더미 배전마다 쌓으며
뜨겁게 젖어오는 이 마음이어

커가는 인민의 행복 그려보시며
바다가양식의 넓은 길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넘쳐

사시절 무르익은 바다의 가을
사시절 흥성이는 바다의 풍년
온 나라에 넘쳐나는 사랑의 가을이어!

사랑을 알기전에...

한영호

파편구멍이 송송한 무선차안으로 매캐한 포연이 쉬임없이 밀려들고있다. 무선수 김련희는 무선대 앞에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무선차를 찾아 폭탄을 내리떨구던 적폭격기의 동음도 물려갔건만 귀전에는 칼날같이 예리한 여음이 그대로 남아 고막을 괴롭혔다.

(장차 모든 일이 어떻게 될까? 무선차가 사단 포병감시소에 배속된지도 하루가 지났는데...)

김련희는 앞으로의 일을 다 예측해볼수 없었지만 이 무선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는 하루전 군단지휘부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있었다. 전선동부에 대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계속되어 전선익측을 감당하고있던 《사》사단전연이 돌파될 위험이 조성되었다. 군무수행중에 있던 련희는 작전일군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 그것을 직감했다. 이제 곧 보병대대나 련대가 지원되어 갈거야. 땅크도 동원될지 몰라... 그러나 한대의 무선차와 함께 자기가 속한 무선전대가 《사》사단으로 지원되어간다는것을 알았을 때 꿈을 꾸듯 어리벉벉해버렸다. 곧 그 이유를 알고서야 침착한 마음속에서 끝없는 공지를 느꼈다. 군단직속의 강력한 포병대대가 이미 전연익측으로 기동하고있었는데 련희가 속한 무선차는 사단포병지휘소에 배속되어 그들과의 지휘통신을 보장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몇시간후 련희네 무선차는 사포군지휘소가 있는 고암산마루의 자동차은폐호에 자리를 잡았고 포병대대는 그곳에서 가까운 작은 야산에 전개되었다. 교신을 시작한 반나절동안에 무선차와 포병대대지휘소의 무선대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련희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폭격에 치명상을 입고 숨져가는 전대장과 무선차운전수를 보았다. 놀랍고도 통분한 생각을 수습할 경황이 없는속에서 포병대대지휘소가 더 큰 피해를 당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1 차적인 조치로 한시간전, 상급무전수인 오광속하사가 포병대대무선대를 인계받기 위해 무선차를 떠나갔다. 련희만이 홀로 남았다.

(전파탐지기는 꼭 굶주린 사냥개의 코와도 같은거야.)하고 련희는 속삭였다. (적폭격기는 노상 그 굶주린 사냥개를 싣고 다니고있어. 야군무선대를 냄새맡으려 하고있으니까.)

련희는 무선차의 위치를 옮기긴 했으나 놈들이 또 언제 냄새를 맡고 달려들지 몰라 불안스러웠다. 그는 차의 위장상태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소리를 지르며 의자에 주저앉아버렸다. 불길한 예감에 자기의 왼쪽옆구리를 살피던 그는 다시금 흠칠 놀랐다. 찢어진 군복천이 빨간 피로 젖어있었던것이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가? 언제 이렇게 됐담.)

련희는 비로소 상처의 아픔을 느끼며 허둥지둥 손수건을 찾아들었다. 군복자락속으로 개인봉대를 상처에 가져다대고는 아픔이 멎기를 기다렸다. 무선차밖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군화차국소리가 들렸다. 련희는 황황히 봉대가 빠지지 않게 혁띠를 그우에 올려띠고는 몸가짐을 바로했다.

(이쯤한게 다행이지. 무선차가 영원히 주인을 잃을번 했어.)

문이 벌컥 열렸다. 먼지를 뒤집어써 얼굴이 부엌이 된 포병참모가 련희를 쳐다보고있었다.

련희는 앉은 자리에서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다. 왜 그렇게 했는지. 허리의 부상이 얼굴에 그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정상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허리를 곧추 펴며 《군무중 이상 없음!》라고 웨쳐야 했었다.

포병참모는 련희의 미소어린 얼굴을 무뚝뚝하게 외면해버리며 한숨을 쉬었다.

《입대한지 한달 됐다 했지...》

《...》

《힘들거요. 조금만 참소. 사단통신중대에 연락을 했으니 유능한 무선수가 곧 이리로 오게 될거요.》

련희는 포병참모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는지라 노여운 눈길을 보냈다.

《참모동지, 저 혼자서도 자신있어요.》

《자신있다. ... 허참, 욕망이야 다 그렇지. 그건 그렇고 동무와 상급무전수사이에 있는 일 말이요.》

련희는 그만 머리를 수그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포병참모는 처녀들의 벌치 않은 사생활에 주의를 돌리는게 멋적었던지 스스로 이마살을 찌프렸다.

《구체적으로야 내가 알수 없지. 중요한건 병사가 된이상 이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는것뿐이요. 하여간 상급무전수가 조언을 준게 있다면 참작하오. 내 자주 와보겠소.》

련희는 가까스로 머리를 쳐들었다. 포병참모의 얼굴모습은 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알수 없는 설음이 솟구쳐올랐다.

그 일은 날뽕을무렵에 있었다. 무선차에 날아든 파편이 련희의 배낭에 커다란 구멍을 내었다. 꼼꼼하기 그지없는 상급무전수는 그 구멍을 기워주느라고 배낭을 헤치다가 뜻밖에 련희의 귀중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보자기에 정하게 싼 연분홍색 비단천이었다. 상급무전수는 때마침 무선차에 들어서는데 련희에게 그것을 쳐들어보였다.

《이제 무슨 천이야?》

《...》

《군대에 입대할 때부터 가지고 온건가?》

련희는 가까스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혼자소리처럼 속삭이였다.

《이 천은 꼭 레장갑같아 보이네.》

련희는 자신도 모르게 두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사실이였다. 그것은 련희의 레장갑이었던것이다. 광숙의 우연한 질문에 고지식한 련희는 미처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였다.

련희보다 나이 세살이나 우인 광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련희, 울지 말아. 난 네가 다 좋은데 이럴때 질색이야. 난 모든걸 모르지 않니. 어서 말해보렴. 어떻게 된 일이야...》

상급무전수의 안타까운 질문에 련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물기어린 커다란 두눈을 쳐들었다.

《전쟁이 아니라면 우린... 결혼했을거예요.》

《그렇게 빨리 ...》

고요속에서 놀라움을 억제하는 상급무전수의 속삭임소리가 들렸다.

《우린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들의 운명이 해방전부터 그이와 인연을 맺어놓았어요.》 련희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서려있었다. 명상에 잠긴듯 싶은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하염없는 추억의 잔물결이 일었다. 《우린 고아였어요. 그인 선주님의 인력거를 끌었고 전 안주인년의 몸종이였답니다. 의지가없는 두몸이었기에 서로 연분이 되었어요》

침묵이 시작되었다. 상급무전수는 더 말을 잊지 못하는 련희의 뜨거워진 손을 조심히 그러쥐며 심각하게 물었다.

《그분도 이 전쟁에 참가했겠지?》

상급무전수가 손을 내밀면 닿을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희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어디 먼곳에서처럼 들려오는것 같았다. 소리없이 머리를 끄덕여보였을뿐이다.

《난 련희의 처지를 이해해. 그리고 그 사랑도 소중하게 여겨. 하지만... 이 전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개인을 생각하기에는 가슴속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레장갑이야 잃으면 다시 마련할수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있는 조국이야... 난 련희가 무엇을 꼭 혼돈한것만 같아 미리 말해두는거야. 무선차가

여기로 출발할 때 무엇때문에 배낭을 통채로 가져올려구 고집했는지 이제야 짐작돼.》

련희는 그만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머리를 떨구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련희, 울음을 그쳐.》 오광숙은 다소 엄하게 부르짖었다. 《너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것이니. 난 널 위해서 말해준거야. 우리야 지금 전투를 하고있지 않니.》

련희는 더욱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상급무전수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지 못할 사연으로 해서 가슴이 더 아프고 답답했다.

어느덧 아침해가 솟았다. 련희는 상급무전수와 의 야릇한 오해로 해서 번잡해진 고뇌를 잊을겸 아침밥을 지으려 샘물터로 갔다. 물고기통줄임까지 덤혀가지고 무선차로 올라오는데 포병참모와 상급무전수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직이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 사포군의 사정을 리해하여주요.》 포병참모가 석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과람지기때문에 무전수들을 잃다보니 동무네 중 한명을 보내는수밖에 없소.》

《포병대대 감시소엔 제가 가겠습니다.》

상급무전수의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련희에게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그럴줄로 믿었소. 헌데말이요. 어제밤 련희와 다투기라도 했소? 밤에 무선차를 보러 왔다가 서로 언짢은 기색들 같아 그냥 되돌아갔겠소. 동생같은 전사를 올릴 필요야 없지 않소.》

《제가 련희동무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머리를 쓰는것만 같아 좀 싫은소릴 했습니다. 제가 지나쳤나봐요.》

《무슨 문제데?》

상급무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포병참모는 통명스럽게 다시 물었다.

《련애문제요?》

《아이참...》

《알만하오, 알만해. 그런것 같소. 하여간 마음속들이 편하오.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지고 게다가 사단이 위협에 처해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다니.》

상급무전수가 당황한 눈길로 포병참모를 바라보고있었다.

《이건 녀성들의 개인문제일뿐이에요. 참모동진 더 간참 안해도...》

《간참 안하게 했소? 이제부터 무선차를 그 동무가 혼자서 맡게 되기에 하는 소리요. 그래 그 동무에 대하여 동무가 책임지겠소? 이 무선차의 사명을 말이요.》

상급무전수는 하소연 어린 눈길로 포병참모를 쳐다보았다.

《제 마음도 복잡하군요. 갈피를 잡을수 없어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할수 있다면 군단이나 사단에 실태를 알려 련희와 함께 있게 될 무전

수를 부탁해주세요.》

련희는 가슴이 한줄만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포병참모의 답답한듯한 기침소리가 들렸다.

《좌우간 동문 떠나오.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무전수를 보충받는수밖에 없지.》

련희는 밥통을 손에 쥔채 그자리에 그냥 서있는 상급무전수며 감시소쪽으로 걸어가는 포병참모를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작별의 그 시각 광숙은 얼굴의 그늘을 감추지 못하며 련희의 두손을 모아잡았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정말이지 애인에 대해선 걱정말어. 군단에 돌아가면 내가 알아봐줄게. 난 여러 통신초소들에 아는 동무들이 많으니까.》

오광숙은 언젠가 포병참모가 기념으로 준 쌍안경을 내보였다.

《이건 내가 가지고 가겠어. 전문을 날리고 여가 시간엔 둔덕우로 나와주렴. 여기서 포병대대가 있는 야산이 잘 보인다. 난 언제나 련희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싶어.》

상급무전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련희를 한참 지켜보다 말고 그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련희는 무선차에 홀로 앉아 상급무전수와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다 말고 한구석에 놓여있는 자기의 배낭에로 눈길을 돌렸다. 입대할 때 그 물건(레장감)을 들고온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를 내심 돌이켜보았다.

(아니야, 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어. 내 심장이 그걸 요구했어.)

그러자 방금전에 무선차에 왔던 포병참모의 눈길이 생각났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듯싶다.

《그래, 무선차를 지나치다 다 들었소. 하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요. 나도 젊은 군관인데 처녀들의 사생활을 엿들은건 점잖은편이 못되지. 하지만 동무, 여기는 레장감이나 들고다닐 꽃동산이 아니요. 알겠소?》

(아니 그런게 아니예요. 정말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련희는 그만 무선대우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자 하염없는 추억이 그를 자꾸만 과거에로 이끌어갔다.

해 저무는 바다가 백사장이었다. 두 청춘은 붉게 핀 해당화나무밑에 나란히 앉았다.

저 멀리 지평선우에는 장미빛노을이 어려있었다. 그 빛을 받아 바다도 금빛으로 번쩍거렸다. 여지껏 한두번 만난것이 아니건만 웬일인지 철용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마침내 그는 애뜻하게 련희를 지켜보더니 주저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련희에겐 이 세상에서... 무슨 색이 제일 곱나?》

련희는 철용의 물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알지 못한채 수집게 웃었다.

《난 분홍색이 제일 고와요. 동문?...》

《나도... 나도 역시 그래.》

《아이참, 생각두 안해보구 그저 내가 좋단니까,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제길,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결혼식을 앞두고 나도 뭐 준비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소비조합상점에 갔댔어. 분홍색 고운 비단천을 보느라니 해방되기 한해전의 일이 생각나더군.》

철용은 수평선 저 한끝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련희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바로 선주님의 딸년이 시집가던 날을 련희도 잊을수 없을거야. 그년의 방을 거두던 련희가 새로 지은 분홍색비단이불을 만져본것이 《죄》로 되었지. 지금도 눈에 선해. 딸년이 이불을 더럽혔다 야단을 치구, 안주인년이 련희의 손목을 자르겠다고 덤벼들던 일두...》

련희는 그만 머리를 푹 수그렸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철용동무가 짙막아 안주인년을 밀쳐버리구 그제 《죄》로 되어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나요... 선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같은건 짐승이었지요. 부리다 힘 못쓰고 제말을 잘 안들으면 도살장에 보내버리는 소나 말같은 짐승이었지요.》

철용은 설움어린 련희의 목소리에 가슴이 몽클했던지 다시금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하여 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 어느사이엔 련희 체신전문학교를 다 나오구. 난 어로공이 되고... 정말이지 해방이 되어 련희를 찾아올때 우리가 이런 사이로 되리라곤 생각 못했어. 부모 친척없는 내가 아무데나 놀러왔으면 뭐라나.

그렇지만 철없는 마음에도 징용에 끌려가던 날 눈물에 젖어 날 바라보던 련희 잊을수 없더구만. 더우기 이고장으로 돌아오던 날 열여섯살 홀몸으로 역에 나와있는 련희 보았을 때 난 울었지. 련희도 울고...》

철용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갑자기 밝은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난 소비조합상점에서 제일 고운 분홍색비단을 골랐어. 련희는 분홍색이 제일 곱다고 하였지. 이제 다시는 선주님께 집 비단이불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것때문에 화를 입지 않아도 돼. 이건 내가 련희에게 주는 레장감이야.》

철용은 아까부터 감추어오던 종이꾸레미를 련희의 무릎우에 불쑥 올려놓았다.

련희는 그만 모닥불을 뒤집어쓴듯하여 자기의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웠다. 그리고는 눈물에 젖어 속삭였다.

《누가 그런걸 생각하래요!...》

철용은 흥분에 어깨를 떠는 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자소리마냥 중얼거렸다.

《난 런희를 사랑해…》

새삼스러운듯한 그 말에 런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두손을 내리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어쩌면… 어쩌면…》

런희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가쁜숨을 툴아올릴 뿐이었다.

《건 뭐야. 싫다는거야.》

《누가 뭐 싫다나.》

런희는 그만 걱정에 못이겨 끝없이 흐느끼었다.

철용은 잠시 앉은자리에서 뻗건 얼굴을 어떻게 전사할지 몰라하더니 자기의 열띤 몸을 식히기라도 하듯 옷옷을 벗어던지고 바다속에 침범 뛰어들었다.

《어참, 시원하다.》

철용은 마치 수영경기나 하듯 팔을 휘휘 내젓다가 물속으로 곧두박혀 사라졌다.

《나오세요. 아이참, 위험해요!》

런희는 물가에 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웨쳤다. 갑자기 밀려온 파도가 그의 머리와 얼굴, 온몸에 바다물을 들썩였다. 런희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 앉았다. 그런데 어느사이엔가 철용이가 물참봉이 된 런희의 손목을 잡아끌어주었다.

런희는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에 겁을 먹기라도 한듯 철용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행복이 그의 온몸을 휩싸안은듯싶었다. 두눈을 꼭 감자 《썩!》 하는 파도소리가 그의 귀에 별스레 크게 울려왔다. 두몸의 애정은 강렬한 액체속에 녹아버린듯싶었다.

그들은 서로 부축하며 백사장으로 나왔다. 모든것이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세상천지가 꿈처럼 보였다. 금빛으로 출렁이는 가없는 바다도 태양의 열도가 아직도 채 가셔지지 않아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모래도 그리고 황혼을 받아 더욱 수줍게 웃는듯싶은 해당화도 모두 자기와 그리고 또 자기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미더운 철용이를 위해서만 생겨난것 같았다. 금시 생활에 대한 희망이 가슴을 부풀게 하였다.

런희는 저발치에서 젖은 옷을 쥐여짜고있는 철용이를 부끄럽게 외면하며 해당화꽃송이를 꺾어들었다.

(어쩌면 이렇게 고을가.)

런희는 그 꽃송이의 아름다움이 왜 그다지도 심장속에 깊이 파고드는지 알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보이더니 지금은 래일에 대한 환희와 사랑이 그 떨기떨기에 흐르는듯싶었다. 그 시각 자기들을 떼어놓게 될 운명이 있으리라 고는 상상도 해낼수 없었다.

《운명…》 하고 런희는 무선기앞에 앉은채 하염없이 머리속을 흘러가는 추억의 물결우로 이런

속삭임을 던졌다. 《그랬어. 그다음에 전쟁이 터졌다. 미구에 있게 될 레식도 나의 수집음도 행복도 그속에 휘말려들어갔다. 며칠후 전선으로 떠나는 그일 바래우기 위하여 역으로 나갔지!》

런희는 그때 역에서 본 철용의 모습을 추억해 보려고 애썼다. 그 추억은 몇번씩이나 떠오를듯하다가 허리의 진통으로 사라져버리곤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피로한 머리에 생각이 되살아났다. 런희는 그때 모든 행복이 깨어져버리는듯한 불안과 공포, 터져나오는 설음을 물리쳐가며 품속에 건사한 종이쪽지를 꺼내었다.

《철용동무, 여기에 우리의 집주소가 있어요! 전 이 집에서 동무의 편지 기다리겠어요.》

《집이라니?》

《동무가 바다로 나간 사이에 집을 받았어요. 용서하세요. 전 동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남몰래 그 집을 꾸렸어요. 얼마나 아담한 집인줄 몰라요.》

런희는 소심한 눈길로 다시금 철용이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전, 기다리겠어요. 미국놈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을 기다리겠어요.》

철용은 웬일인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섭섭한 눈길로 런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따뜻이 말했다.

《런희, 정말 천진하구만. 그래 내나 동무의 행복이 전부 그 집안에 있단 말ियो? 키낮은 율타리를 친 그 집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줄수 있는가말ियो.》

...

런희는 무선기앞에서 머리를 쳐들었다.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는 아까부터 추억속에서 철용의 그 얼굴모습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렇다. 그 얼굴표정은 나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 집이 몇달후에는 어떻게 되었던가. 미국놈의 폭탄에 불타버렸지. 연기가 펄펄 이는 집옆에서 눈물짓고있는 바로 그때에 그이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날아들었다. 그다음 나는 전선을 탄원했다.

요행 타다남은 의농에서 레장감을 꺼내여 배낭에 간수하고… 하지만 그것을 배낭에 간수하던 내 감정은 그 물건에 대한 단순한 애착감이 아니었다.)

런희는 무선기를 한품에 그리안으며 두눈을 꼭 감았다. 멀지 않은곳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아니었다면 그의 생각은 끝이 없을것이였다. 그는 자동차은폐호에 빈틈없이 위장된 무선차였지만 또 다시 달려들 적폭격기로 하여 불안스러웠다. 그는 허리의 아픔을 간신히 참으며 그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까스로 무선차에서 내려 폭격에 흐트러진 위장그물을 바로 씌우고 둔덕우로 한걸음한걸음 걸어 올라갔다. 상급무전수가 가있을 포병

대대감시소가 있는 야산이 저 멀리 바라보였다.

《상급무전수동무, 격정마세요…》

련희는 속삭였다. 그칠나 무선차쪽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무! 정신있소? 그우에서 뭘하는거요? 비행기소리가 안들리오?》

련희는 흠칠 뒤로 머리를 돌렸다. 전보용지를 손에 쥔 포병참모가 날카로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영문도 가려볼사이 없이 고압산마루로 불시 적폭격기가 날아들었다. 련희는 당황했으나 허리에 입은 부상을 숨기려고 우정 천천히 무선차쪽으로 걸어내려왔다. 하지만 그것이 포병참모의 눈에 더 거슬리게 될줄이야…

《잘하오. 여기가 평화시절의 뒤동산인줄 알고 있지 않소? 흠… 동무네 통신대대 지휘관들두 쉼경들이 좋구만, 폭탄세례두 못받은 순진한 처녀를 들놀이 보내듯하는걸 보니…》

포병참모의 성난 마음을 부추기듯 적폭격기에서 내던진 폭탄이 고지 어데서인가 지심을 울리며 폭발하였다. 그는 큰소리를 친것이 안됐던지 부드럽게 일렀다.

《시간이 없소. 몇십분후이면 사단이 총반격에로 넘어가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보문을 정확히 쳐야겠소.》

포병참모는 잠시 선자리에서 미덥지 못한 눈길로 련희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손목시계를 다시금 들여다보고나서 급히 감시소로 달려갔다.

련희는 포병참모의 추궁을 더 깊이 생각해볼사이 없이 급히 무선차로 들어갔다.

무선기에서 《삐-삐-》하는 신호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련희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쓰고 먼저 응답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공개전문으로 다음과 같은 전파가 날아왔다.

《…얼굴표정 쌍안경으로 보았다. 너무 긴장하다. 사기를 낼것! 상급무전수 오광속!》

련희는 가슴이 뜨거웠다. 규정에 위반되는 이런 부호를 날릴 때에는 자기에겐 신심과 용기를 주기 위한 상급무전수의 의도가 분명하였다.

《고마와요. 상급무전수동무…》

련희는 입속으로 속삭이며 포병참모가 준 전보문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비행기의 동음소리가 갑자기 무선차우에서 더 크게 들렸다. 전파탐지기가 또 냄새를 맡은듯했다. 가까이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올랐다. 무선차가 놀란 말처럼 경충 들렸다내려앉았다. 그 충격에 허리가 끊어져나가는듯한 예리한 아픔이 내장속으로 휘감아쳤다.

《아!…》

련희는 숨가쁜 비명을 지르며 전건우에 머리를 박았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였다. 아리송한 환경속에서 누군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아! 그것은 것처럼 사랑하던 철용이었다. 《련희! 정신을 차리오. 동무의

의지가 그게 전부였다면 무엇때문에 군복을 입었소?》 련희는 철용의 절절한 그 목소리가 심장에 부딪쳐와 목메여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부끄러워요. 동무가 전선으로 떠날 때 저도 곧 그 길을 택하여야 했었지요. 집주소를 적어주며 당신의 행복만을 하소연한 절 부디 용서하세요. 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련희는 힘껏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 신경이 토막난듯한 손가락마디에 힘을 모아 전건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주위에서 작렬하는 폭음에 대하여 이미 느끼지 못하였다. 20 조, 30 조… 전문은 거침없이 대공을 날았다. 나머지 10 조… 그 순간, 또다시 무선차를 들었다놓는 요란한 폭음을 느끼며 련희는 무작정 무선기를 그러안았다. 때는 늦었다. 전면관에 커다란 파편구멍이 생겼고 《썩!》하는 소음만이 수화기의 진동관을 울렸다. 끝내 우려하던 그 시각이 도래하고야말았다.

련희는 마치 구원을 바라기나 하듯 경황없이 무선차안을 둘러보았다. 배낭 하나만이 오도카니 앉아 련희를 동정하는듯했다. 그안에는 레장감이 있었다. 삽시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철용의 노여운 눈길이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

《련희, 그게 어떤 레장감이요. 조국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었소. 바로 그 사랑을 조국에 다시금 아낌없이 바쳐야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동문 때늦게나마 깨닫지 않았소. 그래서 전선으로 안고온 레장감이 아니요.》

고뇌를 누비며 흐르는 시간과 함께 련희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밖에서 비행기의 동음은 지나갔지만 적포탄이 터지는 소리는 끊길줄 몰랐다.

불현듯 전문을 기다리고있을 상급무전수의 모습이 안타깝게 떠올랐다.

(아마 쌍안경으로 여기 둔덕을 살피고있으리라…)

순간 련희의 머리에는 번개치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무선기는 파괴되었어도 몸은 아직 움직일수 있다.

《수기!》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련희는 급히 배낭을 풀어헤쳤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홍색비단천이 손에서 흘러내렸다.

(아참, 내가 왜 진작 이걸 생각 못했담!)

수기법에 대하여서는 체신전문학교시절에 이미 배워둔것이였다. 더우기 입대후 훈련상학시간에 다시금 숙련해왔던지라 크게 걱정될것이 없었다.

련희는 레장감을 네각으로 찢으려고 무릎우에 쳐들었다가 웬일인지 그것을 도로 내리웠다. 아름다운 비단천에는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던 애인의 뜨거운 광채가 그대로 비껴있었기때문이다. 삽시에 분홍색바탕의 레장감우에 철용의 미소어

린 얼굴이 우뚝이 나타났다. 어쩌면 백사장의 그 저녁, 장미빛노을을 함뿍 담아 밝게 웃던 그 모습과 꼭 같을까!

련희는 그만 레장감우에 한껏 불을 비비며 절절히 속삭였다.

《철용동무,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과 행복은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 그래요. 저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어요.》

마침내 련희는 더 주저하지 않고 비단천을 무릎위에 다시 쳐든후 그것을 왼 랑손끝에 힘을 주었다.

《작!-!》

순식간에 비단천은 기폭으로 변해버렸다.

련희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할사이 없이 무선차에서 뛰어내려 산등성이위로 기어올라갔다. 그는 믿었다. 중간에서 동강난 송신문을 두고 상급무전수가 쌍안경으로 고압산을 지켜보리라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포병대대 지휘소의 모든 군관들이 사포군감시소를 주시하고있을것이다.

련희는 숨차오는 가슴을 안고 기폭을 높이 쳐들었다. 맞받아오는 바람에 기폭은 세차게 펄럭이었다. 련희는 머리에 기억해두었던 나머지 10조의 전문을 기폭에 담아 힘있게 팔을 저었다.

…31! … 51! …71!…

또다시 주변에 포탄이 터지며 모래알들이 련희의 붉게 상기된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련희는 부상당한 허리의 아픔도 잊은듯 더 힘있게 기폭을 흔들며 부르짖었다.

《철용동무, 이 기폭을 보세요. 이건 우리들의 레장감이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우린 그걸 잃지 않았어요. 아니, 지켜냈어요!》

웬일인지 윈다리에 맥이 풀렸다. 련희는 자꾸만 옆으로 기울어지는 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신발밑이 끈적거리며 발이 미끄러졌다. 파편이 스치고 나간 장판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신발을 적시고있음을 그는 알수 없었다.

분홍색기폭은 더 눈부시게 펄럭이었다. 수기의 랑색이 왜 모두 붉게 보이는지, 또 그토록 힘있게 펄럭이는지, 어떻게 그런 미더운 용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련합부대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반격으로 넘어가고있는 수천의 병사들은 아직은 참호뒤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

머칠이 지났다. 련희는 야전병원의 침대우에 누워있었다. 상급무전수 오광속과 포병참모가 련희를 왔다.

오광속은 침대옆에 앉아 련희의 손을 감싸쥐고 있는데 원래 성격이 무거운 포병참모는 저발치에 서서 죄책어린 얼굴표정을 하고있다.

《지나간 일이지만…》 포병참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상급무전수도 동물 잘 돕지 못했소. 이제나저제나 사단통신중대에 부탁한 유능한 무전수가 오기만을 기다렸소. 그러나 동문 누구보다 높은 각오를 가지고 잘 싸웠소.》

련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오광속은 우정 활기를 내어 미소를 지었다.

《련희, 너의 애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한 처녀를 두었다고, 주소나 대주렴. 네가 잘 싸웠다는걸 우리 중대처녀들의 이름으로 편지해줄게.》

련희는 상급무전수의 이슬맺힌 두눈을 마주보다 말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련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듯 아름다운 두눈을 천천히 내리깔았다.

《그인… 이미전에 전사했어요.》그리고 끝없는 회오에 잠겨 속삭였다.

《그이가 전선으로 떠날 때… 전 새로 받은 집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일이 늘 저를 괴롭힌답니다. 그이가 숨을 거두면서 정말이지 저같이 천진한 너자에게 커다란 복수를 부탁할수 있었겠는지…》

련희를 지켜보는 상급무전수와 포병참모의 눈길은 굳어져버린듯싶다.

광속은 흐느끼듯 부르짖었다.

《련희, 련희 자기 사랑의 마지막 전부를 깡그리 바쳤어. 이 전쟁에 깨끗한 량심을 바쳤어.》

유난히도 밝고 따사로운 해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었다.

련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고마와요… 하지만 절 위안하지 마세요. 그이가 살아있었을 때 제가 이런 결심을 내렸다면… 얼마나 몇몇했겠어요. 전 애인을 전선에 떠나보낸 후방의 모든 처녀들에게 말하고싶어요. 그네들의 사랑을 찾아준 조국에 무엇으로 보답하여야 하는가를… 사랑을 알기전에 조국이 귀중함을…》

해빛이 호듯호듯 뛰는 아늑한 병동의 호실안은 끝없는 침묵에 잠겼다. 고요한 정적속에서 련희의 속삭임이 수정이 울리는 소리처럼 그냥 울려나오는것만같다. 이렇게 호소하는것만 같다. 《너성동무들, 조국이란 커다란 가정속에 개인의 자그마한 가정이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위훈자의 걸음새

한익훈

비상한 감흥을 자아내던 곳도 찾아가는 일이 잦으면 점차 범상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금성프락토르종합공장에 찾아가는 때마다 어쩐지 처음 와보는 듯만 싶은 후더운 정에 사무치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높은 위훈을 떨쳐가는 이 공장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에서 내 은연중 초행길의 강렬한 충동에 어쩔수 없이 휩싸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에 나는 새로운 200 일전투로 들끓는 금성프락토르종합공장을 또다시 찾아갔다. 몇달만에 찾아보는 감회가 무등 컸다. 더더구나 이번에 이미전부터 면목이 있는 공작기계직장의 조립공 문광일동무를 만나보고 위훈으로 빛나는 작품의 주인공을 찾은 듯싶어 자못 기뻐다.

영웅적 위훈을 떨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서 값있는 삶, 보람찬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만나는 때마다 여불없이 커다란 두손에 기계기름이 번들거리는 문광일동무는 인젠 50대의 나이에 들어섰지만 온몸에서 여전히 패기와 정열이 내뿜기는 것 같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다. 크지 않은 키에 둥스름한 얼굴에는 노상 깊은 사색이 떠돈다. 기계를 조립하거나 설계도면을 들여다볼 때면 언제나 한눈을 가느스름히 쏘프리는 습관이 있다.

통털어 그한테서 빼여지게 특징적인 구석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구태여 특징을 잡아낸다면 《유명하게》 말이 적은 것이라고 하겠는지?... 사람들은 그더러 말보다 실천이 큰 사람이라고 즐겨 말한다.

하긴 말없이 수직수직 수다한 기계를 창안제작한 문광일동무다. 첫 《천리마》호 프락토르를 만들어낸 때로부터 30여년간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가 만들어낸 공작기계들을 일일이 다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베트가공자동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한 그는 오늘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온 나라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공훈기계제작공에 새기술 혁신의 봉화상수상자이다. 그리고 전국영웅대회에 참가하여서는 영예롭게도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거듭되는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여섯달에도 바쁘다던 베트가공자동선을 두달동안에 만들어냈던 때에 그가 한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첫 〈천리마〉호 프락토르를 만들어냈을 때 신비주의가 또하나 부서져나갔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셨수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별로 숨차게 여겨지지 않수다.》

절절하게 울리는 그 소박한 말에서 나는 아무리 힘겨운 일이 천만산악으로 막아나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이라면 기어이 해내는 것을 삶의 지향으로 삼고있는 그의 티없이 맑고 뜨거운 충성심을 감동깊이 절감했었다.

금별의 수훈자로 된 끝없는 영광을 안고 전국영웅대회장에서 돌아온 문광일동무는 새로운 200일 전투에 들어서면서 두대의 공작기계를 제작완성한데 이어 새로운 형의 변속합본체다축후라이스반을 창안제작하는데 달라붙었다. 내가 찾아갔을 때 그는 한창 그 기계의 조립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었다.

나는 이런 기계를 그가 이미 오래전에 창안제작한 사실을 알고있다. 그 기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공장이 환성을 올렸는지 모른다. 그 기계는 오늘도 가공조립직장에 믿음직하게 자리잡고 앉아 높은 생산능률을 보장하고있다.

그런데 그 이름높은 기계를 오늘은 3배의 능력을 낼수 있도록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어제날의 능력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세배로 높인다는 정녕 레사롭지 않은 사실을 헤아리는 순간 나의 가슴은 몹시 벅차올랐다.

바로 이것이다.

당과 수령이 안겨주는 신임과 배려가 크면 클수록 보다 큰 위훈을 떨쳐가는 문광일로력영웅의 그 믿음직한 걸음새, 정녕 이처럼 시간마다 걸음마다 온 공장이 자신들이 쌓아올린 위훈을 더 높여나갈진대 어제도 오늘도 내 언제나 초행걸음의 뜨거운 감동에 잠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래일도 물론 그럴것이다.

3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선반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리선두동무, 방대한 량의 주물

자동주조선설치를 머지 않아 완전히 끝낼 기세로
 일손을 다그쳐가는 김영호, 박봉희 동무를 비롯
 한 현대화기술집단의 전투원들, 새로운 강재의
 질을 높이는 연구성과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공업시험소의 김지문실장...
 참으로 공장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나는 영웅적
 으로 살며 투쟁하는 시대의 거세찬 발구름소리를

북받치는 격동속에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렇다. 나날이 더 힘차게 내닫는 위훈자들이
 있어 여기 출하장의 문이 मे게 무쇠철마의 거창
 한 대렬이 흘러나온다.
 하여 농촌테제 완성의 축포가 조국의 푸른 하
 늘에 승리의 꽃보라로 황홀하게 터져오를 목메이
 는 감격의 그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는것이다!

산중의 《바다》여

박창민

이 가슴의 환희와 기쁨을 터치며
 또 한발과 울리고 산정에 서니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
 이제 파도쳐 설레일 물결인가
 위대한 전변의 래일이
 눈앞에 펼쳐저라

수령님의 손길따라
 유구한 그 흐름을 바꾼 강줄기들
 여기로 흘러들어
 저 멀리 아득히 펼쳐놓은
 아, 북방의 《바다》여!

구름을 휘감고 솟은 수려한 산발
 푸른 물에 몸을 잠그고
 파도에 실린 《섬》들인가

천하절경 펼쳐놓은
 이 《바다》가 하도 좋아
 떼지어 날아들 서해갈매기
 무리져내릴 사슴떼...

설레는 물결을 헤가르며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유람선 경쾌히 달리고
 배고동소리 정다운 화물선
 산촌의 포구를 떠나리

밤하늘 태우던 화불
 창가에 꽃으로 떨기지리
 행복한 새 삶을 펼친

《바다》가마을 문화주택
 웃음넘친 그 창가에서
 아이들은 노래도 부르리

병사의 기쁨과 희망이
 병사의 열정과 리상이
 아름답게 꽃피는곳
 여기 태천발전소 건설장에서
 날마다 안아보는 래일의 기쁨이여

설계가는 벌써
 휴양소의 마지막설계를 끝내고
 여기 《바다》의 첫 선장
 항로를 정하러 해도를 펼쳐들고
 첫 신히려행을 여기로 정한
 젊은이들 남몰래 가슴설레여라

아, 래일에 대한 희망과 환희로
 청춘의 가슴 부풀게 하는
 태천발전소 건설장이여
 댕차오르는 행복을 안고
 대건설행군을 다그쳐가는
 청춘의 활무대여!

종구나!
 위대한 전변의 래일을 그리며
 여기 산정에 서니
 불어오는 바람조차
 나에겐 해풍처럼 느껴지고
 아, 산중의 《바다》가 보인다
 행복의 바다가 보인다

사색과 탐구의 발걸음

- 중편소설 《향토》의 정서적 향기-

리용일

사색에 사색을, 탐구에 탐구를, 이는 오늘 우리 당의 요구이며 우리 독자들의 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발견하고 개척하려는 탐구정신이 강하여야 합니다.》

설사 한편의 성과작을 내놓았다 해도 만족할새가 없다. 그것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내달리는 《준마》에 박차를 가하는 채찍으로 여길것을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김삼복의 중편소설 《향토》를 반갑게 대하게 된다.

무릇 문학은 주제와 성격의 독창성과 심오성, 예술적 형상의 참신성과 혁신성으로 자기 발전의 걸음걸음을 내짚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은 우리 주체의 소설문학발전이라는 큰걸음에 자기의 걸음을 당당하게 맞추고있다. 이 소설은 향토애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과 구별되는 의의있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예술적 형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자기의 매력있는 얼굴로 독자들을 끌고있다.

중편소설 《향토》에서 우리는 특히 작품의 감정정서를 옹골게 살리기 위한 소설가의 사색과 탐구의 발걸음을 똑똑히 느낄수 있다.

몇해전에 나온 같은 작가의 중편소설 《세대》도 독특한 향토적인 정서가 강하게 풍기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였다. 그 소설의 정서는 산뜻하고 다감하면서도 발랄한 색채를 띠었다.

이번 중편소설 《향토》의 정서적 색깔은 심각하고 열렬하면서도 웅심깊다. 이 소설의 정서는 향토란 말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겨 향토를 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게 한다.

이 소설에서 정서가 어떻게 되어 독특한 색깔을 띤것으로 살아났는가? 사상적 심도가 보장된 정서로 살아날수 있는 요인은 어디 있는가?

(1)

중편소설 《향토》의 주인공 오근풍, 그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향토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 일하는 참된 당일군이며 숨은 공로자이다.

그지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당정책을 받들어 이신작척하면서 향토를 꾸려가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으로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사실상 주인공의 성격은 작품의 정서적 특징을 규정짓는데서 기본요인으로 된다. 주인공의 성격을 옹골게 형상하여야 작품에 정서가 원만히 살아날수 있다.

X

그러면 중편소설 《향토》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작품의 정서를 돋구어주는데 어떤 긍정적 작용을 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향토란 무엇인가? 진정한 향토애란 과연 어떤 것인가? 주인공 오근풍의 심장은 이런 문제에 대답을 주면서 힘있고 세차게 뛰는것이다. 제기된 문제는 얼핏 보건대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지어 초보적인듯싶다. 허나 그것은 심오한 의미가 담긴 심각한 문제이다.

향토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대답할수는 있지만 거기에 담긴 깊은 뜻과 참된 의미를 모두 똑같이 인식하는것은 아니다.

향토란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진정으로 향토를 사랑하는 보람있는 길을 걸을수 있으며 반대로 향토를 배반하는 진창길을 걸을수도 있다.

향토에 대한 리해는 향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규정짓는데서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오근풍의 가슴속에 간직된 향토란 어떤것인가?

향토-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나서자란곳만은 아니였다. 그것은 보람찬 삶을 안겨준 어버이장군의 품이었으며 고향땅을 위해 선렬들이 뿌린 고귀한 피와 땀이며 숭고한 념원이기도 하였다.

오근풍이 축산을 하고 다락밭을 만들며 대를 이어 고향땅을 꽃피워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등 향토를 꾸리는 일에 일생을 바칠수 있는것도, 향토를 위한 시련의 고개길도 추호의 동요없이 넘

을수 있는것도 향토에 스며있는 참뜻을 체질화하고있는데 있다.

이처럼 소설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하고 초보적인듯싶지만 의미심장한, 심각한것이다.

문제의 참신성은 향토애주체의 작품들과 대비속에서 고찰해볼 때 더욱 뚜렷이 두드러진다.

중편소설 《세대》에서 주인공의 성격에는 고향땅을 지켜갈 새 세대의 참된 행복에 대한 문제가 실려있다.

이 문제는 애젊은 농촌청년인 주인공이 로세대 혁명이 최명서아바이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점차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혀지고있다.

영화문학 《도라지꽃》에서 주인공은 고향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은 어떤 인간이 지닐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밝히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영화에서는 청춘의 사랑도, 꽃다운 생도 향토를 위해 바친것으로 하여 고향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송림의 생활을 자기 안락을 위해 고향을 버린 결과 살아서도 귀향의 권리를 잃은 원봉의 생활과 대조속에서 형상함으로써 제기한 문제를 예리하게 밝혀내었다. 향토애문제를 《세대》에서는 새 세대의 참된 행복에 대한 문제와 연관속에서, 영화문학 《도라지꽃》에서는 영생하는 삶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문제와의 연관속에서 제기하고있다.

중편소설 《향토》에서 주인공 오근풍의 성격에 비친 향토애문제는 향토에 대한 참다운 인식, 옳바른 이해와 결부된것이다. 이처럼 《향토》에서는 참신할뿐아니라 심각성을 띤 의의있는 문제를 주인공의 성격에 체현시키였다. 하여 작품의 감정정서도 심각하고 예리한 자기 교유의 색깔과 사상적 깊이가 보장된것으로 살아날수 있었다.

X

작품의 감정정서를 옹게 살려내기 위한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중요한것은 생활을 특색있고 깊이있게 묘사하는것이다.

앞서 본 문제성에 대한 탐구는 감정을 체험하는 인간성격의 주관적 측면과 관계되는것이라면 생활묘사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측면과 연관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감정의 바탕은 현실이다. 현실생활을 떠나서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주인공의 생활을 특색있고 깊이있게 묘사할 때 감정정서가 옹게 살아날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근풍의 생활에 대한 묘사가 그에 대한 좋은 레증으로 된다.

소설들에서 특히 장편소설들에서 주인공을 정면에 내세워 생활을 묘사하는것은 흔히 볼수 있

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중편소설 《세대》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편소설 《향토》에서는 도형이, 영금이, 명호들을 정면에 내세워 주인공 오근풍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주인공의 생활묘사에서 새로운 특징이 있다.

이 형상적 특징으로 하여 세 인물들이 걷는 생활의 길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것은 주인공의 생활과 정서적 색깔을 옹게 살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소설에서 도형이가 진정한 향토애를 간직하기까지의 생활을 모를 세워 심각한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과정으로 그려내었다. 도형은 자기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안겨준 어머니가 어째서 고향을 떠는가 하는 비수같은 물음을 안고 모대긴다. 성장하면서 향토의 귀중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물음이 도형에게 불만의 구름을 몰아왔다.

그러나 그는 향토를 위한 참된 걸음을 내디디면서 마음속으로 고향사람들앞에 어머니의 잘못과 괴로움까지 자기가 받아안겠다고 사죄하며 새 결심을 하는것이다.

어머니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한 의문과 불만, 이해와 사죄, 새 결심으로 이어지는 도형의 굴곡있는 감정변화발전은 곧 그가 진정한 향토애를 간직해가는 생활과정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활과정은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결부되어 펼쳐진것으로 하여 심각성과 예리성을 띤다. 도형의 이 생활이 어떻게 되어 오근풍의 생활을 보여주는것으로 되었는가?

도형이 걷는 생활의 자국마다에는 오근풍의 노력이 스며있는것이다. 도형이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켜 수년간 노력한 끝에 아버지가 전사한 소식을 알아내어 도형이네를 찾아온 오근풍, 도형에게 선렬들의 피가 깃든 향토의 넋을 잊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오근풍, 이런 도움으로 하여 도형은 어머니의 사랑에 못지 않게 소중한것으로 향토를 생각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생활을 통하여 오근풍의 가슴속에 간직된 향토애, 그것은 곧 피흘린 선렬들에 대한 의리의 세계이며 그 의리는 혈육의 정을 초월한 숭고한 감정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명호가 《치안대》에 끌려갔던 형때문에 프락트로운전수가 되려는 소박한 희망과 소원마저 이룰수 없어 고민하고 동요하다가 오근풍의 도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안고 새 생활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도 대담하고 예리하게 그려냄으로써 오근풍의 가슴속에 간직된 향토애, 그것은 오로지 땅을 밟고 따르는 신념에 기초한 사상감정이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이러한 특색있는 생활형상으로 향토적인 감정정서는 심각하고 예리하면서도 열렬하게 자기 교유의 색채가 두드러지면서도 사상적 깊이가 보장된것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오근풍의 생활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은 또한 그의 사상정신적 바탕을 특색있게 밝혀낸것이다.

작품에서 인물들의 사상정신적 바탕을 특색있게 형상할 때 작품의 감정정서도 깊이있고 독특하게 살아날수 있다.

이 소설에서 오근풍의 사상정신적 기초를 이루는 생활은 그의 말을 통하여 펼쳐지고있다. 그는 편안한 자리로 옮겨갈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난날 짓밟힌 고향땅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운암이 무슨 고향다운 고향으로 되었겠나! 내 처 정임이도 그렇지… 어느날 잠을 자다가 깨나보니 안해가 자지 않고있더군. 왜 그러는가고 물었더니 <저, 편지를 올리면 어떨가 해서…> 하지 않겠나. <편지를 올리다니, 어디다?> <평양에… 김일성 장군님께… 버릇없다고 책망하시지나 않을가요?> 내 그래 허허 웃었지만 눈곱이 뜨거워오더군… 정임이는 편지를 올릴 심정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살다가 갔지. 이 땅에 그가 묻혀있지 않나.》

이 말에서 어쩌서 그가 안해없이 딸 하나만을 데리고 살면서 고향을 뜨지 못하는가. 어떻게 되어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향토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게 되였는가 하는 문제들이 밝혀진다.

이런 생활형상은 오근풍의 성격형상의 심오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되고있다. 또한 생활형상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정서를 특색있게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그 독특성의 하나는 주로 주인공의 안해와 련관시켜 생활을 형상한것이다.

우리 소설들에서는 많은 경우 주인공의 사상정신적 바탕을 그의 부모나 또는 동무들, 동료들과의 관계속에서 형상한다. 안해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생활형상은 우리 문학에서 보기드문 례이다.

이 소설에서 그들의 관계를 부부간의 애정의 감정세계로 형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오근풍의 가슴속에 정임은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향토에 피를 뿌린 선렬들의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있는것이다. 이런 형상은 향토에 대한 오근풍의 공민적 감정이 안해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과 결부되어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더욱 심각하고 더욱 열렬하게 살아나게 하는데 이바지되였다.

또한 우리의 일부 소설들에서는 흔히 주인공과 관련되는 인물들의 위훈에 찬 사실, 주인공이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사실 등으로 도식화하여 사상정신적 기초를 밝히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평범한 농촌녀성의 깨끗한 충성심이 비끼 소박한 생활이 오비서에게 충격

적인 파문을 준것으로 처리하여 그 형상이 독특한것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중편소설 《향토》는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의 탐구와 특색있는 생활묘사로 주인공의 성격을 참신하고 깊이있게 창조하였다.

하여 작품의 향토적 감정정서도 심각하고 열렬하면서도 웅심깊은 색깔을 띤것으로, 강한 여운을 주는것으로 살아날수 있었다.

소설가의 사색의 발걸음은 여기서 멎지 않았다.

형상 수단과 수법에 대한 탐구, 여기에서 우리는 감정정서가 옹게 살아난 형상적 요인의 다른 하나를 찾아볼수 있으며 소설가의 진지한 예술적 탐구의 세계를 엿볼수 있다.

(2)

중편소설 《향토》에서는 예술적 수단과 수법들을 새롭게 활용하여 특색있는 형상세계를 강조하였다. 일부 경우에 성과작을 내놓은 다음에 종자와 생활이 다른 다음 작품을 창작할 때 전작품에 맞게 재단된 형상의 옷을 억지로 입히는 편향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향토》의 예술적 특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소설가는 전작품 《세대》에서 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이 작품에서 다시금 힘겨운 예술적 형상의 초행길을 뚝뚝하게 걸은것이다.

감정정서의 참신성과 심오성은 특색있는 형상창조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특색있는 형상을 통해서만 작품에 의의있는 생활이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것으로 펼쳐지기때문이다. 특색있는 형상은 형상 수단과 수법의 독창적인 탐구와 창조적인 활용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옹게 살아날수 있도록 특색있는 형상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였는가? 예술적 형상 수단들과 수법들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활용되였는가?

누구나 아는것처럼 구성은 인간성격과 인간관계, 감정정서를 살려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조직을 잘해야 작품의 정서도 옹게 살아날수 있다.

우리는 《향토》의 예술적 형상에서 구성문제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전 중편소설 《세대》는 감성이 예민한 주인공 《나》의 감정변화발전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르면서 생활을 질게 펼쳐보였다면 《향토》는 회상으로 된 구성조직으로 주인공의 성격을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고있다. 두 소설은 구성상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감정정서가 질게 우리날수 있게 조직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렇다. 《향토》는 감정정서가 질게,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우리날수 있도록 최상의 수법을 새롭게 활용하여 구성조직을 하였다.

물론 회상의 수법은 이 소설에서만 쓰인것은 아니다. 언뜻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최근 소설들만 꼽아보더라도 장편소설 《조국과 운명》, 중편소설 《삶의 룰리》,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 《철산봉》 등이 다 회상식 구성법으로 되어있다. 이 소설들에서 회상의 수법은 서로 꼭같은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고있다.

중편소설 《향토》에서도 회상의 수법은 이여의 작품들과 구별이 되게 활용되고있다.

무엇보다도 회상에 들어가기전의 생활정황이 감정정서가 짙고도 독특하게 살아날수 있도록 특색있게 형상되었다.

소설에서 생활정황은 작품의 첫머리에 놓이면서 독자들에게 주는 작품에 대한 첫 인상으로 되는만큼 그것을 어떻게 형상하는가에 따라서 독자들이 작품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작품들에서는 보기드문 뜻밖의 사실이나 심각한 사건으로 생활정황을 펼쳐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 하고있다.

임의의 몇 작품들만 보아도 그렇다. 소설들에서는 한 전쟁참가자를 취재하러 갔던 너기자가 갈라진 옛 애인이 영웅이 된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중편소설 《삶의 룰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옛 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찾아온다든가(장편소설 《조국과 운명》), 오랜만에 보게 된 어제날의 딱친구가 반가와할대신 친구를 피해 달아난다든가(중편소설 《철산봉》) 하는 사실들로 생활정황을 형상하고있다.

이런 생활정황들이 과연 너기자와 애인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으며 취재대상과 옛 애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떻게 되어 친구지간에 원썬가 되었으며 어떻게 되어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가? ...

어째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를 애써 피하는가?... 하는 의문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를 쳐드는 이 의문들은 그 어떤 사건적인 생활이나 인간관계발전에 대한 기대이며 호기심이다. 물론 그 생활정황묘사는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과 작가의 의도에 맞게 된것 만큼 타할것은 없다. 하지만 그것들이 감정정서적 흐름을 기본으로 형상된것이라기보다는 사건적인것이 전면에 내세워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토》에 펼쳐진 생활정황은 특색이 있다. 수도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던 도형이는 고향마을 리당비서 오근풍이가 위급하니 급히 와달라는 전보를 받는다. 소설에서는 눈내리는 그날밤 고향으로 향한 열차에 앉은 도형의 내면심리를 펼쳐보이고있다. 그는 자기몸을 돌보지 않고 한생을 고향땅에 고스란히 바쳐온 룽십나이의 리당비서 오아저씨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오비서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가슴아프게 했는가에 대하여 돌이켜

보는것이다. 이런 생활정황은 어느 소설들과 같이 그 어떤 사건적인 생활에 대하여 강하게 기대되는것은 아니다.

독자들은 오비서에 대한 친숙감, 존경감,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애뜻한 정서세계에 잠겨들면서 그가 어떻게 향토를 위해 일해왔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의문은 향토적인 감정정서와 관련된것이다. 이는 사건적인것보다는 감정정서적인것을 기본으로 생활정황을 묘사하였다는것을 말한다.

정황설정의 독특성은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회상식 구성으로 된 작품들에서는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것으로 내용을 마무리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교차속에서 생활을 형상하는 레도 적지 않다. 이때에는 영화문학 《도라지꽃》과 같이 현재와 과거의 두 생활선이 서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전되는것으로, 또는 중편소설 《철산봉》과 같이 현재생활선이 뚜렷한 사건적인 내용이 없이 과거의 생활을 보여주는데만 전적으로 복종되게 형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이건 소설들에서는 흔히 과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현재생활정황을 발전과정으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형상하고있다.

중편소설 《향토》는 이런 면에서도 도식적인 틀을 깨뜨렸다. 도형이, 명호, 영금이 세 인물을 차례로 내세워 그들의 회상으로 생활을 펼쳐보이고있지만 세 인물앞에 펼쳐진 생활정황은 서로 류사하다. 도형의 경우와 같이 명호도 사정에 처한 오비서를 두고 근심에 잠겨있다. 그는 향방없이 눈길을 걸으며 오비서를 회상한다. 영금이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식없는 오비서의 곁을 떠날줄 모르고 그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는것이다.

이처럼 오비서가 위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세 인물이 처한 현재생활정황의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다.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나 인물들의 심리변화의 측면에서나 별로 큰 구별이 없는 생활정황이 세 인물앞에 펼쳐져있다. 바로 여기에 회상수법을 활용하는데서 정황설정의 독특성의 하나가 있다. 생활정황에 대한 특색있는 형상은 세 인물들이 회상하는 내용이 오근풍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보여주는데 함류되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회상내용도 역시 짙은 정서가 독특하게 살아날수 있도록 특색있게 형상되고있다.

이렇다 하게 일관된 사건이 없는 이 소설에서는 감정정서를 살리는데 복종되는 생활자료들이 선택 배렬되어있다. 이는 물론 이 소설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은 아니다. 중편소설 《세대》만 보아도 감정조직에 모를 박아 생활을 형상하였다. 그러나 회상식 구성으로 된 소설들에서는 회상이전의 생활정황에서 야기된 독자들의 기대와 호

기심에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의외의 사건들과 복잡한 인간관계 발전으로 생활을 형상하는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옳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의문만 잔뜩 가지게 해놓고 생활을 심겁게 형상해버리면 작품에 대한 모호한 인상밖에 줄것이 없기때문이다.

중편소설 《향토》는 정서가 진하게 작품을 꾸미고있는것만큼 구태여 뜻밖의 사건이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발전에 모를 박아 생활을 형상할 필요가 없다. 펼쳐진 생활정황의 성격에 맞게 인물들의 회상내용을 감정정서적으로 펼쳐보여야 한다.

도형이만 보아도 그렇다. 어린 시절에 새알을 가지고 싸움질하던 일이며 리당비서아저씨를 찾아가 밤을 까먹던 사실, 서글픈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나던 일이며 오비서에게 향토의 녀를 느끼는 일 등의 생활자료들은 일관된 사건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도형의 향토적인 감정정서적 기억속에 새겨진것들이다. 이런 생활자료들을 선택배열하여 도형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오비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의 길을 걸을수 있었던 명호나 오비서의 관심속에 고향마을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난 영금들이 돌이켜 보는 지난날도 다 그들의 향토적인 애뜻한 추억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사실자료들이다.

이처럼 특색있는 구성으로 하여 소설에서는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심각하고 열렬하면서도 웅심깊은 색깔을 띠고 우러날수 있었다.



이 작품의 시점설정에서도 우리는 소설가의 지한 예술적 탐구의 발걸음을 느낄수 있다.

1 인칭형식은 많은 생활을 한줄에 걸어쥐고 그것을 짚은 감정정서속에서 보여줄수 있는 우점이 있다. 때문에 단편소설은 물론 적지 않은 장중편소설들도 이 형식을 즐겨 택한다.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경우까지 1 인칭형식을 취하여 그것이 하나의 도식으로 되는 폐단도 있다.

아는바와 같이 1 인칭형식은 생활묘사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인공 《나》가 아닌 다른 인물들의 일기나 편지를 배합하여 생활을 펼쳐보이기도 하며 기자나 혹은 작가인 《나》를 기본으로 내세워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중편소설 《향토》도 1 인칭형식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새롭게 하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나》를 1 인칭형식의 여느 소설

들처럼 한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여러명으로 내세워 생활을 형상하였다. 소설은 세 인물의 이름으로 《장》제목을 달고 한 《장》의 생활은 철저히 그 인물의 시점, 《나》의 시점에서 형상하였다.

제 1 장 《도형의 이야기》에서는 도형이, 제 2 장 《명호의 이야기》에서는 명호, 제 3 장 《차영금의 이야기》에서는 영금이를 《나》로 내세워 생활을 형상하였다. 이처럼 특색있는 시점설정으로 1 인칭형식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우점을 살려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차넘치는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립체적으로, 향토적 정서가 독특한 색채를 띠고 진하게 우러나게 형상할수 있었다.

이 소설의 향토적인 정서를 돈구어낸데서 묘사가 논 역할도 무시할수 없다. 소설에서는 중편소설 《세대》의 긍정적 경험을 적극 살려 향토적인 성격들과 밀착시켜 질게 자연묘사를 하였다. 형상창조에서 전 작품의 긍정적 경험을 옹게 살려 나가는것은 형상세계에 대한 기계적인 답습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인것이다.

또한 소설에서는 향토적인 감정정서가 구수하게 풍겨날수 있는 세부들을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인물들의 감정정서적인 생활속에서 반복하여 분석적으로 묘사하고있다. 도형이네 집 돌배나무나 흰점박이 강아지, 어린 시절의 별명과 관련된 세부들이 레토 된다.

소설은 또한 시적인 어휘 및 문장표현수법들도 향토적인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게 능란하게 활용하였다.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성이 체현된 주인공의 생활에 대한 특색있는 형상, 구성을 비롯한 예술적 형상 수단과 수법에 대한 독창적인 활용, 여기에서 우리는 소설의 감정정서가 원만하게 살아난 형상적 요인들을 찾아보게 된다.

진정 《향토》의 정서적 향기, 이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소설가의 사색과 탐구의 힘찬 걸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중편소설 《향토》는 성과작이다.

이 소설의 성과는 우리 소설가들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 주체형의 인간의 감정정서를 옹게 살려낸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어떤 문제에 낮을 돌리며 어떤 자세로 사색과 탐구의 걸음을 내짚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어머니에게 외 2 편

정성환

이 아들이 며칠째나 병석에 있어
근심된다는 어머니시여
마음놓으시라
이 아들은 이내 돌아가리다

천군만마가 달리는듯
거창하고 드바쁜
대전설전투의 나날속에
나는 이름없는
평범한 사람

하거늘 내 어찌 알수 있었으리까
하늘땅이 달라지는
이 거세찬 전변의 폭풍속에서도
고르롭지 못한 내 심장의 박동소리 가려듣는
사려깊은 손길이 있는줄

그 손길이 나를 병원으로 떠밀어보낼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으리까
들끓는 시대의 한복판을 떠나
잠시나마 병석에 있어야 하는
이 아들을 두고...

허나 나는 폭풍속에서
기슭에 밀려난 연약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이 있어
이 벽찬 격류의 한가운데서
내 숨결은 여전히 높뛰는것입니다

병원의 단조로운 생활속에서도
새로운 신심이 이 가슴속에
무성한 잎을 펴고 설령입니다
어머니시여
참으로 그러한 손길이 있어
이 아들이 바라는 희망의 높은 봉우리는

잠자리 떠도는 땀뭍한 등성으로
결코 낮아지지 않으리다

오늘은 비록 뜻밖에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래일엔 기어이
이 땅에 빛나는 영웅들처럼
위훈을 수놓아가리다

그러한 내 마음
선생님들은 아시는지...
두말없이 이 몸을 두고 고심하나이다
내가 단잠에 든 때마저

어머니시여
이 아들이 안긴 품이 이러한 품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당의 품일진대
80 고령의 주름마저 펴시고
이 아들을 맞으시라

어머니가 낳아준 싱싱한 그대로
내 돌아갈 때
이 아들을 맞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시라
세상에서 어머니만이 울릴수 있는
고마운 절을
우리 당에 삼가 드리시라

그때면 나는 억센 나래 활짝 펼치고
삶의 령마루로 날아오르리라
위대한 당이 안겨준
거창한 시대의 숨결을 안고
높이 더 높이
나의 행복 나의 희망의 상상봉으로

한밤중의 생각

밤은 퍼그나 깊었으리
그러나 창밖은
초저녁인듯 흰하네

다들 제멋대로 자는구나
자는 법은 그 누가 정해준것 없으니
조용히

또는 코를 골며
또는 뒤척이며

방안의 분위기에 흠이 갈세라
조심히 창가로 다가가니
의사실 밝은 불빛을 받아
푸룻이 안겨오는 몇그루 측백나무

정원에서 추운듯 모여 서있네
나의 잠을 너도 지켜줬느냐
설날 긴긴 이밤을...
미안하다 수려한 측백나무야
깊어깊어가는 이 한밤도
나의 피 나의 살
한없는 당의 은정으로 이루어지나니
내 어이 잠들라

조금전
내 돌아눕는 소리 언제 들었던가
간호원동무
어느새 소리없이 달려왔더라

하여 나는
슬며시 눈을 감았지
내 심장의 박동소리에 귀기울일 때
무엇이었던가
눈귀로 스스로 흘러내린것은

새벽 여섯시에 초침이 닿으면

그 동무 조용히
체온기를 들고 문을 열리
나의 맥박이 그의 손끝에 전해지는것으로
우리는 서로 아침인사를 나누게 되리

그가 몇시간을 잤느냐고 물을 때
나는 위생복처럼 깨끗한 그의 마음에
거짓말을 슬쩍 묻혀야 하리
여덟시간나마 달게 잤노라고

우리 당의
파사로온 해빛을 안겨주는 그
하기에 새 삶이 피어나는 이 병실에서
그에게 달리는 말할수 없으리
그 말만이 그를 위로할수 있기에

설사 그가 그 기미를 눈치챈대도
할수 없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을
밤이라고 한시인들 잊을수 있었으랴

인 사

빈손으로 거저 들어왔다가
말로만 인사하고 거저 떠난다
그러나 의사도 간호원도 간병원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바래주누나
땅에 꽃힌 수리개 날개를 고쳐
자유의 하늘로 날려보내듯

주머니엔 예대로 있던 그만큼
올 때도 갈 때도 돈이 필요없구나
쇠물을 꿴이며 농사를 지으며
아글타글 마련한 나라의 재부
우리 당은 아낌없이 돌려주었구나
나의 치료비로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머무를수 있는 여기
비맞은 참대처럼 싱싱히
건강을 갖추고 떠날수 있는 여기
나도 여기서 새 삶을 안고간다

눈물이 나는구나 걸음걸음
당해못본 사람이야 어이 다 알리
수천만 인구중에 이 한몸 무엇이랴
헌데 글썽 나에게 억만재부를 들이다니
헛치 않게 마련한 나라의 귀중한 그 재부를

감사를 드리노라
이 추운 겨울날 두엄을 내고있을 농장원들에게
막장을 뿜고가는 사람들에게
쇠물을 꿴이고 쇠를 깎는
용해공들과 모든 기대공들에게

감사를 드리노라
감사를 드리노라
위대한 어머니당에

아, 이 시각엔 더더욱
보답 못한 생각에 마음이 괴롭구나
허나 괴로워만 말자 이내 마음아
천년을 살아 만년을 살아
이 은혜 이 은덕에 보답해야지...

똑하든 싹싹하든 마음은 하나갈애
값비싼 약들을 정성스레 안고오던
간호원동무들이여 안녕히 계시라
이 몸을 위해 고심 많던
의사선생님들이여 부디 안녕히 계시라

지금은
고맙다는 말보다 결심보다도
그저 눈물
눈물만이 앞서는구나

재부

안용근

차군의 소비협동조합책임자로 갓 배치받은 나는 조업을 앞둔 식료공장건설장을 향해 떠났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건설을 시작한 이 공장의 조업으로 우리 군내 인민들의 물질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전변이 이룩될것이었다. 된장, 간장, 기름, 당과류, 술... 그것이면 허리띠를 조여매고 전후복구건설에 일떠선 군내 인민들의 당면한 식생활요구를 풀어줄수 있었다.

군당에서는 전후 재더미속에서 일떠서는 이 공장이 인민생활에 미치게 될 갓가지 혜택과 군인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을 가지고 각 인민반을 대상하여 담화를 할데 대한 분공을 나에게 주었다.

《군내 인민생활과 식료공장건설에 대하여》,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담화내용이었다. 사실자료들이 필요하였다. 군소비협동조합 책임자라는 직무도 있거니와 전쟁시기 포중대 특무장으로 싸웠다는데로부터 식료공장건설장으로는 내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00려단군인들이 공장건설을 도와주고 있었던것이다.

담화를 많이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모든 정치사업이 다 그러하듯 내가 해야 할 담화도 말하자는 내용이 뚜렷해야 하고 논리정연해야 하며 호소성이 강해야 했다. 공장건설에 바쳐진 건설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행들도 생글하고 아담하고 전형적인것이라야 할것이다.

나는 머리를 빗수그런채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식료공장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식료공장은 군소재지에서 얼마간 떨어진곳에 건설되고있었다.

멀리서도 식료공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각종 규격의 철판들이 가로세로 뻗어가고 커다란 지구의모양의 탱크들이 마가울의 해빛에 번쩍이고있었다.

다층건물들과 보이라굴뚝꼭대기에는 오색기발들이 바람을 안고 세차게 퍼덕이고 철판을 두드리는 마치질소리가 메아리되어 울려왔다.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정문고성기에서는 복구건설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고 프랑카드들과 오색기발들이 완공단계에 들어선 공장건설을 더욱 고무하고있었다.

가슴이 후련해왔다. 또하나의 재부가 재가루

흘날리는 폐허우에 솟아나 우리들의 래일과 미래를 약속해주고있는것이다.

나는 빨리 갈 목적으로 행길에서 벗어나 소로길을 택했다. 휘우듬히 누운 등성을 넘어서니 공장을 마주하고 앉은 자그마한 마을이 오붓이 안겨왔다. 등메마을이었다.

반토굴집에서 갓 이사해왔는지 새로 지은 어떤 집에서는 회가루칠이 한창이었다.

마을 뒤편에 자리잡은 기와집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지붕 절반가량은 퇴색된 검은 기와로 덮고 나머지는 빨간 기와가 얹혀졌다.

폭격에 반나마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새로 기와를 얹은 모양이었다.

집둘레와 터밭에는 온통 구기자나무가 무성하는데 총알같이 생긴 빨간 구기자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서리를 맞으며 익힌 구기자가 약효가 더 있다던 말이 생각났다. 아마도 집에서 앓는 환자가 있던가 아니면 고정환 로인내외가 사는 집인것 같았다. 퇴마루에는 하얀 종이를 펴고 거기에 구기자를 펴 말리고있었다.

(터밭에까지 구기자를 심다니?)

나는 저으기 놀라면서 그 집을 지나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집 뒤편에서 웅성웅성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로인님, 그러니까 이 구기자나무랑 고간이란 다 아깝기때문에 우리가 땅을 파지 못한단말입니까? 아, 지금 로인님네 고간때문에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물관을 묻지 못한단말...》

《로인님, 미안한대로 오늘로 허락해주십시오.》

흥분으로 떠들거리는 말소리를 끊으며 좀 쉰듯한 목소리가 따랐다.

《하, 이런 딱한 일이라구야... 꼭 오늘중으로 이 고간을 허물어야겠나?》

석싹한 목소리로 보아 주인집 경감같았다.

《이 구간을 우리 소대가 맡아서 그러니다. 다른 구간에서는 벌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음... 하지만... 나도 사정이 딱해 그러이. 래일쯤이면... 그동안 이 고간대밑까지 바싹 파놓았다가...》

《그럼 우리 소대가 작업경쟁에서 맨 꼴찌를 하는데두요? 도대체 이 고간에 무엇이 있길래 그

다지도 그렇니까?》

《건 입자네들이 알바가 아닐세!》

손을 탁탁 터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집둘레에 땅을 파야 할 일이 생긴 모양인데 이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있기로써니 군인들이 요구하는데 너무 완고하게 나오는것이 못마땅하게 안겨왔다. 보건대 고간도 폭격의 세례를 받아서 인지 그닥 탐탁하게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사이 령감은 고간으로 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는지 문여닫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서 령감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경쟁》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령감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손을 든 모양이었다.

《아니 저 령감님이 사정을 하니까 점점… 정말 들은바 그대로 옹고집쟁이군. 오가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너그럽다고들 하던데…》

한참후에 애젊은 목소리입자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동문 언제 가야 그 말버릇을 고치겠소? 나이 든분을 두고 하는 말버릇이 그게 다요? 올 때부터 그만큼 일러주었는데도…》

《…》

나는 누가 옹고집을 부리는지 저으기 호기심이 났다. 더우기 공장건설과 관련되는 일이라니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공장건설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나라도 나서서 령감의 고집을 깨쳐야 했다. 아직도 개인리 기주의에 빠져 나라의 큰일에 지장을 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집뒤로 해서 말소리가 나던곳으로 가보았다. 뜻밖에도 인민군 소위의 견장을 단 군관과 애젊은 상등병이 락심한 기색을 짓고 서성서리고있었다.

《수고들합니다. 전 군소비협동조합 책임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 그렇습니까.》 나의 인사에 군인들은 무척 반가와했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기색이 완연했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우린 사회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저 사실은…》

애젊은 상등병이 소위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내 입을 다물고말았다. 소위의 얼굴에 나무람하는 눈치가 험등하니 알렸다.

(혹 군인동무들이 잘못된 일인가?)

《군소비협동조합책임자동지.》하고 소위는 얼굴에 유순한 기색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저 식료공장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입니다. 마지막 공사인 공업용수관을 묻는 작업을 소대별로

말았는데 국가설계에 반영된대로 땅을 파자고 보니 이 로인님네 고간과 부닥쳤습니다. 고간을 허물지 않고 하자면 이미 파놓은 많은 흙을 메우

고 관을 서서히 휘여야겠는데 그렇게 할수도 없고 해서 로인님과 의논하고 헐어버린 다음 다시 그자리에 큼직하게 지어주자고 하는데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야 뭐 그리 어려울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령감에게 이야기하여 허물도록 방조를 하겠습니다.》

고간이 남아있는것이 전쟁에서 싸워이긴 인민군군인들의 덕인줄도 모르고 부당한 옹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한 나는 당장 령감을 불러내올 잡도리로 고간문을 열려고 했다. 군내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련관이 있는 직무를 맡은 나의 말에 어느정도 응해나설것 같았다. 이 며칠사이 내 말의 《힘》을 강하게 느껴오던터였다. 관혼상제가 제기되는 집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나 나를 호주처럼 떠받들어주었다. 이 등메마을 어느 집에서 꿀벌을 치겠는데 겨울나이용으로 사탕가루 20키로를 요구해왔을 때 거절해버리긴 했어도 어느것은 어떻게 하나 힘 자라는것 풀어주느라고 했다. 그러루하게 제기되는 요구가 많을수록 나의 위신은 더 올라가고있었다.

원래 성미가 급한데다 옳다고 생각되는것이 부정당했을 때는 참지 못하는 나는 찻하면 흥분이 앞서군했다.

《가만, 소비협동조합책임자동지, 우린 가겠습니다. 려단장동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이 집 고간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를 내보내면서 로인님이 정 우기면 사회기관에 알리지 말고 자기에게 그대로 알려만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알려만달라고 했단말이지요. 음-》

나로서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도 명백해졌다. 령감에게 사정하여 이 문제를 풀자는것보다 몇배 서늘하게 안겨오는 말이다.

(아무래도 헐어야 할 고간을 두고 령감이 공연히 옹고집을 부리는군.)

《군인동무들이 노여웁란것 같은데 늙은분이 시야가 좁다나니 량해하십시오. 제가 잘…》

《아, 그런게 아닙니다. 려단장동지는…》

《아, 아 알만합니다.》

무슨 오해를 할가보아서인지 이내 설명을 하려는 소위의 말을 막으며 나는 별치 않는 일로 내밀지 못하는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개탄했다. 나는 령감네 집 문을 두드리려 했다.

《아무래도 제가 좀…》

《가만》 하고 소위는 나의 행동을 저지시키려는듯 몇발자국 다가왔다.

《이러지 마십시오. 려단장동지에게 보고한후에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아까부터 이들의 상관인 려단장을 자주 입에 올리는것으로 보아 그가 몹시 엄한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공연히 내가 경감을 설 다졌다가 경감이 이쪽 저쪽 뛰어다니며 소동을 피운다면 그야말로 하지 않기로도 못한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별수없이 려단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식료공장건설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X

건설장에 도착한 나는 설계가들과 려단정치부 일군들을 만나러 그들이 일하고있는 현장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건물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몇명의 군인들이 후방창고로 쓰는듯한 건물앞에서 작업이 한창인데 몸이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 두명의 군인을 세워놓고 추궁을 하고있는것이 보였다. 아까 오가성을 가진 려감네 집에서 만났던 그 군인들이었다. 그들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작업복차림이여서 군사칭호를 가려볼수 없었다.

초면이 아니여서 그런지 추궁받는 군인들에게 동정이 갔다.

(혹시 그 려감네 고간문제때문이 아닐까? 오늘 중으로 물관을 물는데 대한 명령을 받았다고 했지.)

나는 못볼것을 보는것 같아 에돌아가려는데 발목을 잡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말해보오, 사탕가루를 오령감님네 집에 갖다주라고 했는데 뭇때문에 아직도 우물거리고 있었소?》

(사탕가루?)

《공업용수관을 묻은 다음에... 저녁에 갖다주라고 했습니다.》

《건 동무들의 생각이요 지휘관의 지시야 제때에 집행해야 할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려감님은 다 허물어쳐가는 고간도 허물지 못하게 합니다.》

상등병이 억울했던지 한마디 한다.

(고간이란말이지. 그러니 소비조합상점에 사탕가루를 팔아달라고 제기한 사람이 그 오령감이겠지?! 나중엔 군대기관이 도움을 받구.)

어째서인지 오령감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를 떴다.

말썽을 일쿠고있는 그 사탕가루로 말하면 며칠 전에 소비조합상점 판매원으로부터 제기받은 문제였으나 20 킬로씩이나 단번에 팔아줄 형편이 못된다고 하면서 이웃군의 상점에 가보겠다는것마저 두부모 베듯 잘라버린것이였다.

사탕가루를 구해주지 않은데 대한 론거는 얼마든지 있고 정당한 일처리였던것만큼 나는 그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나 자책감은 별반 없었다. 아무리 사정이 있기로서니 이 어려운 때에 **한집에** 그렇게 많은 량을 구해줄수 없었다. 군안의 모든

세대들의 식생활을 책임진 나였다. 오령감네 말고도 수천세대가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그런데 그 사탕가루를 군대동무들이 해결해준다?! 얼마나 사정했으면... 이러나저러나 이것도 나의 한쪽 뺨을 치는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기에 저렇듯 오령감의 일을 도와주지 못해 애쓸까? 무슨 연고라도 있는 모양이지. 가만, 오가성이라... 그게 언제던가, 그렇지, 53년도 이른봄 내가 포탄수송때문에 이 군방에서 애를 먹던 그때... 그 려감의 이름이 오경세였는데...

순간 나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려감네 집둘레와 터밭에까지 구기자를 심어놓은 것이라든지, 옹고집을 부리는것이라든지...

예감과 추억의 갈피속에서 전쟁말엽에 알게 된 오경세령감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적아간의 공방전은 전승을 앞둔 그해 이른봄부터 더욱 치열해졌다.

소위 《영예로운 정전》을 위해 적들은 전전선에 걸쳐 새로운 대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후방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을 지도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밤낮 폭격을 가하면서 미쳐날뛰었다.

싸우는 모든곳에서 탄약과 수류탄, 포탄을 요구했다. 나날이 수송의 애로가 커갔다.

그러던 어느날 포중대 특무장으로 사업하던 나는 포탄을 운반할 임무를 받고 호송원들과 함께 처군의 학산역을 향해 자동차를 가지고 떠났다.

산재되어있는 포탄들을 학산역에 소운반해놓은 다음 기차방통에 실어 전선으로 날라가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밤새워가며 포탄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낡은 자동차 한대로 수송을 하자니 시간이 턱없이 걸려 종내 날밤도록 계획한 포탄을 방통에 실지 못했다. 야단이였다. 적기가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커졌다.

이럴 때 어떻게 알았는지 지방인민들이 달려왔다. 포탄상자를 그득 실은 달구지와 이고 지고 맨 형형색색의 남녀로소들이였다.

그들은 해뜨기전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땀투성이가 되어 여념없이 뛰어다녔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포탄 전량이 방통에 실려지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호송원들에게 방통을 인계한 다음 자동차에 마지막 포탄상자를 얹고있는 인민들에게로 다가갔다. 도움을 받은 인민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정녕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중으로 포탄이 전선에 도착할변이나 했는가.

고마웠다.

좋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생각, 그래서 전승의 날이 당겨지고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어서 빨리 자동차에 실은 포탄까지 전선으로 수송해놓고 적들의 마지막 숨통을 짓조기고싶었다.

전선으로 향한 기차도 떠나고 인민들과 작별인사도 끝나갈무렵 갑자기 《항공!》하는 웨침소리와 함께 세방의 총소리가 항공감시초소쪽에서 울려왔다.

나는 급히 인민들을 역전주변에 있는 방공호속으로 은폐시킨후 자동차에 올라탔다. 산기슭 숲속에 자동차를 은폐시키기 위해서였다. 기차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 학산역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기차굴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가 탄 자동차가 산기슭에 거의 도착했을 때 행길 저바루 앞에서 웬 사람이 털벙거지를 폭눌러쓴채 달구지를 바빠 몰아가고있었다.

피할 생각을 단념했는지 아니면 날치는 적기의 성화에 만성이 됐는지 담배연기만 풀썩풀썩 날린다.

(아니 적비행기가 날치는데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소리를 치자고 해도 들을수 없는 거리였다.

벌써 적비행기는 그 달구지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를 발견했는지 이쪽 방향으로 기수를 내리꽂고있었다.

나는 운전수에게 빨리 자동차를 은폐시킬것을 명령하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달구지를 물고가는 사람에 대한 걱정만이 앞섰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적비행기에서 내리쬐는 기총탄이 귀뿌리를 스치며 눈앞에서 팍팍 먼지를 일쿠었다. 그 사람의 주위에서도 먼지가 팍팍 일어나고있었다.

그제야 그 사람도 어쩔수 없는지 달구지 멩에를 들어 소를 빼내더니 고삐를 쥐고 뛰기 시작했다. 대피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제길 소를 끄찍이도 아끼는군.

가만 털벙거지를 쓴걸 보면 포탄상자를 운반할 때 그 령감이 분명한데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서둘러 떠났을까?)

제길 무슨 나뭇가 떠가야 한다고 자리를 떠서 법석 소동을 피우더니 또 그 나무때문인가?)

내가 속으로 주먹질을 하며 그 사람을 거의 따라가는데 앞쪽에서 위장한 풍친 승용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있었다.

기총소사를 뚫고 그냥 달리는걸 보면 어쩔수 없는 급한 일이 제기된 모양이었다.

또다시 급강하는 적비행기의 새된 소리가 귀따깝게 들려왔다.

《뚜루룩!》, 《팡! 파팡!》

행길에 승용차까지 나타나자 적비행기는 폭탄까지 던지며 발광했다.

위험했다. 여차하다간 사람도 차도 소도 형체

없이 사라질판이다.

배-익,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다부지게 생긴 인민군 고급관이 고무공처럼 튀어나왔다. 상좌였다.

그는 앞뒤를 가릴새 없이 달구지군에게로 달려가더니 다짜고짜로 훌쩍 안아 움푹 패인 폭탄구덩이속으로 밀쳐버린 다음 자기의 몸으로 그 사람을 덮쳐누르는것이였다.

머리위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그 순간 그리로 달리던 나는 몸을 비청거리며 앞으로 곤두 박혔다. 기총탄이 어깨박죽을 판통했던것이였다.

나는 눈앞이 아찔아찔해지는것을 참으며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끝내 깜박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포탄상자를 날라다주던 사람들이 근심에 싸인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휴- 그 령감이나 확 부상당할게지... 글썄... 전선에 가닿아야 할 련대장어른이 심한 부상을 입고... 흑... 아무리 제 령감이라고 해도 이럴 때면 정이 툭 떨어진다니.》

흰 무명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인 할머니가 눈굽을 훔치며 하는 말이였다.

《아니, 그 상좌동지가, 련대장동지가 부상당했습니까? 아 그랬군요. ...헌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오경세령감이 무사하다니 저도 기쁩니다.》

《우리 령감이 뭐길래... 아, 글썄 이 란리통에 구기자나물 해선 뭘하겠소. 대낮에 적비행기가 또 날치겠는데 그만 마을사람들이 돌아갈 때 함께 떠나자고 해도 어디 들어줘야지요. 고집이 하늘소발통보다 더해가지고... 곳곳해서 머리를 쳐들고 달구지를 끌고 가더니 끝내 일을 쳤지, 쳤어.》

나는 할머니가 자기 령감때문에 군대들이 다치게 되어 미안한김에 더욱 오경감을 욕질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식을 잃은 련대장을 승용차에 눕히는 일을 거들어주던 오경세령감이 눈을 흘깃 치뜨는것이 보였다.

《여보 노친! 무슨 녀두리가 그렇게 길어! 냉큼 달구지를 끌고 안골로 못갈까?》

무슨 말을 더하려던 어머니가 몸을 떨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안골마을에 구기자나무가 많다우. 아까두 그걸 뜨다가 소동을 피우구두 저런다우.》

정말미안하게 됐수다. 이 신셀 뭇루 갓졌는지 후에 한번 찾아오시우. 여기서 멀지 않은 긴재등에서 산다우...》

...

그후 나는 오경세령감내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다.

그때 입었던 상처자리가 봄가을이 오면 뜨끔뜨끔해올 때마다 오경세령감의 하늘소발통보다 더한 고집에 나는 화가 나군했다. 구기자나무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다니...

내가 이럴진대 나보다 더 심히 부상당한 그 런던장이 이런 내막까지 다 안다면 그의 심중이 어떠한가.

피와 바꾼 구기자나무가 오경세령감의 땡땡한 고집을 뒤받침해주고있다! ... 음...

오늘은 구기자나무뿐아니라 다 허물어져가는 고간도 허물지 못하게 한다? 서리를 맞을수록 구기자가 더 빨강게 여물어가듯 오령감의 고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웅이져가고있지 않는가.

또 흥분이 앞서기 시작했다.

마음을 누착혀야 했다.

군의소 침대에서 전승을 맞고 제대이후 소비협동조합책임자라는 직무만 아니었던들 이렇게 참을성이 있기는커녕 당장 달려들어 오령감을 단단히 혼내놔을 나였다.

이번 담화제강의 어느 갈피에라도 이 사실을 박아넣어 오령감은 물론 그와 같은 류형의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X

날이 어두워울무렵에야 나는 제강작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뽑아쥐었다.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한 이 식료공장건설은 확실히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일반시킬수 있었다. 연간 제품생산량은 물론 가지수들과 그 질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공장건설에 바쳐진 인민군인들의 로력적 위훈과 소행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야말로 군내 인민들을 감동시키고 혈육감을 더욱 자아내게 만들수 있었다. 인민들이 주둔구분대들을 찾아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지고 이고 들고 하얗게 밀려가는것이 보이는듯 삼삼했다.

그것은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뚫고 포탄을 날라 전선에 보내던 그 흐름과 이어져있었다.

이제는 담화제강의 체모도 떠오르고 체계도 뚜렷해졌다.

그러나 인츰 펜을 잡을것 같지 않았다.

어쩐지 쓰려고 하는 담화제강이 일반적인 감이 나고 말하려는 내용이 다른 담화제강과 별로 다를것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래도 고심하면 될상싶었다.

푸짐한 저녁을 대접받은 나는 밤작업하는 군인들을 도와 흠뻑 땀을 흘렸다.

도와주지 못해 죄스럽던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

졌다. 어서 떠나라는 군인들의 여러번 독촉을 받고서야 나는 런던지휘부로 향했다. 떠나면서 런던장을 만나 인사도 할겸 오령감내 고간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알고싶었다. 그제야 나는 담화제강작성에만 궁궁하던 나머지 런던장을 미처 만나지 못한 실책을 깨달았다.

런단장의 방은 비어있었다. 물관공사를 밤중으로 끝내려고 현장으로 갔다는것이였다. 모름지기 오령감내 고간문제를 보고받고 단단히 결심을 내린것이 분명했다.

런단장이 직접 나서는데 무너져가는 고간이 뭐이라. 집도 통째로 옮기자면 옮길판이다.

지금쯤은 고간이 무너지고 공업용수관을 조립하고있을지도 모른다.

런단장이 가서 의례 납득시켰을텐데, 사탕가루도 받았겠다 령감이 더는 버티지 못했을것이다.

《아까는 구기자나무요, 손때묻은 고간이요 하며 괜히 고집을 부렸는데 런던장어른까지 오신걸 보니 이만저만 급한 일이 아닌것 같은데 어서 고간을 무너뜨리고 땅을 파제끼십시오. 아무래도 다시 지어야 할 고간인데 오륙이 성성한 내가 후일에 천천히 짓겠으니 그런건 아예 생각도 마십시오.》이라며 씩씩해질것이였다.

그래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싶었다. 고간이 무너진것도, 웅고집 부리던 령감의 땡땡한 얼굴이 죽어들어간 모양도...

휘영청 밝게 비치는 달빛에 령감의 집 료판이 나타나고 컴컴한 구기자나무숲이 선명히 안겨오자 어째서인지 이상야릇한 감정이 저절로 생겨났다.

찬서리를 맞은 기와장들이 령감의 얼굴처럼 선득선득 차갑게 번들거린다. 고간은 집그늘에 덮이여 아직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퇴마루가 보인다. 창호지를 바른 방문들은 음영에 가리워 흰 바람벽에 형태만 나타났다. 령감은 태평스레 코를 골며 자는지 인기척이 없다. 도끼모래가 발에 걸린다. 집모퉁이를 에돌던 나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고간이 피물처럼 나의 앞을 떡 막아섰다. 아니? 고간 주변의 구기자나무도 서리를 하얗게 들쭉쳐 그대로 있다!

어찌된 일인가? 이 령감이 그냥 고집을 부렸구나! 개도 안물어갈 그 웅고집을... 아니 그럴수 없다. 런던장까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런던장이 오지않았구나. 왜 오지 않았을까? 그닥 바쁘지 않아서인가?

다시 토론하고 래일로 미루었는가?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도대체 이 고간이 무엇이길래 공장건설에 지장을 주며 군인들을 교생시킨단말인가. 이 고간안에 무엇이 있길래... 있어야 가정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것이다. 그것이 나라의 재부와 건
줄나위 도 없다는걸 그 령감이 그래 모른단말인
가. 예익 은혜도 모르고 신세도 모르는 령감! 어
디 한번 맞서보자. 전쟁시기에 있었던 일까지 다
계산할테다!

나는 핵 돌아섰다. 단잠을 자는 령감을 깨울
잡도리였다. 두어발자국 옮기는데 뒤에서 인기척
이 났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있었다.

달빛에 마주 비치운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으기 놀랐다. 낮에 만났던 그 군관이였다.

《소위동무군. 그런데 이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려단장동지는 안나왔뎡습니까?》

나의 물음은 울분에 차있었다.

소위는 얼른 손가락을 입에 세우더니 《저쪽으
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소곤거리는것이였
다.

《...?》

나는 그가 끄는대로 따라갔다. 고간 저쪽으로
데리고 간 소위는 울분에 찬 나의 심정이 리해되
였던지 아니면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지 권
연을 입에 물더니 나에게도 한대 권했다.

《우선 한대 피우십시오. 저도 일이 이렇게 되
리라곤...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임무가 변경되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럼 . 군인동지들이 양보했는가요?》

《양보야 무슨, 오경세로인님의 이야기를 자초
지중 보고받은 려단장동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왔다갔다하다가 저희들보고 무슨 방도가 없
졌는가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려단장동지,
오경세라는 로인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필경 려단장동지가 그 로인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습나다.> 하고 기대한바를 털어놓았지요.》

《그래서요?》

나는 저으기 긴장되어 다음말을 기다렸다.

《아무런 말도 없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그저
저희들에게 가스등 여섯개를 준비해놓고 폭 휴식
하라는게 아니겠습니까. 로인님이 잠든 야밤에
조용히 <해치울> 계획인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

《저녁식사후였습니다. 공업용수관 마무리작업
을 위한 야간돌격대가 무어졌지요. 려단장동지도
돌격대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로인님네 집까지
오면서도 려단장동지의 진의도를 물렸지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고간을 허물지 못했소!》

《우리가 이곳에 와보니 다른 작업조 동무들이
령감네 고간과 구기자나무대밑까지 바싹 구멍이
를 파놓고 관들을 다 려결해놓았더군요. 려단장
동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지요.

우리가 막 달라붙어 작업을 하려는데 려단장동
지가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작업명령을 내렸
습니다. 그 작업명령이란...》

달빛을 등지고 웬 사람이 다가오고있었다. 낮
에 본 그 상등병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수 있었
다.

《소위동지, 근무를 교대하랍니다.》

(근무? 그럼 소위동무가 이때껏 무엇을 감시하
고있었는가?)

《려단장동지는 아직도 그안에서 작업하오?》

《예, 아무리 교대하자고 해도 맞굴을 뚫기전
엔 나오지 않겠답니다. 이젠 거의 관통할 때가
됐다면서.》

《관통이라니? 그럼 고간밑으로 굴을 뚫는단
말입니까?!》

나는 입을 하 벌린채 두 군인을 번갈아 쳐다
보았다. 너무도 뜻밖의 사실에 얼굴이 하얘졌다.
내 눈앞에서 두 군인이 하늘로 날아올라간대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것이다.

《굴을... 그렇습니다. 려단장동지는 그렇게 명
령했습니다. 구기자나무 한그루, 고간의 한쪽 기
둥도 다쳐서는 안된다고말입니다. 로인님을 불손
하게 대했던 저희들의 잘못도 되게 추궁받았습니
다.》

소위가 무슨 말인가 더 했으나 나의 귀에는 들
리지 않았다.

나는 소위를 따라 굴입구에 들어섰다.

허리까지 굽혀야 드나들수 있는 굴이 갱구처럼
뚫어져있었다. 그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
오고 이따금 삽날이 흙을 파내는 예리한 금속소
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나의 폐부를 갇는듯
한 그 소리에 몸이 오싹해왔다.

나는 소위를 뿌리치고 네발걸음으로 굴속에 들
어갔다. 십여메터도 되나마나한 거리였으나 눈앞
이 확 흐리어 천길나락으로 헤엄쳐가는 기분이었
다.

아,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자니 얼마나 힘들
었겠는가. 려단장동진 아, 너무 고정하다! 말한
마디면 뭘 일을 가지고, 이럴줄 알았다면 내가
빨리 돌아서서 령감으로 하여금 제손으로 고간을
허물게 해야 하는건데 이렇게까지 나을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령감이 알아차릴가보아 근무까
지 세우구...

려단장을 만나야 한다. 만나서 그의 손에 천
삽을 빼앗아 나머지구간이나마 파제끼자. 그것으
로 령감과 사전에 알아들을수 있게 사업못한 책
임을 비판하자. 령감의 배은망덕함을 론해야 한
다. 군인들의 조소와 팽대도 실컷 받자.

《소비협동조합책임자동무, 암석을 발파하여
갱을 뚫는것보다 그래도 이진 너무 쉽게 뚫립니
다.》

그런들 어떠랴. 무슨 대답할 말이 있는가. 령
감 어디 보자...기름, 된장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
는줄로 아는 모양이지. 소비협동조합에 또 손을
내밀 때가 있겠지.

《려단장동지, 저쪽 동무들의 말소리가 들립니
다. 야 이거 생각한것보다...》

(첫 조용하라구. 경세령감님이 깨어나겠소.)

《려단장동지, 우린 다 압니다.》

《뭘 아오?》

《려단장동지가 전쟁시기 이 근방에서 오경세령감을 폭격속에서 구원하고 중상당했다는걸말입니다.》

《아니? 그 비밀은 어떻게 알았소?》

《좀전에 려단군의소장동지가 구기자시름을 가지고왔다가 저희들에게만 귀띔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알았습니다.》

《허허... 세상엔 비밀이란 정말 없군그래.》

(려단장동지가 그럼 오령감을 구원해준 그 상좌... 려대장이란말인가?)

나는 놀라움에 머리를 버쩍 쳐들고 가스등불이 비친 려단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날의 려대장이 분명했다. 오령감도!

(려단장동진 그런분이었구나!

그래서, 오경세령감을 만나지 않았단말이지...)

그 순간 어째서인지 오경세령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누르며 려단장의 틀진 자세가 눈앞으로 흘러갔다.

폭탄과 기총소사를 뚫고 달려가던 모습, 전사들을 안타까이 추궁하던 엄엄한 자세, 고간밀으로 굴을 뚫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는 그 결괏...

지금은 조용히, 말없이 려단장은 구슬땀 흘리며 전사들의 앞장에서 한삼한삼 흠을 쫓아내고있다. 그에게는 오경세령감에 대한 불만한 감정도, 서분해하는 빛도 도무지 느낄수가 없다.

도대체 그와 나에게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이렇듯 대조적인 행동과 결심이 생기는것인가

오경세령감? 그 려감이 무언가 바뀐 때마다 군대들에게 손을 내미는 주제에... 이젠 려단장까지 이런 일에 끼여들어 손발을 적시게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너무도 일방적인데가 있다.

또다시 오령감에 대한 노여움이 가슴속에서 한 고괏 소용돌이쳤다.

내가 움썹 자리를 차고 려단장에게로 막 다가가려는데 그의 말소리가 다시 나를 불러세웠다.

《사실말이지 낮에 오경세란 이름을 듣고 로인님을 찾아볼가한 생각도 났소. 병원에 여러번 먼회왔던 로인님이었으니깐. 허지만 난 그렇게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소. 생명채산을 지켜준 값으로 그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인민의 진정한 군대겠소. ...》

《알았습니다. 려단장동지!》

려단장의 음성은 나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었다. 마디마디가 인민의 심판대우에 나를 올려세우고

있었던것이다.

그때에야 나는 오경세령감에 대한 폭발직전의 감정이 나자신부터 옹호하며 체면을 세우려는 부당한 론거우에 서있다는것을 알았다.

인민의 우에선 관료화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오경세령감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행세, 려감을 위하다 하마트면 생명을 잃을번했다는 《공로》, 인민들앞에서 큰소리쳐도 《별일없는 직위》에 있다는 권세... 하여 오령감을 무턱대고 고압적으로 무시하고 요구를 앞세우려고 한 일이 마음에 걸리었다. 사탕가루도 마땅히 구해주기 위해 뛰어다녔어야 했었다.

어디에 어떻게 쓰러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가정이, 인민이라 불리우는 개개의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풀어주는것이 인민의 심부름군인 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인민을 위한 마음이고 복무정신인것이다.

복무정신! 그것 없이는 군대도, 혁명도, 조국도 없다고 했지.

참으로 그렇다. 그것 없이는 인민들이 호주처럼 떠받드는 일군도 필요없을것이며 도대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바랄수 없는것이다!

감히 려단장앞에 나설수도, 《오령감을 구원할 때 나도 그를 구원하려 뛰어가던중》이었다는 말을 할수도 없었다.

인민앞에서 이렇듯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의 거울은 진실과 가식을 쉬이 구별해보는 법이다. 그 거울은 인민을 욕되게 하거나 나무람하는것을 더욱 용서하지 않을것이었다.

《자, 구기자시름을 한고뿐씩 더 마시고 마저 끝내자구. 오경세령감님이 고간에다 온돌을 놓고 불을 때면서 이런 구기자시름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지원하고있다는걸 난 방금전에 군의소장동무를 통해 알게 됐소. 래년도부터는 꿀벌을 많이 쳐서 군대와 병원들에 보내주겠다고 하시오. 원래 과묵한데다 옳다고 생각한 문제는 끝장을 보는 성미여서 때로는 고집이 센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속이 깊은 려감님이요. 지금도 저 고간에선 시름을 만들수 있는 재료들이 뚫고있다고 하오.

그게 아까와서 려감님은 고간을 당장 허무는것을 반대했겠지만 따지고보면 우리를 위한 마음이 하도 크다니 그렇게 나온거요. 지내구보면 우리 인민은 다 좋은 인민들이요.》

새벌처럼 빛나는 눈으로 려단장을 지켜보는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승업한 빛이 떠돌았다.

나의 머리속에는 려감 비슷한 그 무엇이 번쩍이였다.

《다 좋은 인민》, 《다 좋은 군대》... 다 좋다...

하긴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꿀벌을 치자고 애쓰는것만 보아도... 이렇듯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직한 우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야말로 더없이

이 신성한 의리이고 임무이며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 그것이다. 혁명의 첫 시원에서부터 생겨나고 이어온 인민 위한 복무정신! 그것은 어느 사회에나 다 있는것이 아니다.

이 땅우에, 모습을 드러내는 웅장화려한 공장과 도시, 풍요한 들, 은금보화 가득찬 이 땅만을 어찌 재부라 하겠는가, 우리 사회엔 더 크고 더 귀중한 보이지 않는 재부들이 있다.

그가운데서도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이야말로 재부중의 재부가 아니겠는가!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은 조국을 부강케 하는 영원한 재부이며 기초다!》

내가 쓰게 될 담화제강의 종자는 이것이다. 이 속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다 적어넣으리라.

군당에서 왜 나에게 인민들앞에서 담화할데 대

한 분공을 주었는지도 늦게나마 깨달아진다.

가슴속에 뜨거웠것이 피어올랐다.

어서빨리 려단장동지를 만나고싶었다.

려단장동지야말로 나에게 인민을 위한 복무의 참뜻을 깨우쳐주고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였다.

《려단장동지! 굴이 뚫렸습니다. 판통입니다. 야 참!》

기쁨과 흥분으로 온 굴안이 들썩이였다.

전사들의 어깨를 뜨겁게 부여잡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려단장의 모습이 평 뚫린 굴의 배경속에 뚜렷이 부각되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읽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의 용수관이 공장의 만부하를 보장하듯이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이 이 사회의 영원영생을 담보한다는것을!

기다리는 언덕에서

-지난해 6월 10일을 잊지 못해-

강림석

오지 못하는 그 마음
한줄기 바람되어
판문각의 창문을 두드리는가
기다리는 우리 마음
저 멀리 남녘의 언덕을 더듬는다

덧쌓인 그리움의 언덕을 넘어
불타는 갈망의 산악을 넘어
한걸음에 달려와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오지를 못하는가
남녘의 대표여

아, 지축이 울리게 발을 굴러본다
여기가 분명 우리의 나라, 우리의 땅인데
어찌하여
동쪽끼리 모이지도 못하는가

연락을 두드리던 그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빠스에 오르다 포도에 쓰러졌느냐
아니면 철창에 갇히워 피를 토하느냐
거리를 흔들던 그 웨침 쟁쟁하고
이마에 수건을 동이던 그 모습 삼삼하구나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했던가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나기를
얼마나 좋았으랴
우리 오늘 여기서 부둥켜안았다면!

우리 만일 여기서 만났더라면
그 어떤 외교상의 절차도 격식도 필요치
않았으리

품고 온 너와 나의 가슴속 진정은
터놓으면 그대로 하나가 되고
끓고있는 너와 나의 심장속 더운 피는
닿으면 그대로 하나로 흘렀으리
울고 웃었으리 웃고 울었으리

죽어도 통일을 위하다
이 땅에 함께 문힐
너와 나는 조선의 아들
하나의 겨레

아,
겨레의 피가 한뼘으로 모이고
강산도 진동하며 숨을 죽인 력사의 날
우리의 6월 10일, 이날도
또 하나의 절통한 비극을 남긴채
속절없이 저물어야 하는가

저기 분계선 철조망에
날은 이미 저물고
여기 원탁우에 어둠 깃든다고
서둘지 말라
우리 어찌 그랴이야 돌아갈수 있으랴

월력우의 이날은 흘러가도
만나야 할 우리의 그날은 영원히 가지 않으리니
그렇다, 보라
저 우리 하늘의 태양을
우러르는 마음의 하늘의 그 태양은
저렇게도 찬란히 빛을 뿌리며
저물줄을 모르노라
저물줄을 모르노라

순천의 숨결과 함께

순천땅!

오늘 이곳은 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과 같은 대건설로 하여 세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파견되어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작가들을 찾아 평양을 떠난 우리가 순천역에 내린것은 한낮이었다.

이어 우리는 대동강을 가로지른 순천교를 건너 련포벌 한가운데 자리잡은 비날론구역에 들어섰다. 거기에는 련합기업소건설초기부터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소설가 김형지동무가 있었던것이다.

갓 포장한 구내도로에는 짐을 한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서로 경쟁하듯 련이어 꼬리를 물고 달리고있었다.

련합기업소건설은 바야흐로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에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하며 발전소건설과 탄광, 광산 건설, 금속기지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즐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곳 로동계급과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은 참으로 눈부신것이였다.

그들은 영웅적 투쟁정신과 창조력을 높이 발휘하여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설속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련합기업소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고있다.

우리는 인차 소설가 김형지동무와 만날수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비날론구역에 나와있는 련합기업소의 한 일군도 만났다.

그 일군으로부터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웅장한 건설소식과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 련합기업소는 단순한 화학공장이 아니랍니

다.

방직, 일용, 식료, 농업, 건재 지어 축산과도 관련되어있는 매우 방대한 기업소입니다.》

그 일군은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구내길에 설치된 확성기에서는 우렁찬 노래가 울려 퍼졌다.

봄기운이 완연한 련포벌을 바라보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나와 현지생활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는 작가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대하여 쓰려거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느슨한 미소를 머금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은 정말 뛰고 뛰고 또 뛰여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였답니다.

말하자면 순천땅 그 어디서나 거창한 시대의 맥박과 숨결이 세차게 뛰는것이지요.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흐르는 순천의 이 충성의 숨결도 쓸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우리는 그와 헤어졌다.

저기 유유히 흘러내리는 대동강물결도 한결 맑고 푸르렀다.

정녕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이름조차 위훈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땅!

우리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우리는 소설가 김형지동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다.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건설자들속에서 생활하는 내가 작품에서 제기하려는것은 량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자들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은 그들에게 높은 자각과 성실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초를 파고 수많은 철기둥을 세우며 그것을 미장해버리는, 말하자면 그 진속이 남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건설로동은 깨끗한 량심과 성

실한 정신세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김형지동무의 이야기이다.

소설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독자들 앞에 절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각이한 사고방식과 일본새를 가진 건설자들을 형상하면서 참된 행복은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으로 가꾸는데 있다는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문제를 똑똑히 심어주지 못하는 약점을 나타낸다면 예술적 형상에서 일정한 수준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은 독자들의 평가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탐구를 거듭하면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벌리고있는 소설가의 말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얼마전에 나는 여기서 현지생활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는 소설가 김재규, 리화, 리현덕, 주성준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아무리 기교가 높고 솜씨가 있다 해도 똑똑한 사회적 문제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창작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당정책의 진수속에 담겨있는 시대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타는 열정과 고상한 정신을 지녀야만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긍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소설가의 이야기를 긍정하였다.

우리가 그에게 절실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고 하자 그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예술적 형상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가 독창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될수록 그의 감화력은 크고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와 품격이 높아질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형상에서 독창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생활분야도 특색이 있고 작가들이 제기하려는 의도도 새로운것만큼 인간들의 형상도 대건설행군에 펼쳐나선 성격답게 그려야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을수 있을것입니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독창적 탐구를 거듭하면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내려고 애쓰는 소설가의 노력의 흔적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엿볼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편소설 《건설자들》(가제)의

초고를 써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장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하리라하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이고장 사람들이 사슬재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야산을 지나 카바이드구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리는 저녁교대차로 출근하는 로동자들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있는 시인 오필건동무를 만났다.

우리가 여기로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는 못내 반가와하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카바이드구역은 한층 활기를 띠었다.

《저기를 보십시오. 지금은 다 완공되어 저렇게 번듯하게 앉아있지만 내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한창 건설중에 있었습니다. 육중한 부재를 들어올리는 기중기의 동음소리, 아슬한 총막우에서 빨간 기발을 휘저어가는 신호수의 다급한 호각소리, 허리에 안전바를 가끈히 동이고 하늘을 날으며 용접 불꽃을 날리는 연공들...볼수록 장관이였지요. 정말 새로운 <순천비날론속도>를 창조해가고있는 거대한 시대의 맥박과 숨결이 가슴가득 안겨왔습니다.》

시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보이라실을 건설할 때에는 편심하중, 구부림하중, 어쨌든 수천톤의 짐이 복잡하게 실리는 설비기초를 해결하여 술한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긴 이야기도 하였고 타빈을 조립할 때에는 평양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보다는 타빈조립속도를 6배, 복창때보다는 3배, 청천강때보다는 2배로 높였다는것이다.

련합기업소조업식을 눈앞에 바라보는 지금 군인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의 열의는 비할바없이 높다는것이다.

열정에 넘친 시인의 이야기는 끝없는 감동속에 계속되었다.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하는 새 기록, 새 기준 뒤에는 얼마나 많은 격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것인가

《어느날이였습니다. 한 로동자는 초벌바른 벽에 세멘트가 손바닥만큼 떨어진것을 그냥 스쳐보낸 일이 종시 마음에 걸려서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와 다음 교대에 나온 미장공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벽속에 들어가버릴것인데 그것때문에 되돌아왔는가 하는 동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을 떠받드는 우리의 량심에 티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당에 대한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당과 함께 인민이 살고 인민과 함께 당이 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에 넘쳐 나아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시인이 창작한 좋은 시들이 바로 이런 생활체험에 뿌리를 둔것임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는 시인과 함께 벅찬 현실생활과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에 민감하고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옹호관철하는 립장에서 창작의 붓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옳게 포착할수 있고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 본질을 제때에 반영하여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시인은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퇴근길에 오른 로동자들로 하여 길은 몹시 붐비었다.

한패의 로동자들이 커다란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곁을 또 지나간다. 즐거운 저녁이다.

이윽고 시인은 저쪽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기를 보십시오. 박세옥실장동무도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서 걸어가는건 김철민동무구, 아, 키작은 동무가 철민동무란 말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박세옥실장동무와 김철민동무가 그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며 걸어가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에서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에 충성다하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시상에 훌륭히 담으려고 애쓰지요. 좋은 작품들을 창작할겁니다.》

시인의 말이다.

《여기서 현지체험생활을 하며 창작을 하고있는 우리 소설가들은 보다 절박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 결심입니다.》

궁지에 넘친 소설가 김형지동무의 이야기이다.

련포벌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수많은 불빛으로 하여 웅장한 련합기업소는 환하여졌다.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안고 뿜어번지는 련합기업소의 밤, 우리의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바치는 무한한 충성심과 끝없는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들끓는 밤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활하며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작가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밀물과 썰물

신병강

썰물이 시작되누나

철철 두 기슭에 넘치던 강물

어느덧 바다로 손살같이 흘러가니

저녁해 비치는 강바닥은

땅에 눕힌 거울인듯 번쩍거린다

내 오래도록 분계선 강기슭에 서서

그리운 형제들 생각에 가슴 타노니

야속하다. 썰물아

네 적시던 두 기슭을 남겨놓고 어디로 갔느냐

글쎄 시간따라 너는아

나가고 들어오는것이 법칙 이다만

그 누가 하루 한번 밀물과 썰물은

꼭 동반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 림진강아 너는 아직 모르리

이 가슴에 밀물처럼 하얗 넘치는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만은

40 여년 세월 단 한번 썰물이 없었음을

분열된 조국강토의 비운의 정황과 시인의 서정

승경희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 한강토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조국의 분열로 인한 민족비극의 정황속에 있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시인들은 시대적 사명감으로부터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잡지 《조선문학》 최근호에는 수편의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이 실리었는데 그중에서 《분계선시초》(동기춘), 《산 너는 백만》(리상림)등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작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정세에서 일정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분야의 시 문학은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성과를 멀리 앞서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이 주제의 시 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창작을 벌려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최근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에서 분열로 인한 겨레의 절통한 감정을 절절하고도 강렬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을 보면 정황이 구체적으로 진하게 그려진 시들과 그렇지 않은 시들로 구별해볼수 있다. 레컨대 《분계선시초》중의 《분계선》, 《애국에 대한 문제》, 《조국의 의미》는 복잡한 정황묘사가 있는가 하면 시 《산 너는 백만》에서는 정황이 단순하게 묘사되고있다.

서정시인 경우에도 정황이 시에 그려지는것이 허용되며 그 정황을 내용과 어울리게 표현하는 문제가 미하실천상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은 서정시의 정황문제에 대하여는 낫을 덜 돌리고있음을 볼수 있다.

정황의 전화화가 우리 서정시들에 훌륭히 보장되지 않고있기때문에 궁극에는 서정시의 산문화의 경향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정황은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 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다.

그러므로 시적 정황이란 서정을 낳을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계기이며 서정이 발현될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적 바탕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서정시의 정황과 그의 전형적 표현의 실천적 문제들을 몇편의 시에서 보기로 하자.

《분계선시초》의 시인은 분열된 조국의 원한의 지점인 분계선에 서있다. 그는 분계선을 사무치게 느껴본다.

하나의 조선이
무시되고
한피줄을 둘로 가른
너, 원한의 분계선

시인의 이 느낌은 시적 대상인 분계선의 정황을 이루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번져진다.

철조망을 두겹세겹 늘이고
고압전류를 쓸어넣고
심연같은 도랑을 채고

그것이 판문점에 와서는
탁상우의 전화줄이 되어 건너간
이 어리석은것에 치워
민족이 수난당하는
억울한 력사가 빚어지고있구나

여기에는 적어도 시적 대상의 정상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한 상세한 정황의 요소들인 철조망, 고압전류, 심연같은 도랑 그리고 탁상우의 전화줄과 같은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이 시초의 다른 시 《애국에 대한 문제》에서도 역시 시적 대상인 분계선의 《황막한 땅》에 대한 표상을 돌구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이 그려지고있다. 《총구가 겨누는듯한 섬찍한 공기》, 《침울한 구름》, 《불깃한 노을》 등이 정황적인 현상으로 그려지고있는가 하면 《조국의 의미》에서는 개미, 나비, 지뢰원의 폐허, 바람에 설렁이는 서글픈 나무, 한떨기의 쓸쓸한 꽃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황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초에 그려진 정황들은 단순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의 탐구의 시적 섬광에 조명된 서정에 물들여진 서정적 정황인것이다. 시인은 예리한 눈초리로 분계선을 살펴보면서 그 시적 대상을 둘러싸고있는 정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있으나 그 시적 대상과 정황자체가 너무도 비운에 찬것이어서 그 대상과 정황이 시인의 심장에 새겨지자부터는 《어리석은것에 치》웠고 《민족이 수난당 하는 억울한 력사가 빚어지고있》다고 절통함을 쏟아놓는것이다.

고통에 앞서 분노가 일고
분노에 앞서 저주로 떨리는곳
천길지심에도
보복의 용암이 끓는 땅아

가르지 못할것이 갈라진우에
세월은 피를 내며 흘러가고
분렬에 혈육이 끊어지는
이리도 아픈 비극을 겪는 땅이
물어보자 세계여, 지구의 그 어디에 또 있는가

시 《분계선》에 그려진 정황도 그것들자체가 벌써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열풍인 시적 정서에 의하여 달구어지고 버림된것이다.

이런 견지로부터 우리는 《분계선 시초》의 시들이 복잡한 정황적 바탕속에 서정을 묻어둔 시이지만 비교적 좋게 읽히워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주체의 서정시들에서 중요한것은 정황을 대상에 어울리게 그리는것이다.

정황에 어울리게 정서를 거기에 물들인다는것은 결코 시인의 정서를 정황에 융해시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대로 정황을 시인의 정서에 받아들여 서정에 융해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시 《산 너는 백만》에는 남녘의 희생된 애국학생 리한렬의 죽음에 대한 시인의 분노의 감정을 담고있다.

이 시는 시적 대상을 안고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리지 않은 시다. 이 시의 정황이라 볼수 있는것은 《숨막히는 천지》라고 표현하고있는 범정황뿐이다.

그러나 대상의 본질을 깊이 파악한 시인의 주정이 집약적으로 짙게 그려졌기때문에 그것은 막연한 정황으로 되지 않았다.

죽은 너는
하나
산 너는
백만

한렬아
너의 령구앞에
백만이 서있다

숨막히는 천지를 앞에 두고는
차마 눈을 감을수 없어
뜨고 간 너의 눈이
백만의 눈이 되어

보다싶이 시적 대상의 본질을 깊이 파악한 시인의 감정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이 표현되는 정황의 구체성으로 그려지지 않았는가.

시 《산 너는 백만》에서 시인은 《분계선 시초》의 경우와는 달리 체험의 폭을 좁히고 시적 대상에만 온 힘을 쏟고있다. 다시말하여 희생된 애국학생의 령구에만 눈길이 돌러지고 그 령구가 놓여진 《숨막히는 천지》의 구체적인 정황인 다른 여러 객관적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그닥 눈길이 미쳐지지 않고있다.

애국학생의 시신을 앞에 두고는 그 시적 대상밖의 어떤 다른 객관적 정황들에 미련을 느낄 마음의 여가가 아니었던것이다.

시 《붉은 잎사귀》(문채건)에 그려진 정황은 그러한 정황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웅변적으로 확증하는 다른 하나의례로 될것이다.

하나, 둘 쓰러지는 시적 대상으로서의 대학생들을 보여주고있는 이 시의 정황이란 원쑤놈들이 쏘아대는 총탄의 소낙비와 시체우에 내려앉은 파아란 잎사귀뿐이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또 구체적인 정황적 요소들을 다 쏘아 이야기하고있지 않지만 파아란 잎사귀가 붉은 잎사귀되고 그것이 또 시인의 판단에 의하여 불꽃이 되어보이게 하는 정황은 훌륭히 전형화되고있다.

만약 시인이 희생된 리한렬이나 떨어진 잎사귀를 백만의 대오로, 붉은 잎사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불꽃과 같은 정황적인것을 전형화하지 않았다면 정황묘사가 훌륭히 보장된 시가 못되었을것이다. 성공한 시의 경우 그것은례외없이 정황과 서정을 유기적으로 전형화할데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동신문》에 발표된 추도시 《복수의 칼을 들라》에서 느끼는바와 같이 절통한 비운의 정황이 그려지고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애수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안는 혁명성있는 높은 정서적 차원의 서정을 느낄 뿐이다.

떠오르는 해빛도 남녘의 하늘에서
빛을 거두라
두터운 먹장구름을 부스르려
렬사를 발인하는 앞길에
슬픔의 비발을 뿌리라

검푸른 남해여, 거세찬 물결을 일으켜
이 세상 끝까지 노도쳐가라

대륙과 대륙의 기슭을 치며
우리의 성만이가 웨치고간 피의 절규를
만천하에 알리라

이 시는 정황이라고 로출시켜 직접적으로 표현한 정황묘사가 거의 없다. 다만 조성만학우의 부고를 가슴아프게 안게 된 감정을 현시점에서 느끼면서 《해빛도》, 《빛을 거두라》, 《슬픔의 비발을 뿌리라》, 《물결을 일으켜》, 《노도쳐가라》, 《피의 절규를 만천하에 알리라》 등과 같이 비운의 정황을 련상할수 있는 서정을 발전시킨데서 정황이 간접적으로 형상되고있다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서정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성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해야 한다.

시적 정황의 전형화적 형상창조의 사색이 없이 돌연히 황막한 땅이나 분계선에 앉아서 생활의 계기없이 서정시가 시작된다면 그런 시의 정황은 생경하게 느껴질뿐이다.

이런 경우를 시 《조명탄》(신병강)에서 찾아본다.

이 시의 첫 정황은 아무런 의의도 없는 불필요한 정황으로서 생경하게 느껴질뿐이다.

시인이 그리고있는 분계선상공우에 원수들이 쏘아올린 조명탄일 때 그것을 《붉은 화광》으로 그리고있는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애당

초 이런 정황이 이 시에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의 의문스럽게만 느껴진다.

서정시에 구체적인 감정과 생활정서적인 서정이 부족한 결함은 《분계선 시초》의 일부 시들에서도 표현되고있다.

《분계선 시초》의 일부 시 제목들에서 보다싶이 《애국에 대한 문제》, 《조국의 의미》 등과 같이 그것들이 감성적이고도 정서적으로 포착된 제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황과 서정의 유기적인 통일성에 기초한 서정시 형상에서 또하나의 결함은 정황과 내용에 대한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아프구나
몹시도
몹시도
저것이 왜 이리 아픈가

말 못하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그것이
나와 운명을 함께 하는
조국의것이기에
이리도 눈물나게 아픈것이다

표식선을 놓아본 시구들은 산문적으로 표현한 것들이기에 이 시에서 내용과 정황을 맑고 선명하게 드러내보이게 하는데서 구름격으로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말로만 들어오던 분계선에 처음으로》 서보는데로부터 미처 충분히 시적 대상을 주정화하지 못하고 즉흥을 앞세운데서 생긴 결함이 아닐가 생각된다.

우리 시인들은 앞으로 충분히 서정에 물들여진 정황을 형상하고 그런 정황이 시적 내용을 돋구게 한 훌륭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을 놓고 서정시의 정황과 그의 전형적 형상창조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생각 하여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시인들은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도미와 그의 안해

백제의 제 4대 개루왕 (기원 128~166)때였다.

백제의 서울 위례성밖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도미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는 비록 미천하고 가난한 몸이지만 한번도 남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한적이 없었으며 성품이 강직하고 의리에 밝아 남들에게서 존경을 받고있었다.

그에게는 남달리 착한 안해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멀리까지 자자하였다.

더우기 도미의 안해는 세상 드문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지조나 정절이 뛰어났다.

그의 얼굴은 누구의 눈에나 달과 같이 밝고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용모를 한번 보면 다시 돌아다보지 않을수 없게 뛰어났었다.

처녀때였다. 그에게는 청혼자가 많았다. 우로는 이름난 집들의 도령으로부터 아래로 서민층각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집 문앞은 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처녀의 소문이 화제에 오르지 않을수 없었다.

《장차 저 처녀가 어떤 사나이에게 가게 될것인가?》

그것은 흥미있는 이야기거리였다.

그러나 처녀는 뜻밖에도 가난하고 미천한 도미를 남편으로 택하였다.

그것은 도미가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남달리 정직한 성품에 의리가 강하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나에게는 부귀나 빈천이나보다 참다운 사람이나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이 그가 도미를 남편으로 택하면서 다진 생각이였다.

처녀가 도미의 안해로 된 뒤로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치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 처녀가 도미를 택한 심정을 알수 없거던, 하구많은 사나이들 가운데 어째서 하필 그 가난뱅이를 남편으로 골랐겠는가말이요.》

《글쎄 아무래도 짝이 기울지. 하기야 도미도 마음 하나는 착하다고 하겠지만 안해에게 비하면 야 봉황과 닭격이지.》

《물론 당사자로서야 어느 모로든 보는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깝단말이야.》

서울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이런 뒤통론들을 하

였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인정많은 도미를 존경하였으며 그를 남편으로 택한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도미도 물론 안해를 더없이 사랑하였을뿐 아니라 한편 은근히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록 넉넉치 못한 살림이나마 원앙새처럼 의좋은 가정을 이루었다.

서울사람들의 도미와 안해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그의 성품에 대한 칭송으로 변하였다.

《도미의 안해의 정절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 못지 않단말일세.》

이 소문은 마침내 대궐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날 개루왕이 신하들과 같이 주연을 베풀었다.

왕은 향기로운 술에 좌우로 아름다운 궁녀들을 늘어놓고 신하들과 함께 질탕하게 놀고있었다.

그러다 도미의 안해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졌다.

한 늙은 신하가 도미의 안해의 정절을 극구 칭찬하자 많은 신하들도 덩달아 그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왕은 혼자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들이요. 너자에게 정절이 있다니 그건 다 빈말이요.》

왕이 좌우의 궁녀들을 돌아다보면서 하는 말이다.

《황송하오나 도미의 안해만은 세상에 드문 미인으로 그만큼 사나이들의 유혹도 많았으나 다 물리치고 한갓 진실하다는것만 택하여 스스로 미천한 도미를 남편으로 맞이하였으며 그 남편을 십년을 하루같이 받들고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늙은 신하의 말이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흔든다.

《어떤가, 너희들도 계집이니 지금 말한 정절이니 뭐니 하는 그런 도그한것을 지니고있는가?》

왕은 다시 좌우의 궁녀들을 돌아다보면서 웃었다.

궁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교태를 부렸다.

왕이 이어서 늙은 신하에게 말을 건넸다.

《모르기는 하지만 그 여인이 아직 독특한 유혹을 받아보지 못한탓인가 하오. 너자들이 남의 앞에서는 〈정절〉이니 〈지조〉니 하고 장담들을

하지만 그게 다 유혹이 부족한탓이지 사람이 없
는 깊은곳에서 감언리설로 꺾이거나 눈이 부시
게 찬란한 보물이나 쥐여주면서 녹여보오, 제아
무리 정절이 굳은 녀인이기로서니 별수가 있소,
넘어갔지...》

그러나 늙은 신하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른 신하들도 반드시 왕의 말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왕은 다시 말하였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녀자의 정절을 믿는다면
우리 어디 내기를 한번 해보는게 어떤가? 그
래서 흥미삼아 그 녀인의 정절을 시험해보는것이
어떻소!》

그 서슬에 술자리에서는 환성이 울랐다.

그러나 왕에게는 그것이 다만 그자리의 취흥만
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있었
다.

그는 이른바 태평시대의 군주로서 그날그날을
술과 함께 수많은 제집을 회롱해왔으며 어떠한
녀자도 그의 영화와 권세로써 마음대로 해왔다.

그러니만큼 그가 녀자의 정절이나 지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할것이 없었다.

그는 늙은 신하를 비롯었다.

내기는 그자리에서 실시되었다.

왕은 곧 도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도미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였다.

미친한 백성의 몸으로서 임금앞에까지 갑자기
불리우게 되었으니 정작 뜻하지 않은 일이었다.

도미는 엎드려 머리를 들지 못하고 몸을 사시
나무와 같이 떨었다.

왕이 도미를 보자 직접 물었다.

《네가 도미라는 백성이냐?》

《네, 그러합니다.》

도미는 역시 떨리는 목소리였다.

《듣건대 네 안해가 정절이 높다고 하고 또 천
하에 드문 절색이라니 정녕 그런가?》

《황송하기 비할바 없습니다. 미친한 소신에
대한 소문이 감히 궁궐안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죄 죽어 마땅할가 하옵니다.》

왕은 자리에서 한걸음 나갔으면서 다짐을 한
다.

《그러면 정녕 그렇단말이로군.》

《네, 원래 변변치 못한 여자이오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있는것으로 아됩니다.》

도미는 자기가 믿는바를 말하였다.

《정절만은 믿는단말이냐?》

왕은 다시 다짐을 둔다.

《황송하옵니다.》

《정녕?》

《황송하오나 저의 제집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
도 마음이 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미는 그대로 자기의 믿음을 아뢰었다. 그만

큼 그는 안해의 정절을 믿었다.

왕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곳에서 달콤한 말로 꺾어
도 너의 안해는 넘어가지 않는단말이냐?》

《그러리라고 아뢰옵니다.》

《영화와 호사로 유혹하여도?》

《황송하옵니다.》

《그러면 권력으로 눌러도?》

《황송하옵니다.》

《죽인다고 위협을 하여도?》

《그러하옵니다.》

왕은 마침내 맥이 풀렸다.

《그놈이 정말 미련한놈이구나.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왕은 끝내 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 일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날밤이었다.

왕은 도미를 궁중에다 잡아두고 자기의 가까운
신하 한사람을 불러 자기 의복으로 가장하게 하
고 련 (임금이 타는 수레)까지 빌려주어 왕의 차
림으로 도미의 집에 가서 그의 안해를 유혹해보
라고 분부하였다.

《반드시 그 제집이 말을 듣도록 해야 한다.》

왕은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왕의 련은 그날밤 가짜왕을 싣고 홀연히 도미
의 집을 향하여 떠났다.

가짜왕의 련이 도미의 집에 이르렀을 때이다.

도미의 안해는 그때까지 남편을 기다리며 손
여물을 썰고있었다.

그는 도미가 갑자기 궁중으로 불러간 연유를
알리가 없었다. 그는 불안했다.

남편은 낮에 들어가서 저녁이 지나 밤이 깊었
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그는 눈이 까맣게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 왕의 거동이였다.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왕의 련이 도미의 집 문앞에 이르러 가짜왕이
그의 집 안방에 들어앉자 곧 도미의 안해를 불렀
다.

도미의 안해는 피할길이 없었다. 그는 곧 왕의
앞에 대령하였다.

이윽고 가짜왕이 물었다.

《네가 도미의 안해가 분명한가?》

《네!》

도미의 안해는 뜰아래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음.》

가짜왕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나서 말하였다.

《그러면 수집어할것 없이 머리를 들고 이 마
루위로 오르게 하라.》

이 또한 뜻하지 않은 분부였다.

그 순간 도미의 안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그와 함께 그의 머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너의 집으로 온것은 너를 보러 온것이니 사양치 말고 이리 오르게 하라.》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벌써 왕의 뜻을 깨달았다. 깊은 밤을 타서 남모르게 찾아온것이라든가 왕의 본부로 보아 왕의 거동에는 수상한것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야 미친한 한 녀인인 자기를 몸소 찾아와 그의 곁에까지 부를리도 없는것이였다.

도미의 안해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드디어 가짜왕은 자기가 찾아온 뜻을 말하였다.

《너는 지금 너의 남편이 어데 있는줄을 알겠지?》

《네, 오늘낮에 궁중으로 불러들어간것으로 아됩니다.》

도미의 안해는 여전히 머리를 들지 못했다.

《너는 너의 남편 도미를 무척 존경한다지?》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 아됩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남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거역함이 없느냐?》

가짜왕은 이렇게 다짐을 한다.

《예, 무슨 일이나 그의 뜻이라면 따를것으로 아됩니다.》

《그것이 비록 너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냐?》

《그렇것으로 아됩니다.》

도미의 안해는 가짜왕이 다짐해 묻는 말의 뜻을 잘 알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에는 다시 불안한 생각이 깃들었으나 자기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다.

가짜왕은 그제야 허리를 펴면서 한결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나의 뜻대로 따라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너의 남편의 뜻이다.》

도미의 안해는 묵묵히 대답이 없다.

《바로 나는 네가 천하에 없는 미인이란 말을 듣고 너를 얻기 위하여 너의 남편과 내기를 걸었다. 그래서 내가 그 내기에 지면 너의 남편에게 큰 벼슬과 많은 선물을 줄것이며 너의 남편이 지면 너를 나에게 바치기로 했던것이다. 그런데 종당에는 나의 뜻한바와 같이 내가 이겼으니 이제 네가 너의 남편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면 나의 말을 들음이 마땅할것이다.》

물론 이것은 거짓 꾸며낸 말이었다.

도미의 안해는 궁지에 빠지고말았다.

그는 벌써 가짜왕의 강박에 응하는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도미의 안해는 눈앞이 아득하였다.

가짜왕은 다시 재촉을 한다.

《자, 어서 차비를 하게 하라. 남편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어김이 없으리라고 했으렸다.》

이윽고 도미의 안해가 머리를 쳐들고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면 잠간동안 말미를 주시면 곧 단장을 고친 다음 임금님의 뜻을 받들가 하옵니다. 만일 처음부터 임금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비록 남편의 뜻이 아니라 한들 누구의 분부이시라고 소인이 그것을 감히 거역하겠나이까.》

그는 몸을 지키기 위하여 왕명이나마 속이는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결심하였던것이다.

가짜왕은 패히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도미의 안해는 우선 급한 고비를 피하여 그의 앞에서 물러났다.

이윽고 두루 궁리하던 도미의 안해는 녀종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너는 이미 버린 몸이니 오늘밤에 내대신 상감 마마를 모셔주는것이 어떠냐.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고 남편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 아직은 한 몸으로 두 사나이를 섬길 생각은 없다. 그리고 상감께서 남편을 궁중에 남겨두고 혼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니 남편의 뜻이란 말씀에도 반드시 거저이 없으리란 법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가 그사이에 생각한 계략이었다.

종은 그것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도미의 안해는 종에게 자기의 옷을 입히고 빗질과 분단장을 잘하여 자기와 비슷하게 꾸몄다. 그리고 가짜왕의 처소로 들여보냈던것이다.

물론 가짜왕은 속았다.

가짜왕은 마침내 도미의 가짜안해와 함께 하루 밤을 지내게 되었다.

도미의 안해는 그제야 홀로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 이튿날이었다.

왕이 가짜왕에게서 그 보고를 들었을 때이다.

《그러게 내가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것이 다 유혹을 받아보지 못한탓이거던...》

왕은 무릎을 치면서 패활히 웃었다.

그는 그자리에서 곧 늙은 신하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가짜왕이 다시한번 그 전말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왕은 득의만면하였다.

《그대가 그렇게 큰소리를 하던 도미의 안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오. 그래도 그대는 아직도 계집에게 정절이 있다고 기를 쓸가?》

늙은 신하는 혼자서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대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왕과 늙은 신하사이의 내기는 왕이

이긴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가 꾸민 사건은 얼마후 진상이 드러났다.

그 소문은 다시 온 서울장안에 퍼졌다. 왕이 헛물을 쫓다는 사실이 더욱 그들의 흥미를 끌었다.

《왕이 도미의 안해를 겁탈하려다가 도미의 안해의 계략에 속아 딴 다리를 굶었다는구나.》

드디어 소문이 궁중에까지 들어갔다.

왕이 처음 그 소문과 가짜왕이 속은 전말을 들었을 때 그는 노하였다. 그는 한 미천한 계집이 왕을 속였다는것이 패썹도 할뿐더러 더할나위없이 분하였다.

그는 다시 대궐로 도미를 끌어들었다.

그리고 추상같은 호령으로 엄포하였다.

《이놈, 네놈은 네놈이 지은 죄를 알렸다.》

도미는 뜰아래 엎드려 대답이 없었다.

왕은 다시 호통을 하였다.

《네 죄를 모른단말이나?》

《모르겠나이다.》

도미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물론 그는 왕의 뜻을 이미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죄로 될 리유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안해가 왕명을 속인것으로 되니 그제 죄라면 죄가 아니라고도 할수 없으나 그것은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피치 못할 길이었으니 계집이 정절을 지켰다고 하여 그것이 죄가 된다는 법은 어디 있는가.

도미는 벌써 죽음을 각오하고있었다.

《모른다? 이놈, 네 계집이 임금을 속였는데 그래도 네 죄를 모른다고 할가?》

《그 일로 말하면 제 계집이 녀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왕명을 거역한것이오매 소인의 생각으로서는 죄로 논할바가 아니라고 아뢰옵니다.》

도미의 대답에는 조금도 꾸밈새가 없었다.

《저놈, 저런놈! 너 이놈, 이곳이 어덴줄 알고!》

왕은 입에 거품을 물었다.

《황송하옵니다.》

왕은 다시 좌우를 돌아다보며 호통을 쳤다.

《저놈을 국법에 비추어 처단하되 왕명을 속인 죄로서 두눈알을 뽑고 강물에 띄우게 하라.》

권세없는 도미는 별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도미는 남달리 아름답고 남달리 정절이 높은 안해를 둔 리유로 하여 억울하게도 두눈알을 뽑히고 한수의 강물을 따라 돛대도 삿대도 없는 쪼각배에 실려서 정처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왕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도미를 처분하자 이어서 그의 안해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직접, 그를 시험할 배짱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그의 성이 풀리지 않았던것이다.

도미의 안해는 곧 왕앞에 대령하였다.

《오-》

왕은 그 순간 황홀하였다.

도미의 안해는 과연 아름다웠다. 그는 향간의 천한 백성다움게 얼굴단장이나 몸치장은 조금도 한것이 없었으나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왕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앉은 모양이 마치 함박꽃같았다.

그의 절색에 당장 반해버린 왕의 가슴속에는 무력무력 음란한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벌써 인제는 그의 고집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윽고 왕이 입을 열었다.

《네 남편은 국법에 의하여 이미 처단이 되었다. 아마 지금은 장님이 된채 서해바다 어느곳을 떠다닐것이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이미 그 소식을 들어 알고있었으므로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 같은 마음으로 땅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 왕에게 불러왔던것이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닥쳐올 새로운 박해를 가한 그는 다시금 눈앞이 아뜩해졌다.

그는 처음부터 그것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것 밖에 다른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왕은 뒤이어서 다시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니 너의 남편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는 못할것이다. 그리고보면 너는 이제는 주인이 없는 몸이다. 주인을 잃고서도 정절을 그냥 고집할것이나?》

도미의 안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잠간 생각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정절이란 예로부터 바칠곳이 있고서야 정절이옵지 바칠곳이없는 몸에 정절이 당할 말이겠나 이까.》

그렇게 말하는 도미의 안해의 가슴은 찢기는듯하였다.

《음.》

왕이 그 순간 만족한 얼굴에 미소를 띠우면서 하는 말이다.

《죽은 남편을 위한 정절은 없을까?》

《그것은 헛된 일로 아됩니다. 사람이 한평생 그 짝을 찾아 즐기라 하였으니 정절도 그로 하여 마련된것으로 아옵나이다.》

도미의 안해는 머리를 조아렸다.

《정녕?》

《네!》

《그러면 너는 곧 새짝을 찾겠단말인가?》

《만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는것이 마땅할가 하옵나이다.》

《좋다. 그러면 곧 나의 앞으로 오르게 하라. 나는 너를 후궁으로 맞아들일것이다.》

왕은 그리고 좌우에 명하여 그를 맞아올릴것을 분부하였다.

사태는 절박하였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그 순간에 잠깐 말미를 구하였다.

《황공한 분부로 아뢰옵나이다. 그러나 그전에 한 말씀 여쭙 일이 있는것으로 아뢰옵나이다.》

《무슨 말이나?》

《네, 소인이 지금 공교롭게도 몸이 깨끗지 못한 상태에 있사오니 이런 몸으로 상감마마를 모시겠나이까. 이삼일 말미를 주시면 다시 몸을 깨끗이 하여 상감마마의 분부를 받들가 하나이다.》

도미의 안해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순간이다.

그는 눈을 감고 왕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왕도 사정이 그렇다니 별도리가 없었다.

《음.》

그리고 그는 한참동안 생각하고나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곧 맑은 몸으로 대령케 하라.》

그리하여 도미의 안해는 그곳에서도 요행 급한 변을 면하게 되었던것이다.

도미의 안해는 궁중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벌써 아무데도 갈곳이 없었다. 이제 그의 집도 2~3일밖에는 안정처로 될수 없었으며 또한 남편이 없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발길 가는대로 한수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서 혼자 통곡을 하였다.

《지금쯤 조각배우에 흔들리는 남편은 혼자서 어느곳을 헤매이고있을까?》

그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더듬으면서 강쪽에 앉은채 하염없이 강물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몇지 않았다.

마침 그때이다.

어데서인가 강우로 임자 없는 배 한척이 흘러 내려와 강기슭을 따라 그의 앞에 와닿았다.

배는 돛대도 삿대도 없는 조그마한 고기잡이배였다.

《웁다, 저 배나 타자, 이제는 남편도 찾아갈 곳도 없는 이 몸, 어데로든지 남편과 같이 흘러가는 대로 이 몸을 맡겨보자꾸나.》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에 올랐다. 도미의 안해는 배우에 몸을 던지자 정신없이 그자리에 쓰러졌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귀찮았다.

배는 어느결엔지 다시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

주인 없는 조각배는 가련한 한 녀인을 실은채 서쪽으로 서쪽으로 정처없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다시 어떠한 섬에 이르자 그곳에 걸터버리더니 더는 흐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다와 한수어구의 사이에 가로놓인 천성도란 조그마한 섬이었다.

도미의 안해는 그제야 머리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바다가 가까운곳이었다.

하늘은 무연하게 넓고 높으며 주위는 죽은듯이 고요하였다.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에 섬기슭 갈밭이 와시시 소리를 낼뿐이다.

도미의 안해는 몸을 한번 으쓱하였다.

그가 배안에서 머리를 쳐들었을 때 바로 그의 눈은 그가 탄 배모양의 조그마한 배우에 누구인가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도미의 안해는 순간 가슴에 선뜻 짙이는데가 있었다.

도미의 안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그 배로 가까이 가서 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적을 살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도미였다.

《아이구머니나!》

도미의 안해는 그 순간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남편을 안아일으켰다.

정신을 잃은 도미의 모양은 정말 처량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눈이 빠져 눈두덩이 움푹 패여 두볼에는 선지피가 흘러 고약과 같이 말라붙어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슴의 고통은 몇지 않고 아직 체온이 느껴지는것이였다.

《여보, 나예요, 나예요, 당신의 안해예요.》

도미의 안해는 거듭 애달프게 불렀다.

도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오...》

그러나 이미 눈이 먼 그는 그 순간 서투른 손짓으로 자기의 안해를 더듬었다.

도미의 안해는 그자리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

그후 며칠이 지난 뒤이다.

고구려 산산이란 산아래 도미와 그 안해가 나타났다. 도미의 안해는 고구려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산아래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를 장만하고 그곳에서 두 부부가 살았다.

그리하여 도미의 안해는 소경인 남편을 받들어 비록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살림이나마 백년을 하루와 같이 행복스럽게 지냈다고 한다.